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의 한계점

역사적으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구조를 형성해 온 한·중·일 3개국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식, 가치, 행동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또 이들 의식구조의 주된 유형은 무엇일까?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은 ‘북경사회과학원’, 일본은 ‘일본청소년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 자국어로 된 공동의 설문지를 개발하고, 서울, 북경,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00여명을 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국 청소년의 의식성향, 행동양식, 문제상황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각국에서 5월~7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사회는 근대화·서구화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 각 영역의 변동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다. 서구에서도 그러했듯이 산업화 과정은 물질생활의 편리함은 가져다 주었지만 불가피하게 도시화, 농촌해체,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반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화에 따르는 도시화의 전개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며,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치의식의 의도적 전환이 사회로부터 시도되기도 한다. 실용주의, 합리주의 등 서구적 가치관이 그것이며, 이러한 가치관들은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사로서 사회체제의 확립을 위해 요구되기도 한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동의 여파가 가장 큰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다. 급격하고 혼란된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구조를 분명히 형성하지 못하여 심한 가치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인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부적응 행동도 증가하게 된다.

60년대의 경제부흥과 개발정책이 전개된 이래 선진국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OECD 가입이라는 꿈을 실현한 한국,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하여 지금까지도 선진 열강의 대열에서 경제대국을 이룩한 일본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직면해 있고, 최근 개방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겪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청소년은 우리 앞날을 가늠할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청소년들이 접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바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또 그들의 고뇌나 문제점을 밝혀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업이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이 갖고있는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시기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상이한 사회·경제·정치체제를 형성한 한·중·일 3개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식, 가치, 행동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앞으로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급격한 구조조정 및 빅뱅이 예고되고 있고, 이러한 탈 국경화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젊은 세대는 문화면에서 급속한 동질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지구규모의 정보사회의 대두는 이러한 경향을 한층 가속시키고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상호불신과 무 이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유행과 관심, 문화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동질화가 단순한 소비문화의 공유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동의 가치관과 인식틀을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인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사와 직결된 의식, 태도, 행동양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후, 그 분석결과에 기초해 3국 청소년들의 사고, 정서, 행동성향 전반을 비교하여 각국 청소년 의식구조의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중·일 3개국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식, 가치, 행동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 2) 각국의 상이한 사회구조 및 문화적 배경은 각국 청소년의 가치의식과 관계가 있을 것인가?
- 3) 각국 청소년 의식구조의 주된 유형은 무엇인가?

2.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고찰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동일한 동아시아권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산업화의 시기, 사회 각 영역의 변화속도 및 사회·경제체제 등이 서로 상이한 한·중·일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을 조사해 삼국 청소년들의 사고 및 행동성향 전반을 비교하고, 그들 의식구조의 주요한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에서 다뤄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고, 본 연구에서 다뤄질 연구문제를 제시하며, 지금까지 실증적인 자료를 기초로 청소년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본 연구에 도입된 연구방법을 설명하며, 조사대상 선정 및 표집, 자료분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끝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논리적 배경을 제공하는 제 2 장에서는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간 학문적으로 논의되어온 ‘의식구조’에 대한 개념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시도해 보고,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나타난 청소년 의식구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삼국 청소년의 생활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시대적 변화 추이에 따라 고찰해 본다.

제 3 장에서는 이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정관, 학교관, 사회관, 청소년 비행, 청소년 폭력, 친구관계, 자아관, 직업관, 가치관 등 9개 부분으로 영역화한 한·중·일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삼국의 사회구조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 삼국 청소년의 가치특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삼국 청소년의

가치성향 및 행동성향을 중심으로 각국 청소년 의식구조의 대표적 유형을 기술하며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교육학이나 사회학 분야 등에서 의식구조와 관련된 문헌들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헌들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실증적 자료를 기초로 의식구조를 조사한 연구에 제한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중에서도 표집대상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인 경우만 선별하였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91)의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우리나라 청소년을 세계 10개국과 비교한 제2차 국제조사보고서-’는 일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마련한 ‘세계청소년 의식구조’ 조사로서, 만 18-24세 사이의 청소년 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의 11개국에서, 훈련된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11개국 청소년의 생활영역과 인생관 등을 조사하여, 각국 청소년의 의식상의 특징, 고민, 문제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청소년 정책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삼성복지재단(1994)의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세계적 접근-’은 전국의 초·중·고교생, 재수생, 대학생 및 근로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사와 직결된 태도와 행동양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후, 분석결과에 기초해 그들의 의식세계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양식 전반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제 1부와 행동에 관한 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의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은, 서울시의 중

· 고등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과 희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현장의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 탐색 및 제도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종교 청소년과 비종교 청소년을 구분하여 종교관, 국가·민족관, 통일관, 가정과 이웃, 노동·직업관, 학교·학업관, 인생관의 의식부분과, 취미생활, 여가생활, 수면·식사습관, 친구, 용돈, 독서, 고민·걱정거리의 생활양식 부분을 비교 조사하였다.

오영태·강상욱(1995)¹⁾의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는 한국의 인천시와 중국의 연길시 초등학교생 58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학생들의 의식상태를 조사하고, 중국의 초등학교생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북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유추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교생들의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가관, 사회관, 경제관, 윤리관, 교육관, 가족관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6)의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은, 삼성복지재단의 의뢰를 받아,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4644명과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세대 차를 조명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학부모 2,566명, 총 7,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처한 생태학적 조건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 및 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청소년의 발달심리적 특성, 가치지향성, 사회적 의식성향 등이 청소년의 의식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제 2부는 가치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청소년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청소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오영태·강상욱(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29집, 제 1호, pp.197-244.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엄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리적 특성을 국가간에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설문지 중심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질문지에 의한 방법이 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을 조사하는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관찰이나 면접에 비해 시간을 절약해주므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국가간, 집단간의 비교 역시 질문지를 통한 통계분석결과인 빈도(percentage)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수행과정에서 설문의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문헌연구에 관해 한·중·일 삼국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조사 지역의 선정까지 수주간의 논의 끝에, 측정도구인 설문지가 완성되었고, 표집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조사지역은 각 국가의 수도, 즉 한국은 서울, 중국은 북경, 일본은 동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설문조사는 의견교환을 통해 작성된 공통의 설문지를 가지고, 한국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중국은 ‘중국북경사회과학원’이, 일본은 ‘일본청소년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서울, 북경, 동경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지를 부호화(coding)하여 삼국간에 교환하고, 통계분석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통계결과의 해석 및 보고서의 집필, 편집은 한·중·일 삼국이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대상의 선정 및 표집방법, 측정도구의 구성, 자료분석 방법 등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1) 측정도구의 구성

한·중·일 삼국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위해 조사영역을 가정관, 학교관, 사회관, 청소년비행, 청소년폭력, 친구관계, 자아관, 직업관, 가치관의 9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 총수는 75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학년, 성별, 교급, 학교의 성적의 4문항, 가정관을 측정하기 위한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와 자식관계, 가족과의 대화에 관련된 9문항, 학교관을 측정하기 위한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에 대한 평가, 학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8문항, 사회관을 측정하기 위한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바람직한 국가상에 관련된 7문항,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경험 정도, 비행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14문항, 청소년 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 폭력경험 정도,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에 관련된 12문항,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 친구와의 친밀도, 소외감/고독감에 관련된 5문항, 자아관을 측정하기 위한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아비판, 독창성/개성에 관련된 6문항, 직업관을 측정하기 위한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일에 대한 사고방식에 관련된 3문항,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삶에 대한 인식, 공동체 의식, 고민/걱정,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에 관련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영역분류와 세부설문내용은 다음의 < 표 1 >과 같다.

< 표 1 > 설문영역 및 세부설문내용

설문영역		문항번호	세부설문영역 및 설문문항	
사 회 인구학적 변 인	학 년	1)	학 년	1)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성 별	2)	성 별	2) 성별 (①남 ②여)
	학 교	3)	학 교	3) 학교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학교의 성적	4)	학교의 성적	4) 학교의 성적 (①상·중상 ②중 ③중하·하)

설문영역		문항 번호	세부설문영역 및 설문문항	
가정관	가정생활 만족도	1-1	가정생활 만족도	1-1. 여러분은 지금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관계	3-1, 3-2	부모에 대한 존경심	3-1. 부모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 3-2.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3-6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3-6.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것이다
		3-3, 3-5, 3-7, 11-5	부모와의 갈등	3-3.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3-5.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3-7. 가솔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11-5.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가족과의 대화	3-4	가족과의 대화	3-4.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학교관	학교생활 만족도	1-2	학교생활 만족도	1-2. 여러분은 지금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대한 평가	8-8, 8-11, 8-17	학교 및 학교공부의 중요성	8-8.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8-11.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8-17.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
		8-14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	8-14.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8-15	학력과 출세와의 관계	8-15. 대학은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
	학력에 대한 인식	8-16	학력과 능력과의 관계	8-16. 학교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9	희망학력	9. 당신은 어느 정도의 학력을 희망하십니까?
사회관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1-4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1-4. 여러분은 지금 우리사회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8-3	부와 권력의 위력	8-3.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
		8-4	사회적 빈부차	8-4.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
		8-2	법외 불합리성	8-2.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여러분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음의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선택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5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5.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바람직한 국가상	7	바람직한 국가상	7.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설문영역		문항 번호	세부설문영역 및 설문문항	
청소년 비행	비행의 경험 정도	12-1~ 12-7	비행의 경험 정도	1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비행에 대한 허용도	13-1~ 13-7	비행에 대한 허용도	1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 폭력	학교나학교주변 폭력의발생정도	10-1~ 10-7	학교나학교주변 폭력의발생정도	10.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폭력사용 경험	11-1~ 11-4	폭력사용 경험	11. 여러분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	14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	14.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한 괴롭힘이나 폐쇄 등 이 일어나기 쉬운 때와 장소는 언제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친구 관계	친구관계 만족도	1-3, 15-1	친구관계 만족도	1-3. 여러분은 지금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5-1.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
	친구와의 친밀도	15-2	친구와의 친밀도	15-2.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소외감/ 고독감	15-3, 15-5	소외감/ 고독감	15-3.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은 별로 없다 15-5.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자아관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1-5, 15-8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1-5.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5-8.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아비판	15-4, 15-6	자아비판	15-4.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5-6.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독창성/개성	8-7, 15-7	독창성/ 개성	8-7.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15-7.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
직업관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6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6. 여러분이 장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중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일에 대한 사고방식	8-9	직업의 중요성	8-9.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13	창업정신	8-13.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설문영역		문항 번호	세부설문영역 및 설문문항	
가치관	삶에 대한 인식	8-1, 8-5, 8-6	경제관	8-1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자신의 미래상	8-5.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현재지향성/ 미래지향성	8-6.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
	공동체 의식	8-12	공동체 의식	8-12.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고민·걱정	2	고민·걱정	2.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	8-10, 16	결혼의 중요성	8-10.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지식 습득의 경로	16.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 니까?

2) 연구대상의 선정 및 표집조사와 자료분석 방법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교급별, 학년별, 성별, 성적별을 설문대상 표집을 위한 준거변수로 고려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국가별로 각각 2,000명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성별, 학교 급별로 계층화하여 균등하게 표집대상을 선정해야 하나, 표본선정의 어려움상 실제적으로는 중학생 960명과 고등학생 1,040명을 구분하여 표집한 후, 다시 남자중학생 460명, 여자중학생 500명, 남자고등학생 540명, 여자고등학생 500명으로 재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원래 서울로 정하였으나, 서울이 북경이나 동경에 비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도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1개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각각 7개교씩, 경기도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각각 4개교씩 총 22개교이었다.

설문조사는 1997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본 연구진이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설문지를 전달, 담당교사의 참여 하에 학교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000부였는데, 그 중 1,976부가 회수되어 98.8%

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부실기재된 자료 6부를 제외한 1,97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중·일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WIN(ver 6.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표집한 결과 대상자별 표집크기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 표 2 > 표집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국 가		한 국	중 국	일 본
구 분		빈도(%)	빈도(%)	빈도(%)
전 체		1970(100)	2255(100)	2005(100)
교 급	중학교	983(49.9)	1162(51.5)	690(47.9)
	고등학교	977(49.6)	1093(48.5)	1045(52.1)
	소계	1960(99.5)	2255(100)	2005(100)
학 년	중1	152(7.7)	396(17.6)	235(11.7)
	중2	370(18.8)	429(19.0)	322(16.1)
	중3	461(23.4)	337(14.9)	403(20.1)
	고1	302(15.3)	363(16.1)	388(19.4)
	고2	351(17.8)	424(18.8)	430(21.4)
	고3	324(16.4)	306(13.6)	225(11.2)
	소계	1960(99.5)	2255(100)	2003(99.9)
성 별	남	979(49.7)	1083(48.0)	992(49.5)
	여	987(50.1)	1149(51.0)	1011(50.4)
	소계	1966(99.8)	2232(99.0)	2003(99.9)
성 적	상·중상	652(33.1)	672(29.8)	358(17.9)
	중	771(39.1)	969(43.0)	934(46.6)
	중하·하	494(25.1)	528(23.4)	612(30.5)
	소계	1917(97.3)	2169(96.2)	1904(95.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한·중·일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49.9%·49.6%, 51.5%·48.5%, 47.9%·52.1%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년별 분포는 15%~20%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한국의 중학교 1학년(7.7%)의 빈도가 약간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보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성별 분포는 한·중·일 모두 대체적으로 50%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학교 성적별 분포도 30%내외의 분포를 보여 고르게 나타났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삼국을 비교하는, 규모가 비교적 방대한 조사 연구임에도 단 기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한·중·일 삼국의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고,

둘째, 청소년 비행과 폭력은, 조사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통제하기 어려운 문항이므로, 실제보다 과소조사될 수도 있으며,

셋째, 연구방법을 설문조사로만 한정하였기에 삼국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로는 미비한 점이 있는 이외에,

넷째,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의식 및 생활 태도에 있어 학생 신분자와는 차이를 나타내는 재학생 및 근로청소년이 제외되는 등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의식구조
2. 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간 학문적으로 논의되어 온 '의식구조'에 대한 개념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시도해 보고,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나타난 청소년 의식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삼국청소년의 생활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시대적 변화추이에 따라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논리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1. 청소년의 의식구조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의식구조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그간 학문적으로 논의되어 온 ‘의식구조’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보고, 청소년 의식구조에 관한 보편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의식구조의 개념정의

‘의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최초로 철학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학문적 관심은 현대심리학이 발전되면서 한층 고조되어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될 수 있었다. 그 후 교육학, 사회학 분야까지 의식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그 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의식’이라는 용어는 학계의 전문용어로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의 일상용어가 될 만큼 사용빈도가 높아졌으나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등 학술적으로 체계있게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황정규²⁾는 의식구조를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고방향(a way of thinking)으로 정의하고, 지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인지적 의식구조와 태도, 가치관, 도덕성 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의식구조로 나누었다. 이영호³⁾는 의식을 현실에 대한 인식이며 실제행동의 규범이 되는 것으로, 전병재⁴⁾는 신념체계와 가치체계를 포함한 인간의 인지적 구조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만도 수

2) 황정규(1979),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 이영호(1981),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 1981 (3), pp.13-25.

4) 전병재(1982), 국가발전과 지식인의 의식구조, 국민의식과 국가발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많은 학자들이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어 의식, 혹은 의식구조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고 쓰는 경우는 드물며 통일된 개념정의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의식구조를 대표하다시피 하여 흔히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가치관(價値觀)이다. ‘의식’과 ‘가치’가 동일개념으로 사용되면, 의식은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즉 정서적 감정의 측면을 강조한 주관적 입장을 띄게 된다. 이럴 때 가치관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 인식, 평가 등 객관적인 측면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가치관만을 가지고 개인의 의식구조를 삼기에는 불충분하다. 의식구조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이외에 사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고 객관적인 인식, 태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6)는 ‘가치의식’이라는 조어(造語)를 통해 가치와 의식이라는 두 개념을 조합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측면과 주관적 가치의 두 측면을 종합하여 의식구조를 정의하려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접근은 정원식 등이 의식구조를 인지적 의식, 가치의식 그리고 행동성향의 세 측면으로 분류하여 측정한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에도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인지적 의식이란 대상에 관한 정보, 지각, 인식, 평가 등 객관적인 지식의 양과 질을 포함하는 인간심리의 인지적 측면(知)을 의미하고, 가치의식이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목표지향, 가치추구 등 인간심리의 정서적 측면(情)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과 행위로 표출될 수 있는 내면화된 의식인 행동성향은 인간심리의 의지적 측면(意)을 의미한다⁵⁾.

이상의 접근방법은 사실 인간의식의 요소를 사고, 감정, 의지, 즉 지(知), 정(情), 의(意) 세 가지로 본 구성주의 심리학(structuralism)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가치지향(Value Orientation)이란 용어를 사용

5) 정원식 외(1985),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p.3.

하여 가치관의 갖가지 이론을 제시한 Kluckhohn과 Strodtbeck⁶⁾의 개념정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가치관이란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평가과정의 세 가지 요소,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방향적(directive)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구조적 개념이다. 그리고 문제해결과 관련되어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여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개념을 동일화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의식’을,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인 인지(認知)적 측면과 감정, 신념, 가치를 포함한 정서(情緒)적 측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적절한 상황에서 개인이 갖게되는 행동양식인 의지(意志)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아울러 청소년의식의 전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되고 내면화된 의식이외에 현실에 대한 인식, 가치와 현실인식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 등도 의식구조의 내용에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청소년 의식구조의 특징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질적인 외래문화의 접촉이나 급속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면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한 변화된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태도나 의식구조를 형성함에 있어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성들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는 한·중·일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6) F. R. Kluckhohn & F. L. Strodtbeck,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 New York: Row Peterson and Co. 1961, p.4

(1) 물질주의적 성향

산업화를 거치며 비교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성장한 청소년 의식구조의 대표적 특징은 물질주의로 집약될 수 있다.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절약이 미덕’인 시대가 아닌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성장하고 있으며⁷⁾, 이러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현실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황금만능의 물질주의를 그들 의식구조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논리를 충분히 수용하고 자라난 청소년들은 내가 번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개인주의적 소비의식과 실용적인 것보다는 모양과 멋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감각주의적 소비양태를 지니게 되어 이기적 개인주의와 감각적 현실지향주의 양상을 아울러 띄게 된다.

(2) 이기적·개인주의적 성향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주요한 특징인 집합적 가족주의, 혈연중심의 공동체주의의 가치성향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서구적 가치관인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개인을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계몽주의 사상에서 출발된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왜곡된 이기적 행동양식은 전통적인 집합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벗어나 있는 청소년 세대에 한층 두드러진다.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 친족, 회사 등 개인이 속한 집단을 더 중시 여겨,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적 가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의식이 더욱 지배적이나, 청소년세대는 집단목표에의 충성이나 공동체에의 동일시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어 개인적 가치추구에 더 큰

7) 문용린(1996),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p.285.

비중을 두으로써 개인주의적, 나아가 이기주의적 가치성향을 갖게된 것으로 보여진다.

(3) 기성세대와의 갈등적 성향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질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세대차로 불려지는 이러한 사회현상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거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세대차는 단순한 차이(difference)로서 보다는 격차(gap)로서 이해되어지며⁸⁾, 여기에 많은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합리적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느끼며, 한편 기성세대는 청소년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너무 진보적이고, 때론 급진적이며 이상주의적이므로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대간의 격차는 서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 갈등, 마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불신과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현재지향적 성향

이미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장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욕망 충족을 기꺼이 희생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현재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희생을 요하는 힘든 일은 기피하며, 자아실현의 영역을 여가생활의 영역에까지 확장시켜 여가를 더 가지려 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려는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현재

8)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p.229.

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해 서구의 향락적인 문화패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물질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문제점은, 인생의 목표를 낮추고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 자신의 현재중심의 쾌락주의를 부도덕하고 도피적인 것이 아닌 바람직한 삶의 목표가치로 추구하여 문제상황과 부적응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 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유래된 동일한 문화의 기원을 갖고 오랫동안 긴밀한 역사적 관련성을 맺어왔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삼국은 고대로부터 상호이동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당시 선진 문명국인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시켜 왔으므로 삼국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삼국은 각자의 고유한 문자를 갖고 있음에도 한자를 공동으로 사용해 “한자문화권”⁹⁾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삼국이 통신 및 의사소통의 수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정보화시대로 대두될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삼국은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유교적 질서관과 윤리체계를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러한 유교식 전통은 가부장의 지위, 부모와 자식간의 특별한 윤리적 관계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듯 외모가 비슷하고, 한자를 사용하며, 유교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한 삼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독자적 원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세나라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속에 있으면서도 유교를 대하는 인식이 각기 달랐으

9) 공성진(1995), 한·중·일 문화인식과 동북아의 미래, 기업경영 443호, p.95.

며, 한국은 孝, 중국은 信義, 일본은 忠을 강조하는 등 유교에서 저마다 강조한 덕목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갖고 있는 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청소년 의식구조의 형성과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조선조 사회의 지배적 가치였던 유교적 사상에 그 근거를 둔다. 유교적 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양에서 자연의 정복과 개척을 중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자연에 대한 순응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자연관, 서구의 근대적 인본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해방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기초로 한 전통적 인본주의, 즉 동양적 인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가치의 또 다른 특성은 철저한 상하 위계적인 서열관계를 중시여기는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이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등 모든 기본적 인간관계와 직업 및 신분집단의 관계가 엄격한 위계로서 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하 서열의식과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은 근대화를 경험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뿌리깊이 잠재해 있는 전통가치이다.

한편, 유교적 전통가치의 대표적 특성으로 집합주의의 가치지향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집합주의가 지니는 주요한 특징은 가족, 지역 및 국가 공동체 등 여러 차원의 집합체 가운데서도 특히 가족이 중요시되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¹⁰⁾로서, 개인보다는 부모와 조상, 친족 등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러한 가족주의적 성격은 친자간의 기본윤리인 ‘효’를 사회윤리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인본주의, 권위주의 및 집합적 가족주의의 전통적 가치성향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어떠한 방향으로

10) 최제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pp.21-46.

변화되었을까?

근대화라 불리는 사회변동은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사회구조상의 변동을 말한다. 즉, 전통사회의 구조가 근대적인 사회의 구조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본격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은 1960~197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 기간동안 한국사회는 농촌사회로부터 도시화 및 공업사회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왔는데 그 주된 유형으로, 산업화된 사회, 도시화된 사회, 중산층의 사회를 꼽을 수 있다¹¹⁾. 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는 한층 고도화되어 오늘날에는 이미 정보산업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전국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했으며, 70년대 이후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중산층 인구비율이 증가하여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기 시작, 부의 편중화와 경제력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화시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증대된 부가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오히려 상대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는 사회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계층간, 지역간 집단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남게 되었다. 절대적인 사회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근대화 과정은 사회적 분배의 공평성이나 사회정의의 정착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 근대화과정 이후,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권위주의적 정치로 특징 지워져,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민주화 투쟁의 대상이 되었고,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고학력 사회’가 등장하면서 고등학교 진학률 95%, 대학 진학률 30%를 넘어서 인구비율로 볼 때, 한국의 대학생 비율은 세계에서 2, 3위를 차지할 정도의 고학력사회가 되었다. 또한 70

11) 임희섭(1994), 전거서, p.239.

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구조는 ‘핵가족화’, ‘평등화’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평균가족수는 4명정도, 핵가족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70%를 넘게되어 전통적인 부자중심의 가족구조를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가족 내의 권력구조는 상당정도 평등화 되어있다¹²⁾.

이처럼 급격함으로 묘사되는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그만큼 우리 삶의 힘겨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 과정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혼란스러워 하며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기도 한다. 인본주의,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가치는 산업화, 도시화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공동체적, 친족적 결속이 와해됨으로써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전통적인 사회적 연대의 해체로 탈 집단화된 개인은 원초적인 연고적 관계에 안주함으로써 혈연과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연줄망을 형성¹³⁾,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문제에 가장 직면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이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경제적 빈곤, 후진사회로서의 절망감이나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생산주의 시대에 살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 더 물질주의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며, 전통가치를 부정하고,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등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한 지식위주의 교육, 학력위주의 교육병리현상과 그에 편승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은 청소년을 과열된 학습경쟁 속으로 몰아 넣어 갈등상황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부정적 행동을 초래하고 있다.

12) 임희섭(1994), 전계서, p.241.

13) 임희섭(1994), 상계서, p.54.

2)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가치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문화는 서방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근원성을 갖고 있다. 가치의식, 사회조직 등 여러 방면에 있어 서방문화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는 중국문화는 객관적인 이해와 해석을 주체로 논리적 자아의 형성을 중시여기는 서방문화와는 달리, 인성(人性)을 주체로 한 도덕적인 자아의 형성을 중시여겼다¹⁴⁾.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덕치(德治)를, 사회적으로는 덕행(德行)을 경제적으로는 의리(義利)를, 개인적으로는 충효(忠孝)를 실천함이 중국사회의 가치체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가치가 집단주의, 전제주의의 계층구조를 조직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조직의 관점에서 중국은 기독교문화의 영향으로 교회의 비중이 큰 서방과는 달리 가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전통사회구조중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형태가 바로 중국 고유의 가족제도이다. 미국의 M. J. Levy¹⁵⁾ 같은 학자는 중국의 모든 중요한 경제 및 기타 사회적인 관계는 정부와 가정간의 관계라 할 정도로 가정은 사회의 핵심으로서 중국 전체 사회가치체계를 응결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가정은 혈연중심으로써 부계가 주축이 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절대복종관계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상하관계는 유교의 ‘효’와 ‘삼강오륜’ 등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같은 혈연중심의 가정의 기동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고 혈연의 범위를 초월하는 중국사회의 계층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통중심의 중국사회는 1978년이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14) 노동선(1993), 중국문화의 가치체계와 민족성 연구 시론, 중국연구 14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p.13.

15) Marin J. Levy, The Family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Mass: Havard Press, 1948

주축으로 한 개혁·개방정책 실시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reform)’이란 기존의 경제, 사회체제 및 제도를 변혁시킴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사고, 사상 및 행동양식까지 광범위하게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대목표인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념, 제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렇듯 경제정책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전환을 포함한 본질적인 전환을 모색했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이미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최근 각국의 경제력을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환율로 계산할 때, 1인당 GNP는 2,000달러 수준, GNP 규모는 세계 2위임을 IMF는 밝히고 있어¹⁶⁾ 중국이 21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대내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한 결과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현대화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장악은 물론, 동북아 신질서 형성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동소평 시대 18년간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력은 고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12억 중국인구의 약 80%가 사는 농촌의 개인소득이 월등히 증가되고, 삶의 양적·질적 향상은 물론, 중산층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왜곡된 서구의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관료의 부패, 서구의 저질·퇴폐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자리잡고 있다. 과거 전통을 존중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왔던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16) Economist, 1993년 5월 15일자.

급속한 변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래의 가치관에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물결은 이미 거센 흐름을 타고 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중국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중국의 개혁이 구 소련이나 동구권의 몰락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21세기를 주도할 세력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 할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1997년 7월 1일부로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이라는 변수로 인해, 중국은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홍콩의 경제적 풍요와 시장경제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로 인해 중국의 개방정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급속한 사회 변화의 조류 속에서 통일된 사회구조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 문화적 혼재, 가치관의 혼란 등이 만연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중국은 유교사상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40년이상 일상생활을 지배해온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개방의 물결과 함께 밀려들어온 자본주의 문화 등이 혼재 되어 일으키는 갈등 속에서 문화적 아노미상태에 처해있다.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기형적인 경제성장은 정신적인 면보다는 가시적인 물질 면에 집중되어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국이 겪었던 경제적 빈곤의 산물인 불충분한 학교교육과 문화사업 및 문화시설의 부족 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동이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화는 그들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3) 일본의 사회문화적 환경

일본은 사회제도나 가치체계면에서 한국, 중국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삼국의 보편적

가치관인 유교도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되었다. 즉 유교 자체의 순수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킨 한국,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유교적 전통을 재해석하여 자국의 고유전통과 조화시킴으로써 차별화 하였는데, 이는 메이지 시대인 1868년 전 국가의 보편적 관념이었던 “부시도(Bushido)”에 잘 나타나 있다. 부시도는 유교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사무라이 윤리도로써 군주에의 절대충성과 부모에의 효도를 부시도의 두 가지 핵심강령으로 보았다¹⁷⁾. 한국과 중국의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면 일본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부모나 가족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위에 두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가족개념 및 가족제도에서 명백해진다.

사회인류학이나 가족사회학에서 가족의 개념을 논할 때, 가족은 혈연과 결혼관계로 결합된 동거집단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가족은 주거형태를 기반으로 형성된 형식적 사회집단으로, 가족구성원의 조건으로 혈연보다는 거주와 경제요소를 중시 여기므로 일반적 개념인 가족(family)보다는 일본고유의 “家(いえ, ie)”, 즉 한 지붕밑에서 함께 사는 동거집단인 가구(家口, household)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家”의 기본의미는 가족의 계승에 있다. 일본도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영속성에 비중을 두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가족은 혈연원리가 중요하지 않은 만큼 가장에 대해서도 가장권은 인정하나 父權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자가 항상 가족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장자상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혈연관계가 없는 양자도 가족을 계승할 수 있다. 또한 딸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도 그 능력에 따라 가족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¹⁸⁾. 이처럼 일본에서는 여자도 가계를 이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자들도 후계자가 될 때까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성취지위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17) 박종돈(1994), 동양적 유교사상 이후의 경영실패와 행동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 비교 분석-, 인천전문대논문집 21권, p.35.

18) 박종돈(1994), 전제논문, p.36.

일본의 근대화가 앞당겨 졌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현대 일본을 특징짓는 독특한 형태의 능력과 경쟁은 분명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이같은 일본 가족의 계약적 성격 때문에 그곳의 윤리도 효보다는 충이 강조되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형성시 혈연 및 지연에 매우 집착하는 한국, 중국 인과는 달리 동질성 형성에 있어 타고난 재능과 경력을 친족관계 우위에 두었다.

이러한 일본 가족개념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화와 더불어 가장 큰 변화의 일로에 있는 것이 가족, 즉 가족문제의 전개이다. 전후 일본은 이혼율의 증가, 출생률의 감소, 노인문제 등 구미 선진국가와 유사한 경향의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해체현상이 주요한 가족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최재석¹⁹⁾에 따르면 가족해체란 가족원간의 결속력이 약화 또는 해체로 인해 가족이 1차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 한다. 별거, 이혼, 혼외의 남녀결합을 통해 불완전한 혹은 결손가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자녀의 문제행동, 노후생활불안, 자살의 증가, 미혼모 문제 등 가족의 위기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통제의 원초적 역할을 하며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가족이 기능을 상실한 상황을 말한다. 그는 또 이러한 가족문제는 산업화 함께 진행된 가족체제 자체의 변화, 가족이테올로기의 변화 및 사회전반의 개인주의, 무규범 등의 가치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²⁰⁾.

지금의 일본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던 일본이 와신상담하는 자세로 온갖 역경을 딛고 패전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뤄낸 경제대국의 신화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총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일본의

19) 최재석(1990), 현대 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p.300.

20) 최재석(1990), 전개서, p.303.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미 세계의 화제가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을 세계 속의 오늘의 위치로 이끌어간 일본의 제반 사회 여건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으며, 특히 일본사회 내부의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일본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신장, 핵가족화 현상, 독신자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목표도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재지향주의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전후의 부흥기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치며 물질적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란 젊은 세대는 현재의 자기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감성에 충실하게 매일매일을 살고 싶어하는 현재중심의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중국, 일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III 장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영역 등 총 9개 부분으로 영역화 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가정관
2. 학교관
3. 사회관
4. 청소년비행
5. 청소년폭력
6. 친구관계
7. 자아관
8. 직업관
9. 가치관

한·중·일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생활실태 및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의식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9개 부분으로 영역화한 한·중·일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삼국의 사회구조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 삼국 청소년의 가치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1. 가정관

1) 가정생활 만족도

1-1.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2) 부모와 자식관계

(1) 부모에 대한 존경심

3-1.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3-2.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

(2)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3-6.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것이다

(3) 부모와의 갈등

3-5.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3-3.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3-7.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11-5.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3) 가족과의 대화

3-4.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4)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와 자식관계, 가족과의 대화 등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삼국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부모와 자식관계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가족과의 대화의 경우에는 삼국청소년들이 가족들과 얼마만큼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며,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가정생활 만족도²¹⁾

1-1.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국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대단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1,969명 가운데 372명으로 18.9%,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158명으로 58.8%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5.0%가 ‘대단히 만족한다’, 46.5%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일본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3.6%가 ‘대단히 만족한다’, 57.4%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77.7%, 중국은 91.5%, 일본은 81.0%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한국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영태·강상욱이 한·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한국 초등학생의 경우 69.3%, 중국은 92.1%가 가정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한국 학생의 만족도가 월등히 낮았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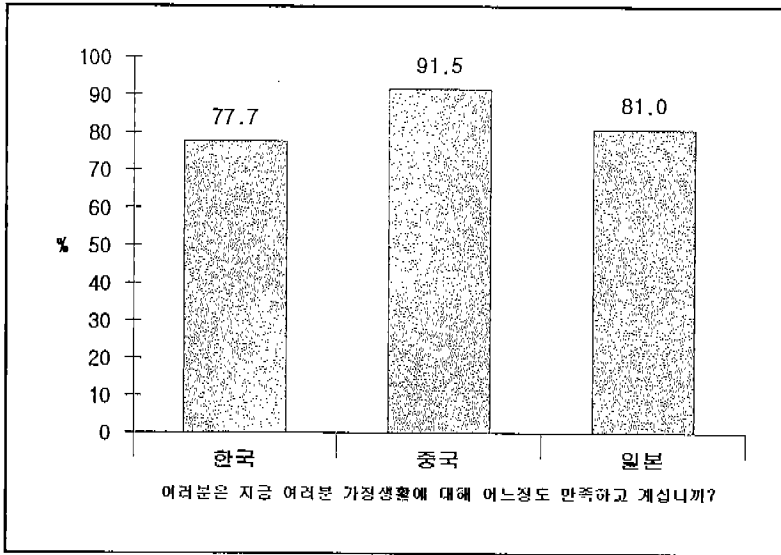
교급별로는 삼국 모두 중학생의 경우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불만족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도 삼국 모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남-76.3%, 여-78.9% 중국:남-91.4%, 여-91.8%, 일본:남-79.0%, 여-83.5%).

21) 부록 < 표 3 > 참조.

22) 오영태·강상욱 (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대는

(그림 1)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성적과 가정생활의 만족도에서 삼국은 특색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학교성적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성적이 중상 이상의 경우 응답자의 83.2%가, 중간 정도일 경우엔 78.6%가, 학교성적이 중하 이하일 경우엔 68.3%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여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성적이 중간 이상인 경우와 중간이하인 경우에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상·중상-85.4%, 중-85.4%, 중하·하-72.4%).

2) 부모와 자식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에 대한 존경심,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부모와의 갈등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의 경우

에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등 총 3영역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부모에 대한 존경심²³⁾

3-1.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3-2.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

삼국청소년들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학생은 81.9%, 중국은 97.2%, 일본은 6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은 중국, 한국, 일본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중국과 한국에 비교하여 월등히 낮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교급별로 보면 삼국이 모두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남학생(58.4%)보다는 여학생(66.9%)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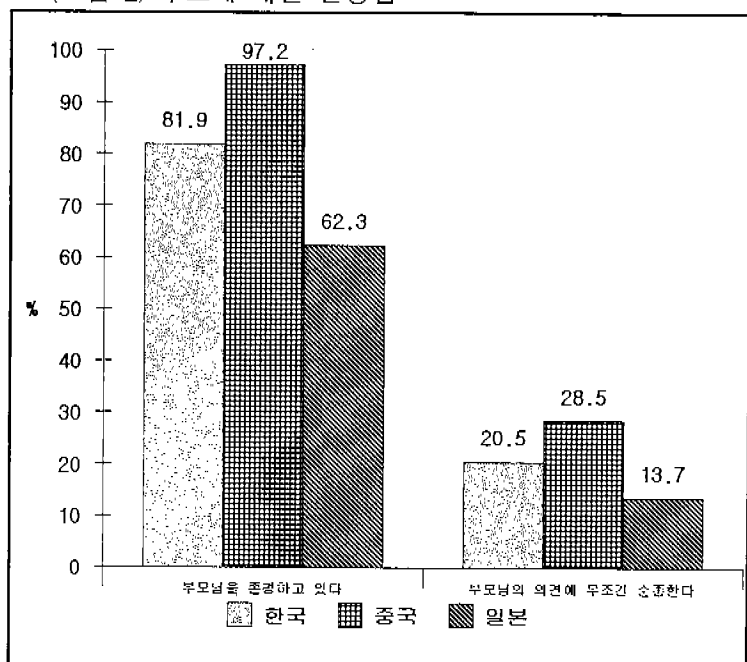
학교성적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성적과 관계없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높았다.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한국의 경우 40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5%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642명으로 28.5%이었고 일본은 전체 응답자의 274명으로 13.7%로 나타나 위에서 살펴본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와 마찬가지로 중국 청소년들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23) 부록 < 표 4 >, < 표 5 > 참조.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는 있지만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삼국의 경우 모두 부모님의 의견에 절대 순종하는 청소년은 30%미만으로 자기주장과 의사표현이 분명한 신세대의 일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2) 부모에 대한 존경심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 우선 교급별로 보면, 한·중·일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님의 의견에 더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경우 중학생(35.7%)과 고등학생(21.1%)의 격차가 한국(중-23.0%, 고-18.0%)과 일본(중-17.0%, 고-10.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모님 의견에 대한 순종정도에 있어 한국(남-20.3%, 여-20.6%)

과 일본(남-12.3%, 여-15.1%)의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중국(남-32.8%, 여-24.7%)의 경우엔 성별에 따라 순종정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 남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정도가 여학생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 높은 사회생활의 참여율, 남녀평등주의의 확산 등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확고해진 중국사회의 일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2)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²⁴⁾

3-6.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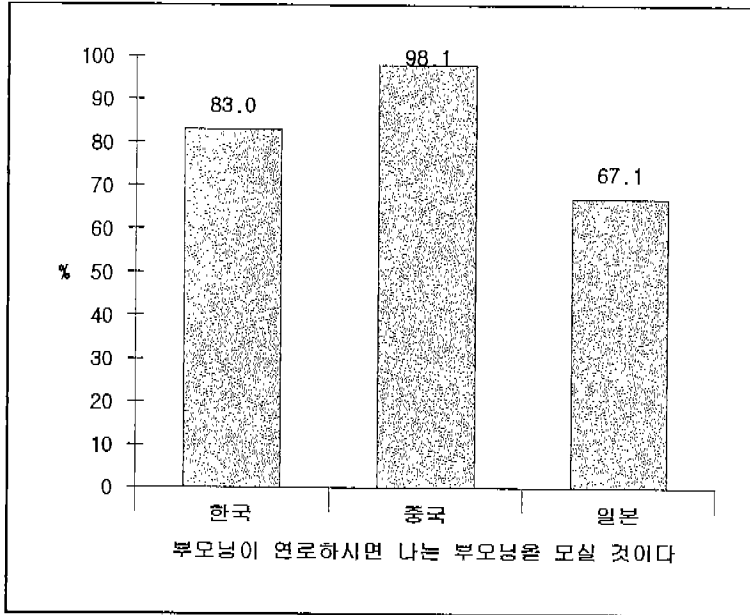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 ‘부모가 연로하시면 부모를 모실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212명으로 전체 2,248명의 응답자들 중 98.1%에 해당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83.0%가, 일본은 67.1%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변해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마찬가지로 중국, 한국, 일본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 따른 가족개념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장 먼저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을 거친 일본이 가족의식의 변화에 더 많이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개방화,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부모, 가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이처럼 전통적인 측면을 고수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일본청소년연구소가 1995년 11-12월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 3개국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도 나타난다. 중국청소년의 66%(미국-46.0%, 일본-16.0%)가 부모가 허약해 졌을 때,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도와드리겠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0%(미국-30%, 일본-75.0%)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답변해 중국청소년

24) 부록 < 표 6 > 참조.

의 경우가 유교정신을 토대로 한 효의 개념이 가장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림 3)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3) 부모와의 갈등²⁵⁾

삼국청소년들이 부모와 어느 정도의 마찰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간섭정도, 부모에의 반항, 가출충동, 체벌경험 등의 문항을 구성해 그 갈등정도를 조사하였다.

- 3-5.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 3-3.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 3-7.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 11-5.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25) 부록 < 표 7 > ~ < 표 10 > 참조.

한·중·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2.4%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일본(50.2%)과 중국(2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낮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낮은 비율을 나타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입시,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마찰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중학생(68.2%)이 고등학생(56.9%)보다, 남학생(67.5%)이 여학생(57.6%)보다 부모님으로부터의 간섭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부모에의 반항의 경우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본의 경우 과반수 이상(5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한국(37.5%), 중국(7.8%)순으로 나타나, 중국의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청소년들만이 부모에게 반항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40.4%)이 중학생(34.7%)보다 더 반항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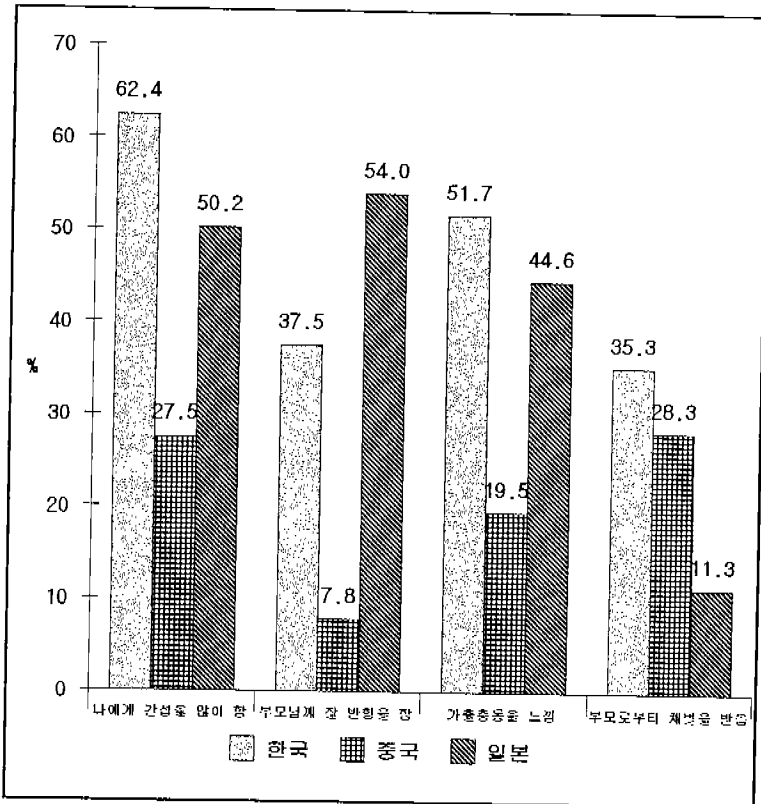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한국(남-33.4%, 여-41.5%)과 일본(남-51.4%, 여-57.3%)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부모님께 더 반항적으로 나타난 것은 요즈음 일본과 한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조교제, 텔레쿠라, 폰팅 등 여자 청소년비행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삼국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1.7%가 ‘그렇다’라고 답변해 과반수정도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44.6%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

했고, 중국의 경우도 19.5%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을 느낀 것으로 응답해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이처럼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가장 많이 부모님으로부터의 간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과는 달리 여학생(48.4%)이 남학생(41.0%)보다 가출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삼국 모두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가출에 대한 충동이 높았다.

(그림 4) 부모와의 갈등



한편, 삼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설문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5.3%가 ‘그렇다’라고 답변해 삼국중 가장 체벌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는 중국으로 전체응답자의 28.3%가 체벌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응답자의 11.3%만이 체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삼국 모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한국:중-38.6%, 고-33.3%, 중국:중-34.3%, 고-22.1%, 일본:중-15.3%, 고-7.7%)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한국:남-37.1%, 여-34.8%, 중국:남-32.9%, 여-24.0%, 일본:남-14.2%, 여-8.5%)이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한국:상·중상-33.9%, 중-35.1%, 중하·하-40.8%, 중국:상·중상-24.2%, 중-27.2%, 중하·하-36.7%, 일본:상·중상-8.5%, 중-9.5%, 중하·하-14.9%)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과의 대화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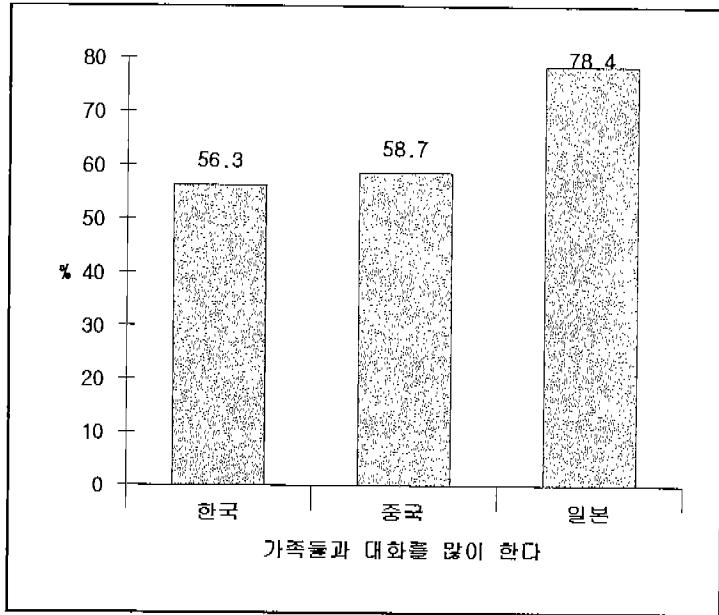
3-4.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삼국의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하고 지내는지 알아본 결과, 일본청소년의 78.4%가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해 한국(56.3%)과 중국(58.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성적은 가족들과의 대화에 있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삼국 모두 여자청소년(한국:남-50.7%, 여-62.1%, 중국:남-51.3%, 여-66.1%, 일본:남-73.2%, 여-84.3%)이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한국:상·중상-64.1%, 중-56.0%, 중하·하-46.7%, 중국:상·중상-63.8%, 중-60.0%, 중하·하-52.4%, 일본:상·중상-82.6%, 중-80.1%, 중하·하-73.5%)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부록 < 표 11 > 참조.

(그림 5) 가족과의 대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본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낮고, 부양의사도 중국과 한국에 비해 낮았다. 한편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은 삼국중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가족들과의 대화는 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부모들이 삼국중 자녀에게 가장 관대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총무청이 한·미·일 3국의 부모를 상대로 실시, 1996년에 발표한 “자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의 1일 공부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한국이 63.6%, 미국 41.4%, 일본 23.0%²⁷⁾의 순으로 한국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에서도 일본부모들은 자녀에게 관대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일본청소년들은 공부의 압력으

27) 조선일보, 1996년 1월 4일자

로 인한 부모와의 마찰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 요약

삼국 청소년의 가정생활과 관련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중 한국은 77.7%, 중국은 91.5%, 일본은 81.0%가 '만족한다' 이상의 답변을 하여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낮은 것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62.4%(중국-27.5%, 일본-50.2%)가 부모로부터의 간섭을 느끼고 있었고, 과반수 이상인 51.7%(일본-44.6%, 중국-19.5%)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삼국중 최우선순위에 있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도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35.5%, 중국-28.3%, 일본-11.3%), 가족과의 대화는 중국과 일본청소년과 비교하여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56.3%, 중국-58.7%, 일본-78.4%).

이처럼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고 있고, 체벌경험도 삼국중 가장 높으며, 과반수이상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부모와 많은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의 대화를 가장 적게 하고,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청소년이 바로 한국청소년이란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삼국중 가장 높고,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가 가장 높으며, 부모와의 마찰과 갈등을 가장 적게 경험한 결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

어서도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7.2%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답변해 한국(81.9%)과 일본(62.3%)에 비해 존경심의 정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도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중국-91.8%, 한국-83.0%, 일본-67.1%).

이와 관련하여 중국청소년은 응답자의 7.8%(한국-37.5%, 일본-54.0%)만이 부모님께 반항한다고 답변하였고, 삼국청소년중 부모로부터의 간섭도, 가출충동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일본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인 효의 개념이 한국,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 일본의 경우,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양의사 등은 삼국중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0%의 청소년이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고 응답해 삼국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서도 논의되었듯이 한국과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된 일본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유래된 동일한 문화권을 갖고 있으나 유교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사고와 구체적 내용은 한국, 중국과 다르다. 일본은 유교적 전통을 재해석하여 자국의 고유전통과 조화시킴으로써 한국, 중국의 가족개념과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전통적인 개념의 차이는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에 잘 반영된다. 중국의 유교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정신에서 유래된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선시 되었으며, 가족의 개념에 혈연의 원리가 그리 중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부모, 자식관계는 한국,

중국과 구별되는데, 일본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삼국중 가장 낮고, 효의 개념도 삼국중 가장 희박한데, 일본부모들은 자녀에게 관대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일본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54.0%)이 삼국중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11.3%)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가족들과의 대화(78.4%)는 일본청소년이 삼국중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 학교관

1) 학교생활 만족도

1-2.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2) 학교에 대한 평가

8-8.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8-11.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8-17.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

3) 학력에 대한 인식

(1)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

8-14.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2) 학력과 출세와의 관계

8-15.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

(3) 학력과 능력과의 관계

8-16. 학교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4) 희망학력

9. 당신은 어느정도의 학력을 희망합니까?

4)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평가, 학력에 대한 인식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삼국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학교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학교의 중요성, 학교공부의 중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학력에 대한 인식부문에서는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 학력과 출세와의 관계, 학력과 능력과의 관계 및 희망학력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며,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학교생활 만족도²⁸⁾

1-2.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대단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1,969명 가운데 137명으로 7.0%,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137명으로 57.7%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16.6%가 ‘대단히 만족한다’, 60.5%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일본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25.8%가 ‘대단히 만족한다’, 52.6%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전체학생의 64.7%, 중국은 77.1%, 일본은 78.4%가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다수의 삼국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국의 경우는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한국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학생중 35.3%가 별로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중국의 경우는 22.7%, 일본은 21.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한국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 가정생활과는 달리 학교생활에의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점과 일본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삼국중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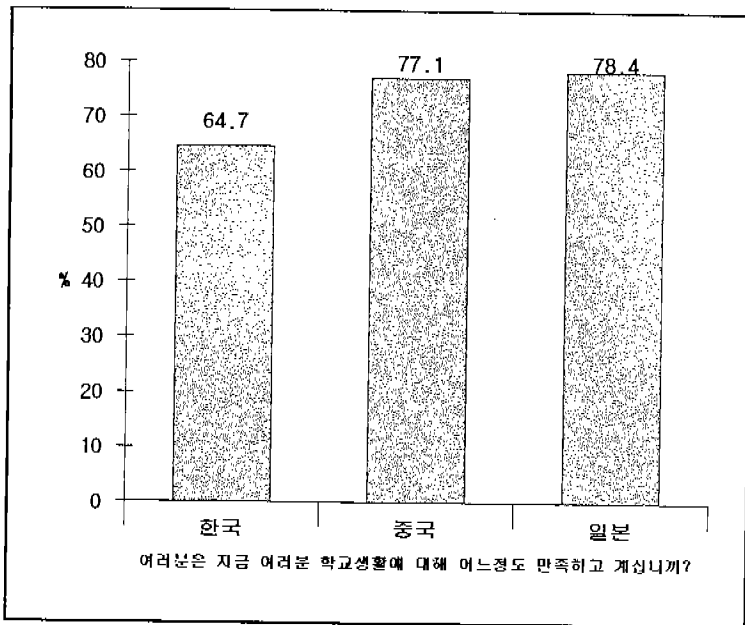
28) 부록 < 표 12 > 참조.

장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교급별로는 삼국 모두 중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불만족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차이를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교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반대로 여학생의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한국:남-66.2%, 여-63.1% 중국:남-78.4%, 여-76.4%, 일본:남-76.5%, 여-80.7%).

(그림 6)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성적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삼국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2) 학교에 대한 평가²⁹⁾

- 8-8.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8-11.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8-17.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삼국 청소년들은 학교 및 학교공부를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는지 조사한 결과, 삼국청소년 모두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청소년은 학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93.7%('매우 그렇다'-62.9%, '그렇다'-30.8%)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 학교이외의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청소년은 90.5%('매우 그렇다'-57.9%, '그렇다'-32.6%), 한국청소년은 80.8%('매우 그렇다'-34.6%, '그렇다'-46.2%)가 이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학교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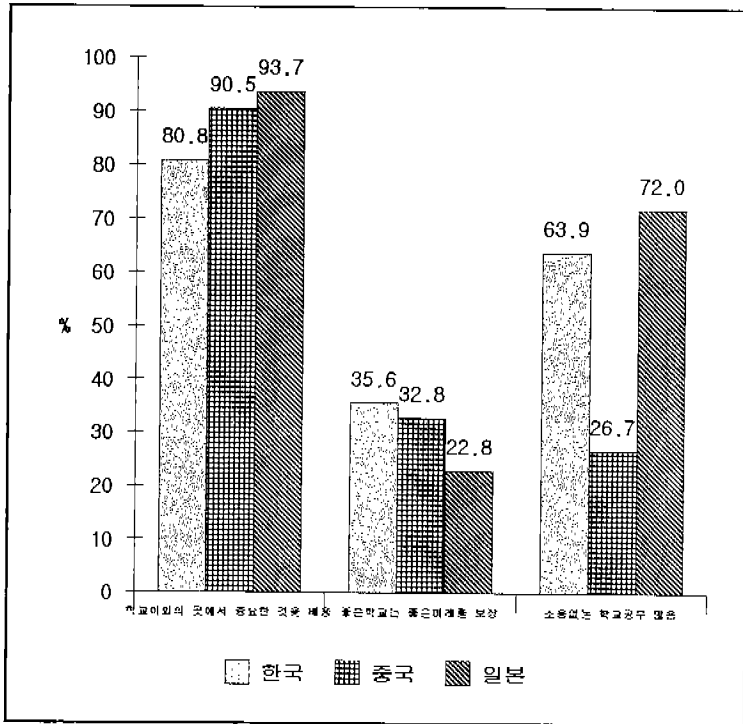
학교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일본응답자의 22.8%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한국(35.6%)과 중국(32.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이외의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학교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좋은 학교와 좋은 미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삼국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한국:중-37.0%, 고-34.1%, 중국:중-35.5%, 고-30.6%, 일본:중-25.8%, 고-2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한국:남-38.2%, 여-33.1%, 중국:남-

29) 부록 < 표 13 > ~ < 표 15 > 참조.

-35.9%, 여-30.6%, 일본:남-26.9%, 여-18.9%),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 (한국:상·중상-39.7%, 중-36.8%, 중하·하-29.6%, 중국:상·중상-33.9%, 중-33.5%, 중하·하-31.1%, 일본:상·중상-27.1%, 중-22.1%, 중하·하-20.5%) 좋은 학교와 좋은 미래의 연관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7) 학교에 대한 평가



일본청소년들은 학교공부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2.0%(‘매우 그렇다’-38.1%, ‘그렇다’-33.9%)가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에 긍정하고 있었으며, 한국청소년은 응답자의 63.9%(‘매우 그렇다’-31.9%, ‘그렇다’-32.0%), 중국청소년은 응답자의 26.7%(‘매우 그렇다’-6.9%, ‘그렇다’-19.8%)가 긍정

하고 있어 일본청소년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동한시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일본청소년들은 학교의 중요성을 삼국중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고, 학교와 미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자세인 만큼 학교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교급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삼국 모두 고등학생의 경우가 중학생보다 더 많이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경우 중·고생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는데(한국:중-55.6%, 고-73.1%, 중국:중-22.0%, 고-32.0%, 일본:중-65.2%, 고-78.7%),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을 잘 입중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학력에 대한 인식

학교,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삼국청소년들의 학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과 인격, 학력과 출세, 학력과 능력과의 상관관계, 희망학력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는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의 경우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학력과 출세와의 관계의 경우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 학력과 능력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희망학력의 경우에 ‘당신은 어느 정도의 학력을 희망합니까?’ 등 총 4영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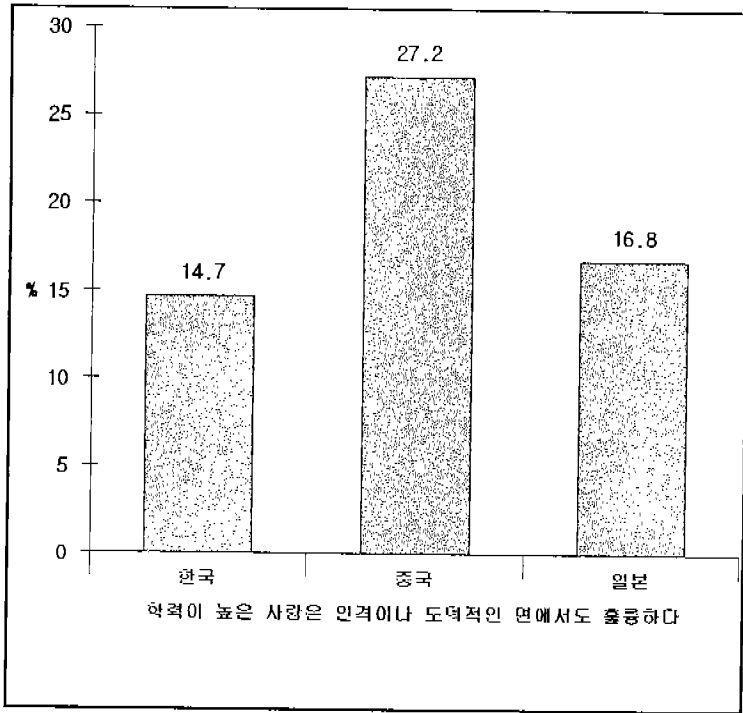
8-14.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학력과 인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삼국청소년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이 높은 사람이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고

30) 부록 < 표 16 > 참조.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삼국청소년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한국-85.0%, 중국-72.0%, 일본-82.5%). 한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7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8%이고,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214명으로 10.9%, 즉 14.7%의 응답자만이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고 답변해 학력과 인격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



중국의 경우는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1%,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2.1%로 응답자의 27.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삼국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응답자의 16.8%(‘매우 그렇다’-3.4%, ‘그렇다’-13.4%)가 높은 학력과 인격과의 상관관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한국-85.0%, 중국-72.0%, 일본-82.5%)은 학력과 인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청소년들이 잘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삼국 모두 중학생의 경우가 고등학생보다(한국:중-18.6%, 고-10.6%, 중국:중-31.0%, 고-23.6%, 일본:중-24.4%, 고-10.0%),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한국:남-17.3%, 여-12.1%, 중국:남-27.4%, 여-27.4%, 일본:남-19.8%, 여-14.0%) 더 많이 학력이 높은 사람이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과 출세와의 관계³¹⁾

8-15.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 한다

삼국의 청소년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263명으로 전체응답자의 13.4%이고,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555명으로 28.2%이다. 즉 응답자의 41.6%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 한다’고 답변해 대학과 출세에 대한 연관성의 신뢰가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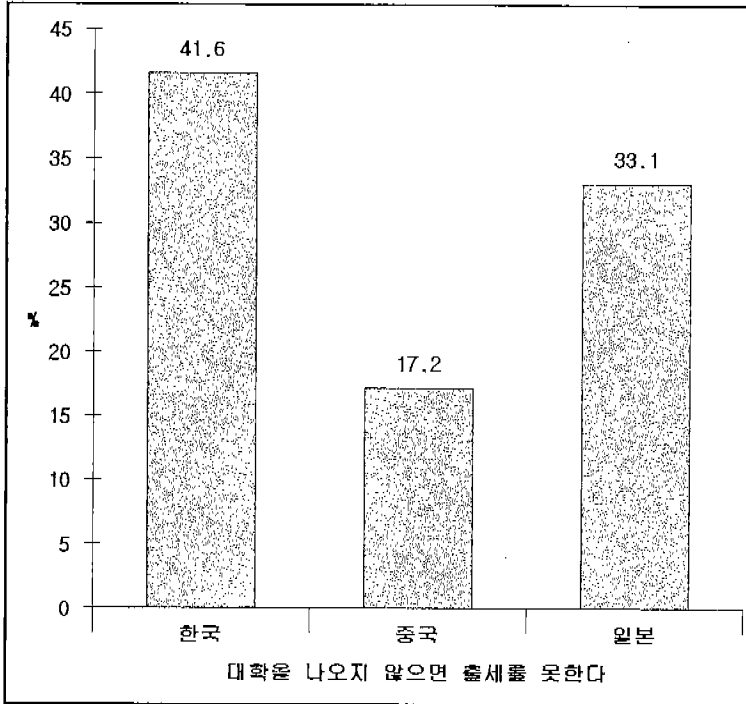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 한다’는 질문에 17.2%(‘매우 그렇다’-5.4%, ‘그렇다’-11.8%)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삼국중 가장 낮은 빈도율을 보였다.

일본은 전체응답자의 33.1%(‘매우 그렇다’-9.3%, ‘그렇다’-23.8%)가

31) 부록 < 표 17 > 참조.

대학과 출세에 대한 상관관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림 9) 학력과 출세와의 관계



이상의 결과는 한국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학력주의 사회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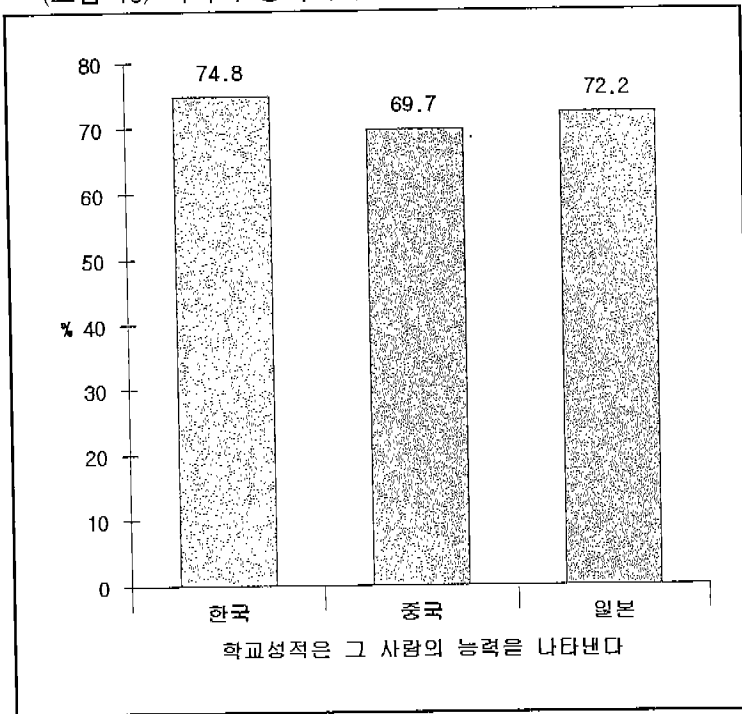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삼국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한국:남-43.5%, 여-40.1%, 중국:남-18.6%, 여-16.0%, 일본:남-36.9%, 여-29.5%),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은 출세에 필수요건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일본의 경우엔 성적이 중간정도인 학생이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한국:상·중상-44.9%, 중-41.1%, 중하·하-38.3, 중국:상·중상-20.8%, 중-16.2%, 중하·하-15.0%, 일본:상·중상-33.3%, 중-36.3%, 중하·하-29.0%).

(3) 학력과 능력과의 관계³²⁾

8-16. 학교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삼국청소년들은 과연 학교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고 믿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삼국의 청소년 70%정도(한국-74.8%, 일본-72.2%, 중국-69.7%)가 부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꼭 능력 있는 학생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학력과 능력과의 관계



한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100명으로 5.1%이

32) 부록 < 표 18 > 참조.

고,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384명으로 19.5%이다. 즉 전체응답자의 24.6%만이 학교성적과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중국은 전체 응답자의 29.3%(‘매우 그렇다’-6.9%, ‘그렇다’-22.4%), 일본은 27.3%(‘매우 그렇다’-6.4%, ‘그렇다’-20.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삼국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삼국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한국:중-29.4%, 고-20.0%, 중국:중-37.6%, 고-21.1%, 일본:중-32.5%, 고-22.9%)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저학년일수록 학교성적이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한국:남-25.8%, 여-23.7%, 중국:남-29.8%, 여-29.5%)보다, 성적이 우수할수록(한국:상·중상-32.8%, 중-23.6%, 중하·하-22.6%, 중국:상·중상-34.6%, 중-27.7%, 중하·하-27.6%) 학교성적과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더 많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4) 희망학력³³⁾

9. 당신은 어느 정도의 학력을 희망합니까?

삼국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학력을 조사한 결과, 중국청소년들이 가장 고학력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중국 전체 응답자의 30.3%(한국-11.0%, 일본-3.6%)가 박사학위를 희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15.2%(한국-10.5%, 일본-6.3%)가 석사학위를 희망하는 등 중국의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45.5%)이 석사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시작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중국청소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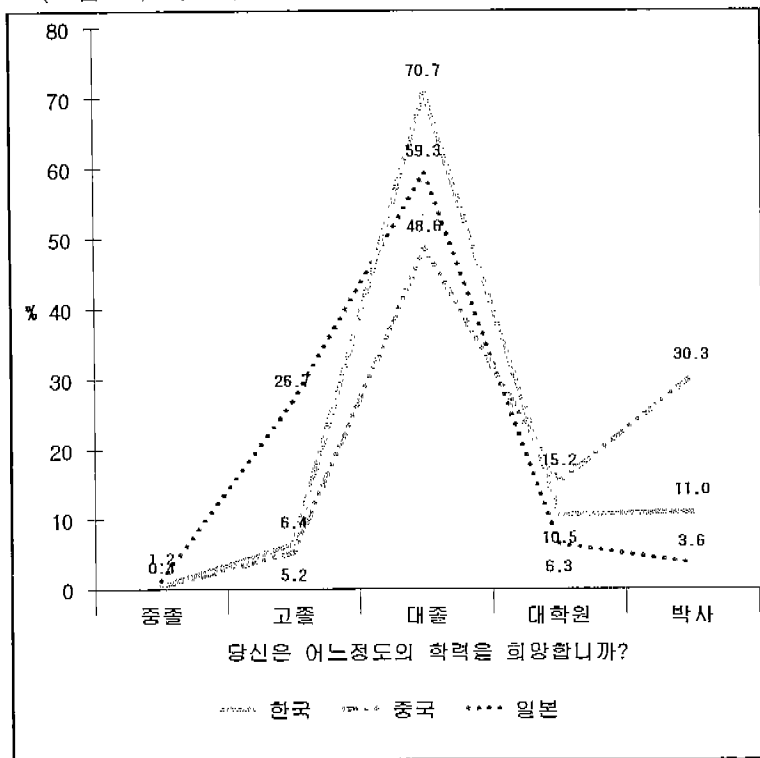
대학교 졸업의 학력에 대한 희망은 한국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70.7%가 대학졸업을 희망했으며, 중국의 경우는

33) 부록 < 표 19 > 참조.

48.6%, 일본은 59.3%가 대학졸업의 학력을 희망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희망은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6.7%가 고등학교 학력을 희망했으며, 한국은 응답자의 6.4%, 중국은 5.2%가 고졸학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청소년의 고졸학력에 대한 희망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대학진학보다는 직업전문학교를 선호하는 최근의 동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희망학력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전체응답자의 94.1%, 한국은 92.2%, 일본은 69.2%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해 중국청소년이 가장 고학력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그 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한국-64.4%, 중국-77.1%, 일본-78.4%).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학교공부와 학력주의에 대한 부담과 연결된다.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문항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삼국중 한국청소년의 경우가 좋은 학교와 좋은 미래의 연관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학교에 대한 심적 부담이 삼국중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1.6%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고 답변해 대학과 출세에 대한 연관성의 신뢰가 중국(17.2%)과 일본(33.2%)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응답자의 70.7%가 대학졸업을 희망하고, 21.5%가 석사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등 92.2%의 청소년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학력주의 사회현상을 잘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93.7%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학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일본 청소년이 삼국중 학교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청소년은 좋은 학교와 좋은 미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삼국중 가장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응답자의 22.8%만이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학교의 중요성을 삼국중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고, 좋은 학교와 좋은 미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가장 회의적인 일본청소년들은 학교공부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전체응답자의 72.0%(한국-63.9%, 중국-26.7%)가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일본청소년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등한시 정도가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청소년들의 희망학력은 삼국중 가장 낮았다. 중국청소년의 94.1%, 한국청소년의 92.1%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데 반해,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69.2%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원해 희망하는 학력이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학교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학교공부의 등한시 정도가 높으며, 희망하는 학력은 삼국중 가장 낮은 일본청소년은 학교 및 학교공부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삼국 청소년중 가장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좀더 즐겁게 학교생활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일본청소년(78.4%)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관련되어 나타난 중국청소년들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학교공부를 중시여기며, 고학력에 대한 희망정도가 삼국중 가장 높으나, 대학이 꼭 출세의 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한국(72.0%)과 일본(63.9%)과는 달리 소수의 중국청소년(26.7%)이 '별 소용 없는 학교공부가 많다'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삼국중 학교공부를 가장 중시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학력과 인격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긴 했지만, 중국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높게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한국-14.7%, 중국-27.2%, 일본-16.8%). 또한 중국청소년은 한국과 일본청소년과 비교하여, 고학력에 대한 희망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45.5%)이 석사이상의 학력을 희망했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94.1%나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청소년의 고학력에 대한 높은 희망정도는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시작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중국청소년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청소년의 고학력에 대한 높은 희망정도와는 달리 대학을 출세의 필수조건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체 응답자의 17.2%(한국-41.6%, 일본-33.6%)만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대학과 출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삼국중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완벽한 학력주의 사회로,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가 성공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에서의 입신출세는 학력보다는 인간관계, 즉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에서도 관계(官界)에서 출세하려면, 학력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대다수의 중국청소년은 고학력을 희망하는 것이다.

3. 사회관

1)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1-4. 여러분은 지금 우리사회 전반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2)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1) 부와 권력의 위력

8-3.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안되는 일이 없다

(2) 사회적 빈부차

8-4.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

(3) 법의 불합리성

8-2.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

3)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여러분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5.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바람직한 국가상

7.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6)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사회관, 국가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바람직한 국가상 등 5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의 경우, 삼국의 청소년들이 각국의 사회전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인식의 경우에는 부와 권력의 위력, 사회적 빈부차, 법의 불합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여,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³⁴⁾

1-4. 여러분은 지금 우리사회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삼국의 청소년들이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등 각국이 처한 사회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대단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1,963명 가운데 9명으로 0.5%,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8명으로 9.0%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전체학생의 4.3%가 '대단히 만족한다', 38.4%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일본은 전체 응답자의 1.1%가 '대단히 만족한다', 23.7%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9.5%, 중국은 42.7%, 일본은 24.8%가 사회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도 한국이 그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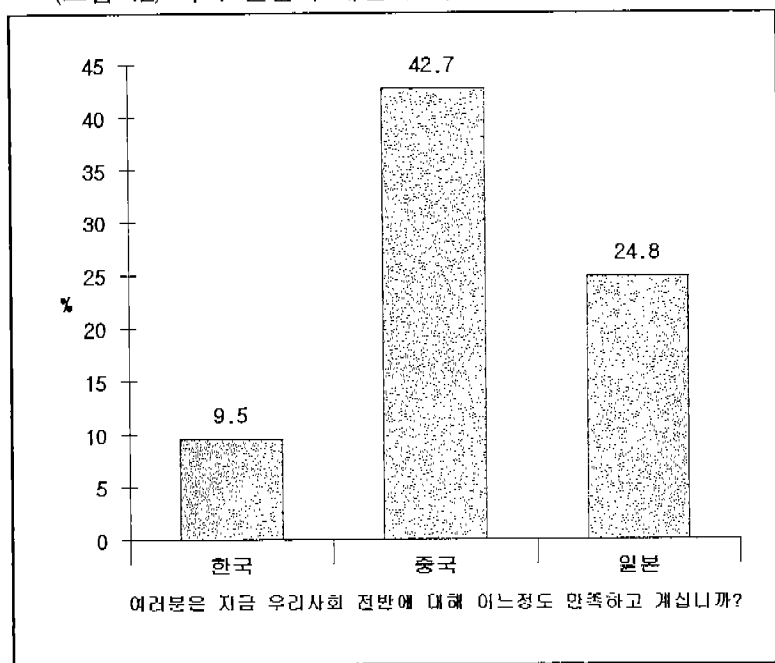
중국청소년의 경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와중에도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이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 공산체제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 투철한 국가 및 사회관의 잔재가 청소년의 의식 속에 아직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4) 부록 < 표 20 > 참조.

한편, 사회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한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응답자의 90.1%가 별로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중국의 경우는 56.8%, 일본은 74.1%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한국청소년의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 90% 이상의 절대적 수치가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반영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사회전반에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청소년이 37.1%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나(한국:중-11.7%, 고-7.3%, 일본:중-31.7%, 고-19.1%), 중국의 경우는 반대로 고등학생이 더 많이(중-39.8%, 고-46.3%) 제반 사회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성별차이를 보면 삼국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한국:남-9.4%, 여-9.5%, 중국:남-42.6%, 여-43.5%, 일본:남-24.5%, 여-25.6%).

학교성적과 사회전반의 만족도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상·중상-47.9%, 중-41.7%, 중하·하-37.5%), 일본은 성적이 중간정도인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상·중상-22.8%, 중-27.4%, 중하·하-22.4%).

2)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삼국의 청소년들이 각국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와 권력의 위력, 사회적 빈부차, 법의 불합리성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부와 권력의 위력에서는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 사회적 빈부차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 법의 불합리성의 경우는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 등 총 3영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부와 권력의 위력³⁵⁾

8-3.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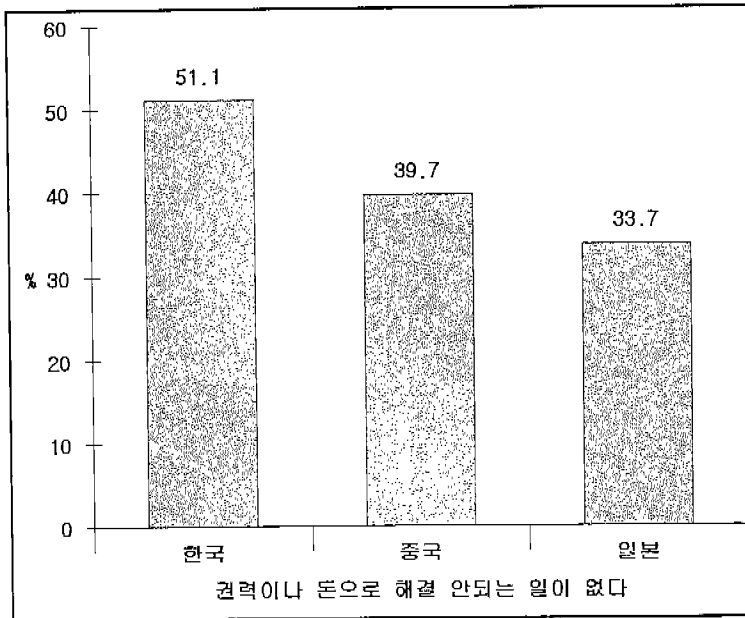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삼국의 청소년들이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한국의 경우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5.7%,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4%이었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1.1%의 청소년이 한국사회는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된다고 믿고 있어 불평등한

35) 부록 < 표 21 > 참조.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도가 중국(39.7%)과 일본(3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을 잘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경우도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권력과 부의 위력을 인지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화와 개방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특성에 부합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적 변동상황을 청소년들이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그림 13) 부와 권력의 위력



변인별 차이를 보면 삼국 모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많이 부와 권력의 위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특히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한국:중-41.5%, 고-60.8%, 중국:중-35.6%, 고-44.5%, 일본:중-30.3%, 고-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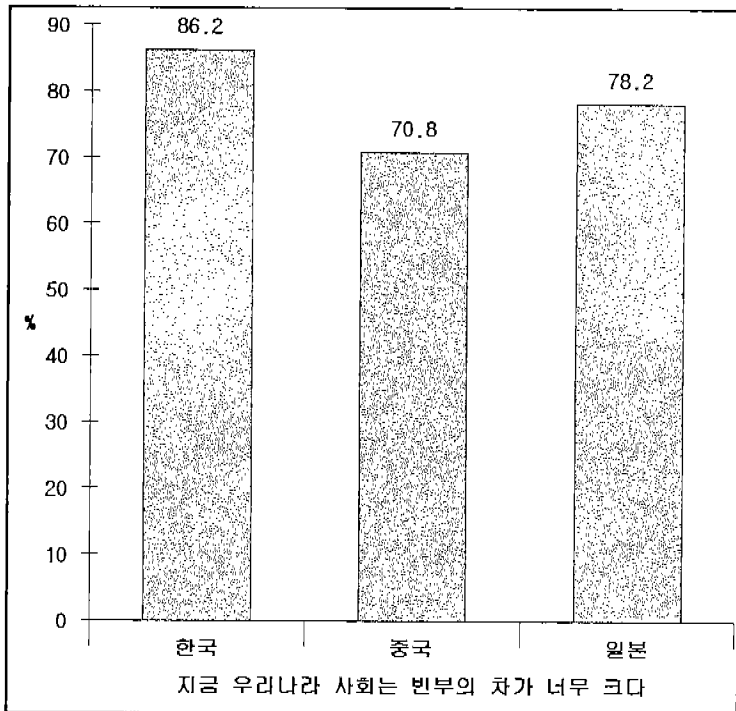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도 삼국 모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가 더 많이 부와 권력의 위력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한국:남-53.5%, 여-49.1%, 중국:남-41.8%, 여-38.0%, 일본:남-39.1%, 여-29.0%).

(2) 사회적 빈부차³⁶⁾

8-4.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빈부의 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경우가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사회적 빈부차



36) 부록 < 표 22 > 참조.

한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6.2%(‘매우 그렇다’-31.5%, ‘그렇다’-54.7%)가 ‘지금 우리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일본(78.2%)과 중국(70.8%)에 앞서 가장 높은 빈도율을 나타냈다.

(3) 법의 불합리성³⁷⁾

8-2.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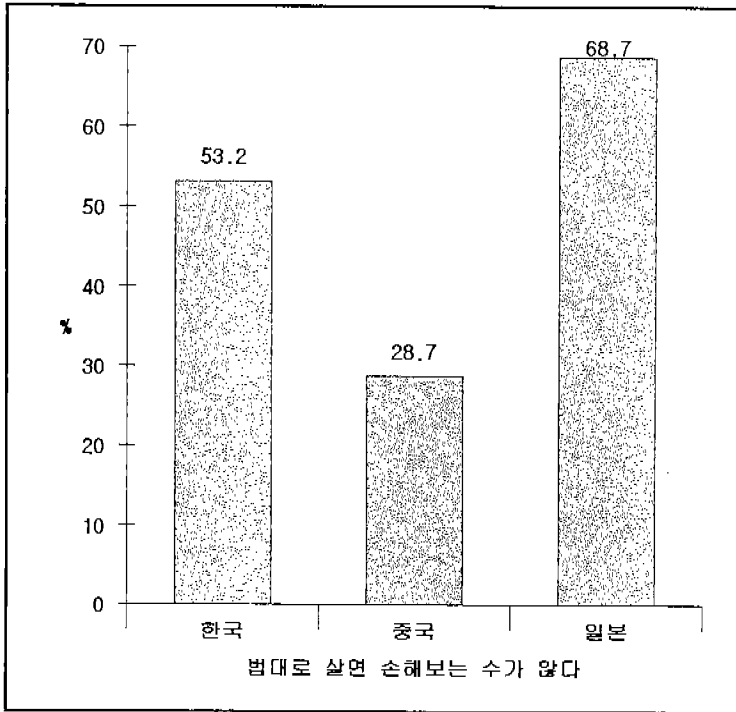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라는 의견엔 일본청소년이 가장 많이 긍정하고 있어 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9.8%인 397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48.9%인 981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68.7%의 청소년이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는 견해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도 과반수 이상인 53.2%(‘매우 그렇다’-11.4%, ‘그렇다’-41.8%)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법이 통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일면을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수치가 낮아 전체 응답자의 28.7%(‘매우 그렇다’-5.6%, ‘그렇다’-23.1%)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란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삼국 모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한국:중-47.6%, 고-59.4%, 중국:중-27.6%, 고-30.1%, 일본:중-63.6%, 고-74.1%),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한국:남-57.1%, 여-49.7%, 중국:남-30.7%, 여-26.5%, 일본:남-73.1%, 여-65.2%)가 법에 대한 피해의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부록 < 표 23 > 참조

(그림 15) 법의 불합리성



3)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38)

4. 여러분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국의 청소년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꼽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삼국 청소년 모두 ‘꾸준한 노력’(한국-60.5%, 중국-68.4%, 일본-56.3%)을 제 1순위로 꼽고 있었다. 제 2순위로는 삼국 청소년이 각기 다른 요인을 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타고난 재능’(31.8%), 중국은 ‘운’(30.5%), 일본은 ‘인품’(52.5%)을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제 1순위인 ‘꾸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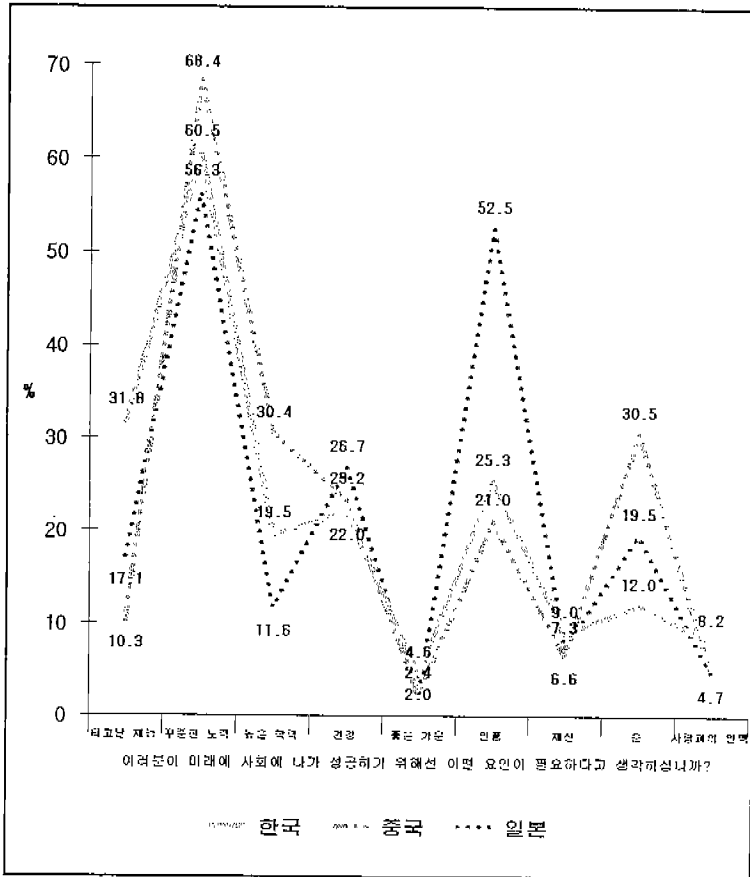
38) 부록 < 표 24 > 참조.

노력'과 아주 미소한 차이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52.5%)이 인품을 꼽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청소년들은 인품을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순위로 나타난 요인에서도 각국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국청소년은 '인품'(25.3%), 중국청소년은 '높은 학력'(30.4%), 일본청소년은 '건강'(26.7%)을 각기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중국의 경우 '높은 학력'을 성공의 중요요인으로 들고 있다는 점인데, 제 2순위로 나타난 '운'과 0.1%의 미소한 차이로 높은 학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는 중국 청소년의 30.3%(한국-11.0%, 일본-3.6%)가 박사학위를 희망하고 있고, 15.2%(한국-10.5%, 일본-6.3%)가 석사학위를 희망하는 등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45.5%)이 석사이상의 학력을 희망하고 있고, 94.1%라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등 중국청소년이 삼국 중 가장 고학력을 희망하고 있음을 잘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전체 응답자의 19.5%만이 '높은 학력'을 성공요인으로 꼽아 제 5순위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 응답자의 11.6%만이 '높은 학력'을 꼽아 제 6순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경우 제 3순위를 차지한 '건강'(한국-22.0%, 중국-23.2%, 일본-26.7%)도 삼국의 청소년들에게 성공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에게도 '건강'이 성공을 위해 제 4순위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국청소년 모두에게 10%로 미만으로 별로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 요인으로선 '재산', '사람과의 인맥', '좋은 가문' 등을 들 수 있는데, '재산'(한국-9.0%, 중국-6.6%, 일본-7.3%)은 삼국 모두에서 제 7순위로, '사람과의 인맥'(한국-8.2%, 중국-4.7%, 일본-4.7%)은 제 8순위로, '좋은 가문'(한국-4.6%, 중국-2.4%, 일본-2.0%)은 제 9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16)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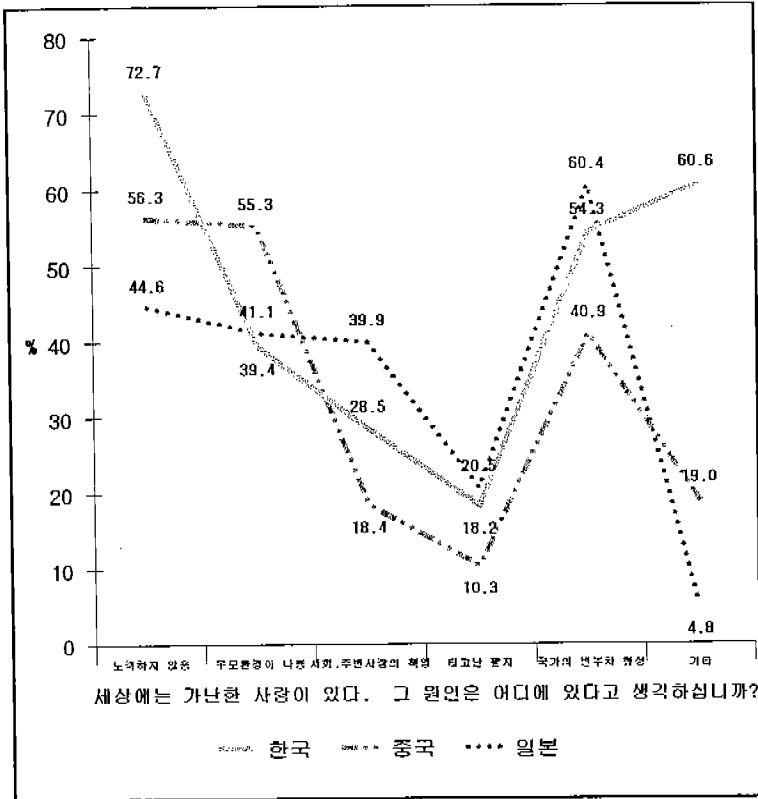
4)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³⁹⁾

5.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국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가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노력부족’, ‘부모의 좋지 않은 환경’, ‘사회적인 빈부차’ 등이 주로 많이 거론되었다.

39) 부록 < 표 25 > 참조.

(그림 17)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당사자의 노력부족’(한국-72.7%, 중국-56.3%, 일본-44.6%)을 제 1순위로 꼽았고, 일본의 청소년들은 ‘국가가 빈부차 형성’(60.4%)을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라 보았다. 한편 제 2순위로 자주 거론된 요인은 한국청소년의 경우 ‘국가가 빈부차 형성’(54.3%), 중국은 ‘부모의 좋지 않은 환경’(55.3%), 일본은 ‘당사자의 노력부족’(44.6%)이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 3순위로 거론된 ‘부모의 좋지 않은 환경’(한국-39.4%, 일본-41.1%)이 중국청소년들에게 제 1순위로 나타난 ‘당사자의 노력부족’과 1%의 차이를 두고 가난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부모의 출신성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주의

의 영향이 아직 중국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반면 한국(제 2순위)과 일본(제 1순위)에서 자주 거론된 ‘국가 빈부차 형성’은 중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제 3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한국-54.3%, 일본-60.4%, 중국-40.9%),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중국청소년들은 빈부의 차로 형성되는 가난의 원인을 일본과 한국청소년에 비해 아직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바람직한 국가상⁴⁰⁾

7.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국의 청소년들에게 각국이 미래에 어떤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경우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답변한 학생이 전체응답자의 34.5%인 679명으로 제일 많았다.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답변한 학생은 19.5%인 38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라고 응답한 학생은 14.8%인 291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13.5%),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나라’(13.0%) 등이 거론되었으며, ‘예술 문화적으로 성숙된 나라’라고 응답한 학생은 4.5%에 불과해 다른 항목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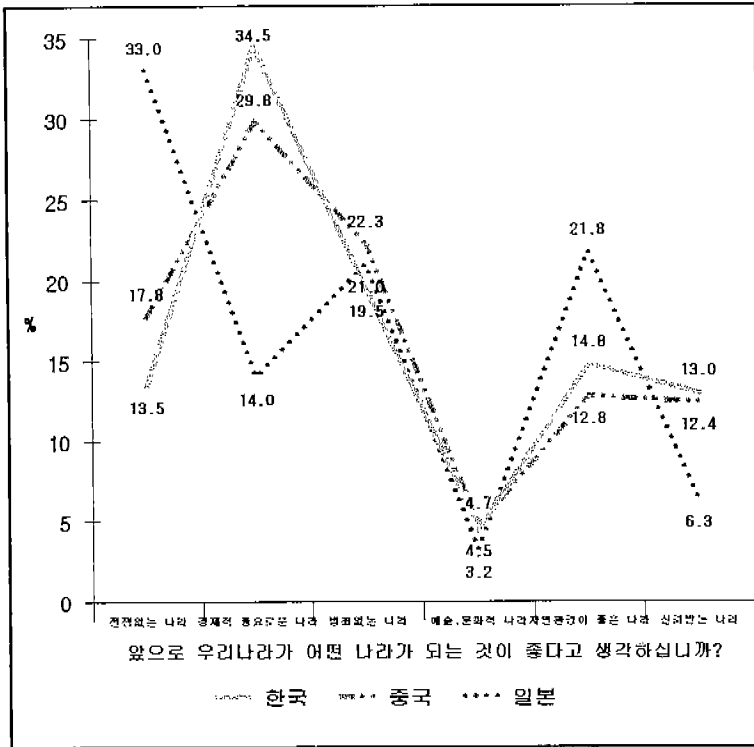
중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29.8%)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22.3%),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17.8%) 등을 거론했다.

이처럼 중국청소년들에게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미래 국가상으로 우선시 되는 이유는 최근 근대화,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관료의 부정, 부패가

40) 부록 < 표 26 > 참조.

사회문제로 부상되기 시작한 중국의 사회적 환경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8) 바람직한 국가상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학생은 14.0%에 불과하였으며,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제 1순위에 두었다 (33.0%). 제 2순위로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를 선택하였고 (21.8%), 다음으로는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21.0%)를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는 이미 경제대국을 이룩한 국가로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구평화, 환경보존 등 지구촌 공동체의식을 일본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6) 요약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청소년들의 사회관, 국가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86.2%(중국-70.8%, 일본-78.2%)가 ‘지금 우리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인 51.1%(중국-39.7%, 일본-33.7%)가 한국사회는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입장을 취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도가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전반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90.1%(중국-50.8%, 일본-74.1%)가 사회전반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삼국중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90%이상의 절대적 수치가 사회전반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사회전반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37.1%라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청소년은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사회전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전체응답자의 74.1%가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해 한국 다음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도 일본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7%가 ‘법대로 살면 손해 보는 수가 많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이 통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일면을 일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음으로 보여진다.

한·중·일 청소년은 성공관, 빈부의식, 국가관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삼국청소년이 공통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은 요인은 ‘꾸준한 노력’이었다. 2순위부터는 삼국청소년이 각기

다른 요인을 꼽고 있는데, 각국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주목할 만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타고난 재능’, 중국의 경우는 ‘높은 학력’, 일본의 경우는 ‘인품’이었다.

한국청소년이 성공요인으로서 2순위로 꼽고 있는 ‘타고난 재능’은 일본에서는 5순위, 중국에서는 6순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개인의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지향주의를 청소년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청소년들은 ‘인품’을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제 1순위로 꼽은 ‘꾸준한 노력’(56.3%)과 미소한 차이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인 52.5%가 ‘인품’을 제 2순위로 꼽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 깊숙이 침투하게 된 능력지향주의에 대한 회의를 젊은 세대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에 연유한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배경은 일본기업의 경영자들도 차츰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능률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원의 협조성, 즉 仁和를 중시여기는 경향이고, 청소년세대도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진행된 고학력화, 일자리부족 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장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여 조화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출세의 요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빈부의식에 있어서도 삼국청소년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난의 요인으로 주로 거론된 것은 ‘당사자의 노력부족’, ‘부모의 좋지 않은 환경’, ‘사회적 빈부차’였다. 한국과 중국은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가난은 개인의 노력부족 탓이라는 입장이었고, 일본청소년은 대다수가 가난은 국가가 빈부차를 형성했기 때문이라 보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제 3순위로 거론된 ‘부모의 좋지 않은 환경’, 즉 기문의 탓은 중국청소년들에게 1순위로 나타난 ‘노력부족’과 1%라는 미소한 차이를 두고 제 2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부모의 출신성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주의의 영향이 아직 중국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4. 청소년 비행

1) 비행의 경험정도

1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하기
- 담배 피우기
- 술 마시기
- 도박하기
- 공공물건 부수기
- 물건 훔치기
-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

2) 비행에 대한 허용도

1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가출하기
- 담배 피우기
- 술 마시기
- 도박하기
- 공공물건 부수기
- 물건 훔치기
-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

3) 요약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정의된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모든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문제의 한 측면으로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로,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왜곡된 이성발달의 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행동장애 혹은 부적응 행동⁴¹⁾으로 보고 있으나, 공통적인 개념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41) 김태호(1994),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요즘 한국은 학원폭력 문제가, 일본은 이지메 문제가, 중국은 개방화·근대화로 인한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본 연구 제 4절과 제 5절에 걸쳐 청소년 비행과 폭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록하였다.

한·중·일 청소년 비행을 비행의 경험정도, 비행에 대한 허용도의 2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비행의 경험정도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비행에 대한 허용도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다?’의 총 2영역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가 능하여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비행의 경험정도⁴²⁾

1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중·일 청소년 비행의 경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출하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도박하기’, ‘공공물건 부수기’, ‘물건 훔치기’,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의 7개를 제시하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중·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해 본 비행은 공통적으로 ‘술 마시기’(한국-55.4%, 일본-30.9%, 중국-28.7%)로 나타났다. 2순위로 한국과 일본은 ‘도박하기’(한국-45.7%, 일본-25.7%)로, 중국은 ‘공공물건 부수기’(27.3%)로 나타났다, 3순위로 한국과 일본은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한국-42.0%, 일본-23.7%), 중국은 ‘담배 피우기’(13.5%)로 나타났으며, 4순위로 한국은 ‘담배 피우기’(29.7%), 중국은 ‘도박하기’(7.7%), 일본은 ‘공공물건 부

42) 부록 < 표 27 > ~ < 표 33 > 참조.

수기'(9.5%)로 나타났다. 즉, 한·중·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은 '술 마시기'이며, '도박하기',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 '담배 피우기', '공공물건 부수기' 등도 경험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띄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제시된 7가지 비행중 공공물건 부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비행에서 그 경험정도가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청소년의 비행정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비행경험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삼국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의 경우, 한국(42.0%)과 일본(23.7%)에 비해 중국(4.9%)은 그 경험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의 경험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한국의 남자고등학생 89.0%가, 여자고등학생 34.0%가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라는 조사결과⁴³⁾와, 일본의 남녀중학생 61.0%(남자중학생-64.0%, 여자중학생-49.0%, 남자고등학생-87.0%, 여자고등학생-41.0%)가 포르노 만화를 본 경험이라는 조사결과⁴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음란성 비디오나 잡지보기의 낮은 경험정도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 청소년이 사회구조상 음란비디오나 잡지를 구하기 어려워 접촉기회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이 한국보다 개방된 일본이 한국보다 경험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음란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에 비해 한국의 음란성 기준이 높아 한국에서는 음란물로 인식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 '음란 비디오나 잡지 보기'의 경험빈도가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인문계 학교만을 대상⁴⁵⁾으로 조사하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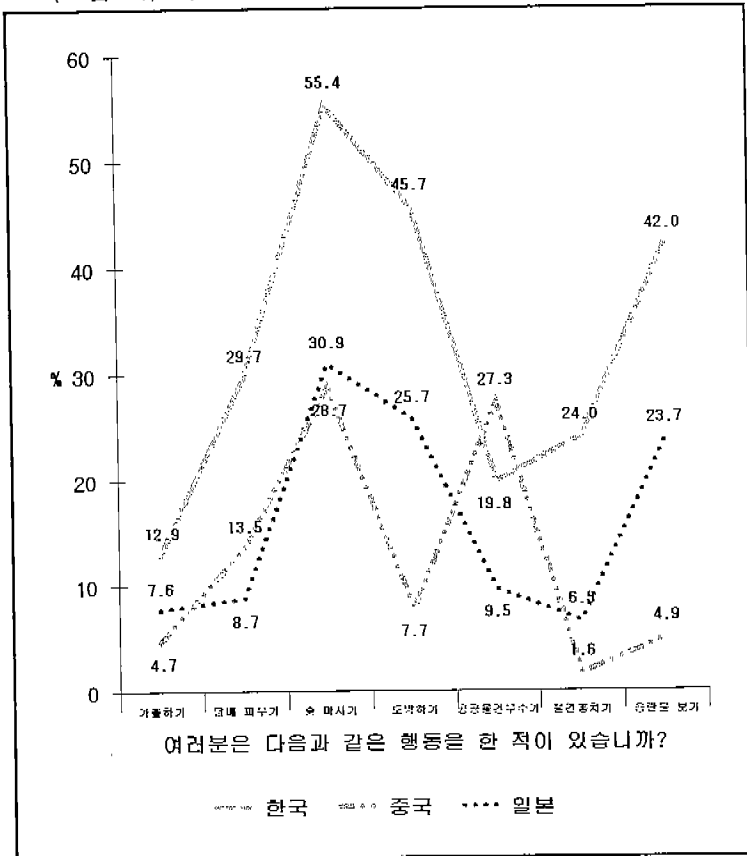
43) 동아일보, 1996년 4월 17일자.

44) 포르노 만화를 본 동기로는 '야한' 만화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38.0%), 섹스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33.0%)라고 하였고, 포르노만화를 본 반응으로는 남자는 성적자극을 느꼈다고, 여자는 역겹다고 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조선일보, 1993년 6월 28일자).

45) 한국은 실업계 중·고등학교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에, 실업·공업계 학교나 성적이 낮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그 경험 정도가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이나 비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비행 및 폭력에 대해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9) 비행의 경험정도



그리고 중국(27.3%)은 ‘공공물건 부수기’가 한국(19.8%)이나 일본(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공공물건 파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2년간 공중전화

의 절반 정도가 부서진 상태에서 국가가 재건을 해야 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꼭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수도 있으며, 개방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밖에 비행의 경험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는 ‘가출하기’(한국-12.9%, 일본-7.6%, 중국-4.7%), ‘물건 훔치기’(한국-24.0%, 일본-6.5%, 중국-1.6%) 등의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한·중·일 모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행에 대한 허용도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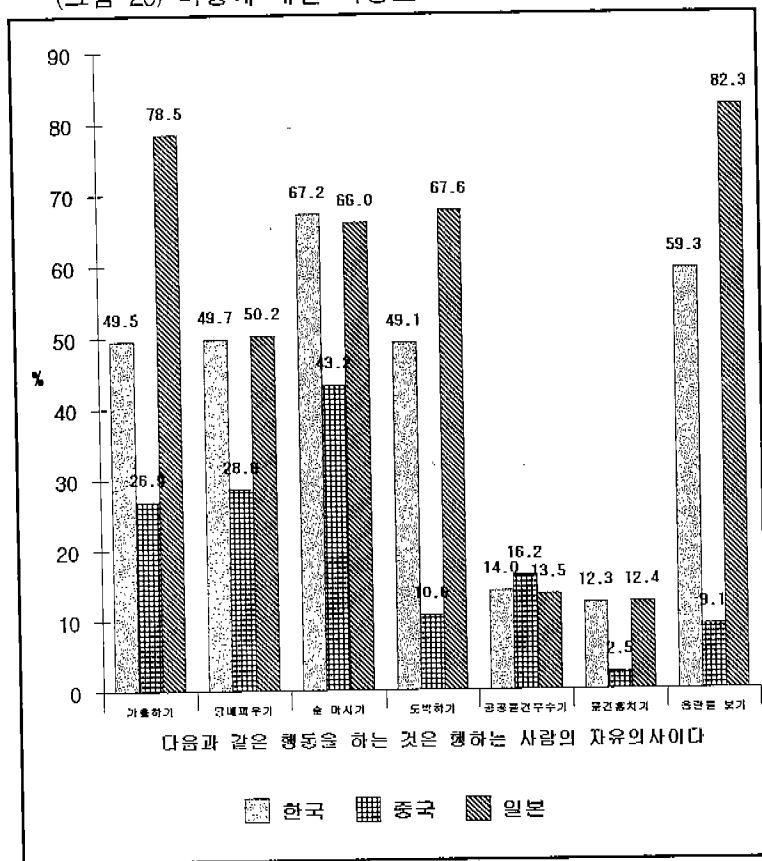
1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행에 대한 허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출하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도박하기’, ‘공공물건 부수기’, ‘물건 훔치기’,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의 7개를 제시하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의 문항을 질문한 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에 응답하라고 한 결과,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술 마시기’(한국-67.2%, 중국-43.2%), 일본은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82.3%)로 나타났고, 가장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는 ‘물건 부수기’(85.4%), 중국과 일본은 ‘물건 훔치기’(중국-97.1%, 일본-86.6%)로 나타났다.

그밖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은 ‘음란 비디오나 잡지보기’(59.3%), ‘담배 피우기’(49.7%), ‘가출하기’(49.5%), ‘도박하기’(49.1%), 중국은 ‘담배 피우기’(28.6%), ‘가출하기’(26.9%), ‘물건 부수기’(16.2%), 일본은 ‘가출하기’(78.5%), ‘도박하기’(67.6%), ‘술 마시기’(66.0%), ‘담배 피우기’(50.2%)를 들었다.

46) 부록 < 표 34 > ~ < 표 40 > 참조.

(그림 20) 비행에 대한 허용도



이와 같은 결과를 비행경험 정도와 비교 분석해 보면,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행일수록 그 경험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에서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인 ‘물건 훔치기’의 경험정도는 각각 가장 낮은 1.6%, 6.5%를 나타냈고, 한국에서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인 ‘물건 부수기’의 경험정도는 19.8%로 나타나 7개의 비행행동 중 6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낮은 비행경험을 보인 ‘가출하기’(한국-12.9%, 일본-7.6%)에 대해, 한국은 과반수에 가까운 49.5%가, 일본은 78.5%가 그 사람 자

유라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 2명중 1명이 가출충동을 느꼈다는 사실⁴⁷⁾과 가출에 대한 태도가 매우 허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출의 동기만 제공되면 언제라도 가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경험도 증가하며 비행에 대한 태도도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출하기’의 경우, 한국의 여자청소년(52.5%)이 남자청소년(47.9%)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업이 낮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낙인이 되어 소외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일종의 방어기제나 지위와 관심을 얻고자 하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선택할 때는 더 이상 자신은 잃을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본다⁴⁸⁾.

3) 요약

한·중·일 청소년의 비행을, ‘가출하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도박하기’, ‘공공물건 부수기’, ‘물건 훔치기’,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의 7개 행동을 대상으로 경험 정도와 허용도를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비행경험정도는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행에 대한 허용도도 비교적 높았다. 비행경험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술 마시기’(55.4%)였고, ‘도박하기’(45.7%),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42.0%)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경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가출하기’(12.9%)였고, ‘공공물건 부수기’(19.8%)도 비교적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술 마시기’(67.2%)이었고,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59.3%)에도 비교적 허용적인 입장이었

47) (3) 부모와의 갈등 참조

48) 고성혜(1995), 청소년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5-27, pp.25-27.

다. 그밖에 ‘담배 피우기’(49.7%), ‘가출하기’(49.5%), ‘도박하기’(49.1%) 등도 49%대의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은 제시된 7개의 비행중 ‘물건 훔치기’(12.3%)와 ‘공공물건 부수기’(14.0%)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2명중 1명이 ‘그 사람 자유다’라는 입장이었다. 비행경험도와 비행의 허용도간의 관계를 보면, 정비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허용도가 높은 비행일수록, 비행경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비행경험정도는 한국다음의 순위로 나타났으나 그 허용도는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술 마시기’(30.9%)였고, ‘도박하기’(25.7%),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23.7%)순으로 나타나, 순위에 있어 한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가장 낮은 경험정도를 보인 것은, ‘물건 훔치기’(6.5%)였고, ‘가출하기’(7.6%), ‘담배 피우기’(8.7%), ‘공공물건 부수기’(9.5%) 등도 그 경험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비행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82.3%)를 가장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물건 훔치기’(12.4%)와 ‘공공물건 부수기’(13.5%)를 제외한 ‘가출하기’(78.5%), ‘도박하기’(67.6%), ‘술 마시기’(66.0%), ‘담배 피우기’(50.2%) 등도 모두 50%가 넘는 허용도를 보여, 한·중·일 삼국중 비행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행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일본청소년의 비행경험정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청소년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국과는 달리 성적이 비교적 높은 인문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비행경험과 비행에 대한 허용도 모두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가장 높은 것은 ‘술 마시기’(28.7%)였고, ‘공공물건 부수기’(27.3%)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일본과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비행경험 정도를 보인 것은 ‘물건 훔치기’(1.6%)였고, ‘가출하기’(4.7%)와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4.9%)도 비교적 경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술 마시기’와 ‘공공물건 부수기’만 27~28% 정도의 응답율을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10%내외의 낮은 경험정도를 보여, 삼국중 비행경험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 대한 허용도를 살펴보면, 가장 허용적인 ‘술 마시기’(43.2%)만 제외하고 모두 10~20% 사이의 매우 낮은 허용도를 보였고, ‘물건 훔치기’(2.5%)의 허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중국의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행의 경험정도도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5. 청소년 폭력

1)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

10.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
 -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
 -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
 - 한 사람을 따돌리기
 - 집단으로 패싸움하기
 -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

2) 폭력사용 경험

11. 여러분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폭력으로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
 -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폭력은 사용하지 않고)
 -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3)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

14.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한 괴롭힘이나 패싸움등이 일어나기 쉬운 때와 장소는 언제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4) 요약

한·중·일 청소년의 폭력을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 폭력 경험 정도,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의 경우에는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폭력 경험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한 괴롭힘이나 꾀싸움 등이 일어나기 쉬운 때와 장소는 언제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의 총 3영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여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⁴⁹⁾

10.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 '한 사람을 따돌리기', '집단으로 꾀싸움하기',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의 7개 상황을 제시한 후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제시된 7개의 폭력상황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난 것은 한·중·일 모두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였다(중국-68.1%, 한국-67.6%, 일본-54.0%). 그 다음으로 한국은 이지메⁵⁰⁾의

49) 부록 < 표 41 > ~ < 표 47 > 참조.

50) '이지메'란 놀림, 학대의 뜻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동료·학우에 의한 따돌리기, 구타 등의 집단적인 학대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학교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결합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온 소위 '귀국자녀'도 좋은 표적이 된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런 이지메를 '집단성과 단체규율을 중시하는 일본의 풍토상, 남보다 뛰어나거나 모자라거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평균치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일본인의 집단주의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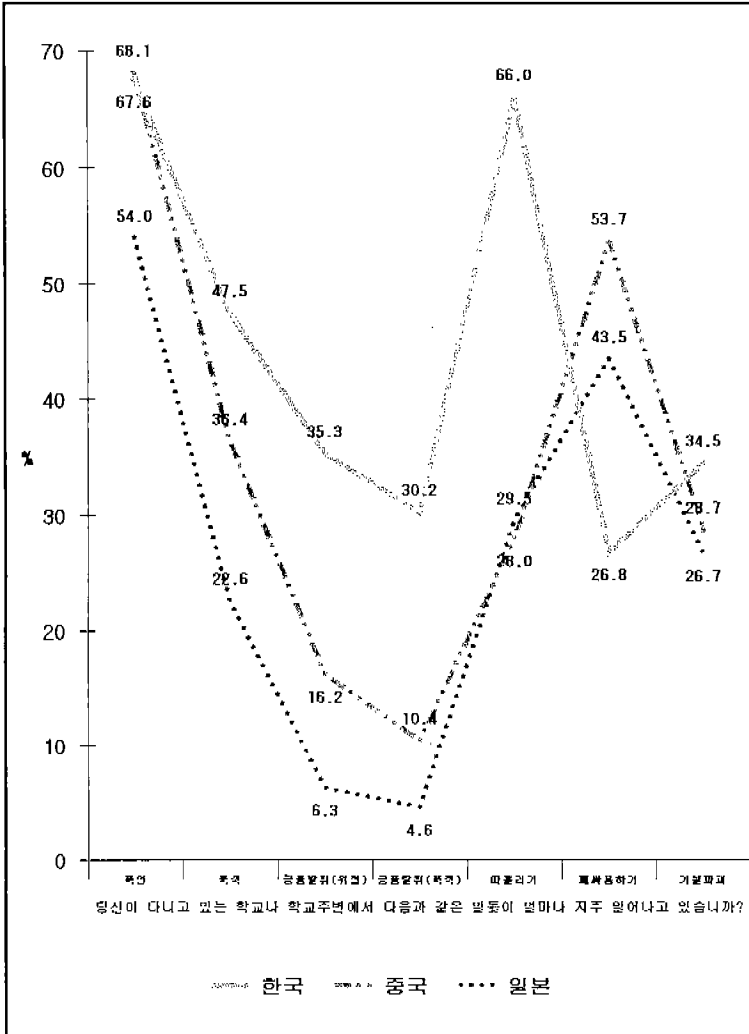
한 형태인 ‘한 사람을 따돌리기’(66.0%), 중국과 일본은 ‘집단으로 패싸움하기’(중국-53.7%, 일본-43.5%)로 나타났다. 3순위는 한국과 중국은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한국-47.5%, 중국-36.4%)였고, 일본은 ‘한 사람을 따돌리기’(29.5%)로 나타났다. 4순위는 중국과 일본은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중국-28.7%, 일본-26.7%)로, 한국은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35.3%)로 나타났고, 5·6·7순위는 각각 한국의 경우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34.5%),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30.2%), ‘집단으로 패싸움하기’(26.8%)가, 중국의 경우는 ‘한 사람을 따돌리기’(28.0%),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16.2%),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10.4%)가, 일본의 경우는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22.6%),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6.3%),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4.6%)가 차지했다.

조사결과와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 제시된 7개의 상황을,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와 ‘한 사람을 따돌리기’는 정신적 폭력으로,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와 ‘집단으로 패싸움하기’는 신체적 폭력으로,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와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는 금품탈취로,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는 기물파괴의 4개로 재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폭력을 살펴보면, ‘폭언’과 같은 언어폭력은 한(67.6%)·중(68.1%)·일(54.0%) 모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났으며,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주는 ‘따돌리기’는, 한국(66.0%)의 경우, 1순위를 차지한 ‘폭언’폭력과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났으나, 일본(29.5%)과 중국(28.0%)에서는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해 한국에 비해 그 발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폭력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신적 폭력임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발로’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지메로 1993년 한 해동안 10대 학생 113명이 자살하여, 지금 일본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일보, 1994년 12월 7일자).

(그림 21)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 정도



신체적 폭력을 살펴보면, 구타 등 ‘폭력 휘두르기’는 대체적으로 한 (47.5%) · 중(36.4%) · 일(22.6%)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패싸움’의 경우는 중국(53.7%)과 일본(43.5%)에서 2순위를 차지할 만큼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한국에서는 7순위

(26.8%)를 차지하여 발생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신체적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패싸움’은 한국에 비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품탈취를 살펴보면, 폭력사용이든 비폭력이든 금품탈취는 중국(26.6%)이나 일본(10.9%)에 비해 한국(65.5%)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위협으로 금품 빼앗기’(35.3%)와 ‘폭력으로 금품 빼앗기’(30.2%)를 합하면 그 발생빈도가 65.5%를 나타내, 한국에서 발생하는 주된 폭력형태인 ‘폭언’, ‘따돌리기’의 정신적 폭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것은 정신적 폭력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주된 폭력형태임을 감안하고, 금품탈취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최하위권인 각각 6·7위권을 차지했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학생폭력의 절대부분이 금품탈취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물파괴는 한(34.5%)·중(28.7%)·일(26.7%)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삼국 모두 대체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이 낮을수록 폭력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고등학생보다 연령이 낮은 중학생이 더 폭력발생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 연구가 학생신분자만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학교에서 비행 및 폭력을 일으키는 문제학생이 고등학교에 진급하지 못함에서 기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연령이 어린 학생을 더 선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신체적·정신적으로 반항할 능력이 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손쉬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응답율이 높은 것도 있는데,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의 경우, 일본은 고등학생(5.8%)이 중학생(3.6%)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의 경우, 중국은 고등학생(32.2%)이 중학생(25.7%)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별의 경우 대부분 남자가 여자보다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은 ‘한 사람을 따돌리기’와 ‘집단으로 패싸움하기’인데, ‘한 사람을 따돌리기’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여자가 남자(한국:여-73.5%, 남-59.5%, 일본:여-32.9%, 남-26.5%)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집단으로 패싸움하기’의 경우 한·중·일 모두 여자가 남자(중국:여-57.0%, 남-50.7%, 일본:여-49.2%, 남-38.4% 한국:여-33.3%, 남-20.3%)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예상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학교성적의 경우, 대체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이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의 경우, 중국은 성적이 높은 학생(30.8%)이 중간(28.0%)이거나 낮은 학생(28.6%)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 폭력사용 경험⁵¹⁾

11. 여러분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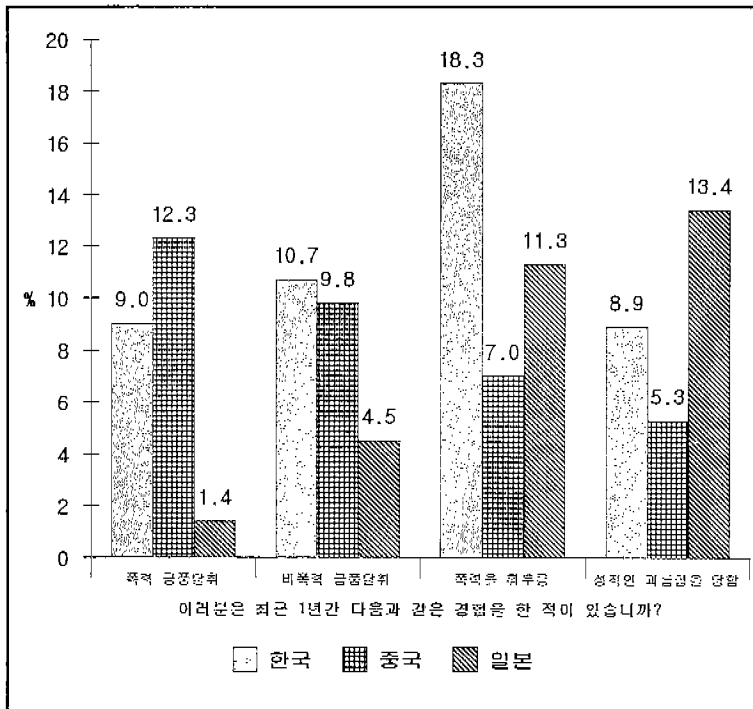
한·중·일 청소년의 폭력사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폭력으로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폭력은 사용하지 않고)’,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와,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신체에 손을 대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의 1개 상황, 총 4개 상황을 제시한 후 ‘여러분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폭력사용경험정도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 국가차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가 폭력 또는 비폭력으로 금품탈취를 했었는가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22.1%(폭력사용-12.3%, 비폭력-9.8%)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9.7%(폭력사용-9.0%, 비폭력-10.7%), 일본은 가장

51) 부록 < 표 48 > ~ < 표 51 > 참조.

낮은 5.9%(폭력사용-1.4%, 비폭력-4.5%)로 나타났다. 이것을 폭력의 발생정도 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한국에서는 금품탈취의 발생정도가 65.5%였으나, 실제로 응답자가 대답한 금품탈취 경험정도는 19.7%였다. 즉, 본 조사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품탈취는 대부분이 학생신분이 아닌 사람 - 연령이 청소년에 해당되든 해당되지 않든 상관없이 - 이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해자인 19.7%의 소수학생이 피해자인 65.5%의 다수를 대상으로 금품을 탈취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금품탈취 발생정도는 26.6%이고, 응답자의 금품탈취 경험정도는 22.1%로 나타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금품탈취는 거의 대부분 학생신분을 지닌 청소년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폭력사용 경험



응답자가 폭력을 휘둘렀는가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한국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이 11.3%, 중국이 7.0%의 순으로 나타나, 폭력경험은 한국과 일본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의 발생정도에서 중국이 36.4%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나 폭력사용 경험여부는 7.0%로 가장 낮게 나타나, 중국의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폭력의 대부분이 비학생신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가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는가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과 중국은 각각 8.9%, 5.3%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폭력사용경험이 많았다. ‘신체에 손을 대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 일본은 여자(17.8%)가 남자(9.1%)보다 성적인 괴롭힘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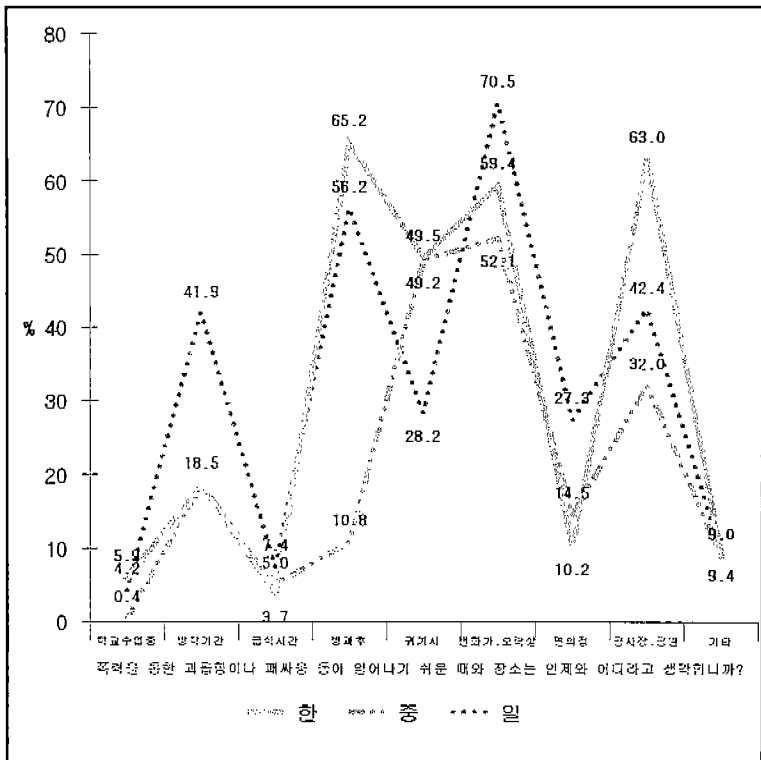
변인별 폭력의 발생정도와 폭력사용의 경험여부를 비교 분석하면, 교급별의 경우, 폭력의 발생정도와 폭력사용의 경험여부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폭력의 발생정도가 낮으면, 폭력사용의 경험여부는 높게 나타나고, 폭력의 발생정도가 높으면, 폭력사용의 경험여부는 낮게 나타난다. 폭력의 발생정도에서 중학생의 경우가 고등학생보다 주변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폭력사용의 경험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중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폭력의 가해자는 고등학생이며, 피해자는 중학생이라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 - 청소년 혹은 청소년이 아닌 가해자 - 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반항할 능력이 적은 중학생을 폭력을 휘두르기 쉬운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⁵²⁾

14.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한 괴롭힘이나 패싸움 등이 일어나기 쉬운 때와 장소는 언제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발생 시기는 ‘학교수업중’, ‘방학기간’, ‘급식시간’, ‘방과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의 5개 상황을, 폭력발생 장소는 ‘변화가·오락실’, ‘편의점 주변’, ‘공사장·공원’, ‘기타’의 4가지 장소를 제시한 후,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림 23)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



52) 부록 < 표 52 > 참조.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로, 한국과 일본은 ‘방과후’(한국-65.2%, 일본-56.2%)를, 중국은 ‘귀가시’(49.2%)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 ‘귀가시’(49.2%)를 중국과 일본은 ‘방학기간’(중국-18.5%, 일본-41.9%)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순위로 한국은 ‘방학기간’(18.5%), 중국은 ‘방과후’(10.8%), 일본은 ‘귀가시’(28.2%)를 꼽았다. 결과적으로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는 학교방과후나 학교·학원 귀가시, 혹은 방학기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5개의 상황중 ‘급식시간’(한국-3.7%, 중국-7.4%, 일본-7.4%)과 ‘학교수업중’(한국-5.9%, 중국-0.4%, 일본-4.2%)은 매우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는 달리, 학교내라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학교내에서는 학교선생님이 폭력발생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지를 받지 않는 학교 외보다는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국은 ‘공사장·공원’(63.0%), 중국과 일본은 ‘변화가·오락실’(중국-52.1%, 일본-70.5%)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 ‘변화가·오락실’(59.4%), 중국과 일본은 ‘공사장·공원’(중국-32.0%, 일본-42.4%)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일본과 중국청소년들은 사람통행이 빈번하고 많이 몰리는 변화가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한국청소년은 비교적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공사장이나 공원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해 국가간 차이를 보였다. 그 밖의 ‘편의점’(한국-10.2%, 중국-14.5%, 일본-27.3%)이나 ‘기타’(한국-9.0%, 중국-9.0%, 일본-9.4%) 등은 폭력이 비교적 낮게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4) 요약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도구적 폭력, 표현적 폭력, 공격적 폭력, 방어적 폭력의 4가지 유형이 있다. 도구적 폭력이

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폭력이며, 표현적 폭력이란 분노나 공포, 좌절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폭력이며, 공격적 폭력이란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이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폭력이며, 방어적 폭력이란 여러 공격에 맞서기 위한 폭력이다⁵³⁾.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폭력은 이러한 4가지 유형의 폭력이 혼재 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 제 5 절에서는 여러 유형이 혼재 되어 나타나는 청소년폭력의 발생정도, 폭력사용경험정도,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의 폭력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67.6%)이었고, ‘한 사람을 따돌리기’(66.0%), ‘구타 등 폭력 휘두르기’(47.5%)도 비교적 발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발생정도를 보인 것은 ‘집단으로 폐쇄움하기’(26.8%)였으며, 나머지는 30~35%의 발생율을 보였다.

폭력사용경험정도에 있어서, 한국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18.3%)였고, 나머지는 모두 10%내외의 경험율을 보였다. 그리고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를 조사한 결과, 폭력은 ‘방과후’(65.2%)에, ‘공사장·공원’(63.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식시간’(3.7%)과 공사장·공원, 변화가·오락실, 편의점 이외의 ‘기타’(9.0%)장소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경우, 폭력발생정도에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68.1%)라고 응답했

53) Richard L. Jenkins & Eve Blogett Gowdey(1981), Prediction of Violence, Springfield: Charles C Thoms Publisher, p.3,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5-33, p.9에서 재인용.

고, ‘집단으로 패싸움하기’(53.7%)도 비교적 발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은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10.4%)였고,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16.2%)도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폭력행동은 28~36%의 발생율을 보였다. 즉 중국에서는 언어폭력과 패싸움이 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금품탈취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폭력사용경험에 있어서는, ‘폭력으로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12.3%)가 가장 높게,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7.0%)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나, 삼국중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를 조사한 결과, 폭력은, ‘귀가시’(49.2%)에, ‘변화가·오락실’(52.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학교수업중’(0.4%)이나 변화가·오락실, 공사장·공원, 편의점 이외의 ‘기타’(9.0%)장소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청소년의 경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54.0%)라고 응답했고, ‘집단으로 패싸움하기’(43.5%)도 비교적 발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발생정도를 보인 것은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4.6%)였고,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6.3%)도 비교적 발생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20%대의 발생율을 보였다. 폭력발생정도에서도 국가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한국 그리고 중국·일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은 언어폭력이나 한 사람을 따돌리는 정신적 폭력 등이 주로 발생하나, 중국·일본은 언어폭력이나 패싸움 등이 자주 발생한다. 중국·일본에서 높은 발생율을 보인 패싸움은 반대로 한국에서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 폭력행태이었고, 반대로 한국에서 30%대의 발생율을 보인 금품탈취는 중국·일본은 10%내외의 가장 낮은 발생율을 보였다.

일본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형태는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11.3%)였고, 나머지는 모두 5%미만의 경험율을 보였다. 그리고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나, 삼국중 일본청소년이 가장 성적인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를 조사한 결과, 폭력은 '방과 후'(56.2%)에, '변화가·오락실'(70.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수업중'(4.2%)에, 변화가·오락실, 공사장·공원, 편의점 이외의 '기타'(9.4%)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친구관계

1) 친구관계 만족도

1-3. 여러분은 지금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5-1.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

2) 친구와의 친밀도

15-2. 진정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

3) 소외감 / 고독감

15-3.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

15-5.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4)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친구관계 만족도, 친구와의 친밀도, 소외감/고독감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친구관계 만족도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지금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 친구와의 친밀도의 경우에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소외감/고독감의 경우에는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의 총 3영역 5분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보고왔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여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친구관계 만족도⁵⁴⁾

1-3. 여러분은 지금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5-1.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

친구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의 2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각각 한국은 82.3%, 53.7%가, 중국은 87.0%, 21.9%가, 일본은 91.0%, 32.3%가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많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한국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따라서 주변사람들에 대한 불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주변사람에 대한 불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을 조장하는 한국사회의 학교풍토가 삼국중 가장 심각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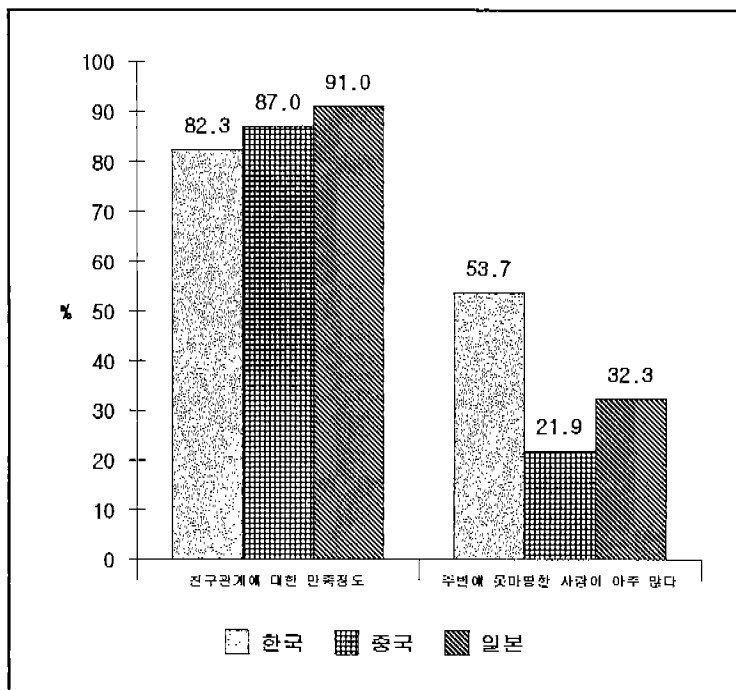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중·일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한국:중-84.3%, 고-80.9%, 중국:중-87.4%, 고-87.0%, 일본:중-92.7%, 고-90.1%)보다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많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주변에 못

54) 부록 < 표 53 >, < 표 54 > 참조.

‘주변에 못 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란 문항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척도이나 중국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3점 척도이다. 이렇게 측정척도가 서로 상이한 까닭은 한·중·일 삼국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중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마땅한 사람이 많다고 응답해(일본:중-37.5%, 고-28.5%) 예상외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 24) 친구관계 만족도



성별로는 한·중·일 모두 남자가 여자(한국:남-57.1%, 여-51.1%, 중국:남-24.2%, 여-20.1%, 일본:남-36.4%, 여-29.2%)보다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중국청소년은 여자가(87.4%)가 남자(87.1%)보다 친구관계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오히려 남자(84.2%)가 여자(80.8%)보다 친구관계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학교성적별로는 한국, 일본은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고,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친구와의 친밀도⁵⁵⁾

15-2.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친구와의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의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3%가, 일본은 17.5%가, 중국은 9.7%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삼국청소년들이 진정한 친구 한 명쯤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는 문항에 삼국 중 가장 높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청소년이 삼국중 친구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고, 주변사람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일본청소년은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높았으나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7.5%나 되었다. 중국청소년은 전체응답자의 9.7%만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해 삼국중 가장 진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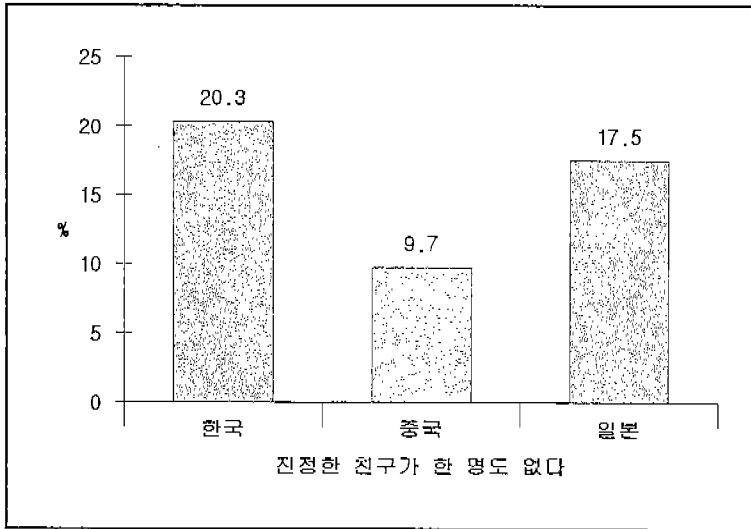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국은 중학생(21.2%)이 고등학생(19.6%)보다 더 많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본은 고등학생(19.7%)이 중학생(15.7%)보다 더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한국은 여자(22.6%)가 남자(18.1%)보다, 일본은 남자(18.0%)가 여자(17.6%)보다 더 많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55) 부록 < 표 55 > 참조.

이 문항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척도이나 중국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3점 척도이다. 이렇게 측정척도가 서로 상이한 까닭은 한·중·일 삼국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25) 친구와의 친밀도



3) 소외감 / 고독감⁵⁶⁾

15-3.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

15-5.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한·중·일 청소년의 소외감/고독감을 알아보기 위해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의 2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각각 한국은 28.7%, 28.8%가, 일본은 20.5%, 23.1%가, 중국은 3.5%, 10.6%가 그렇다고 응답해 고독감 내지 소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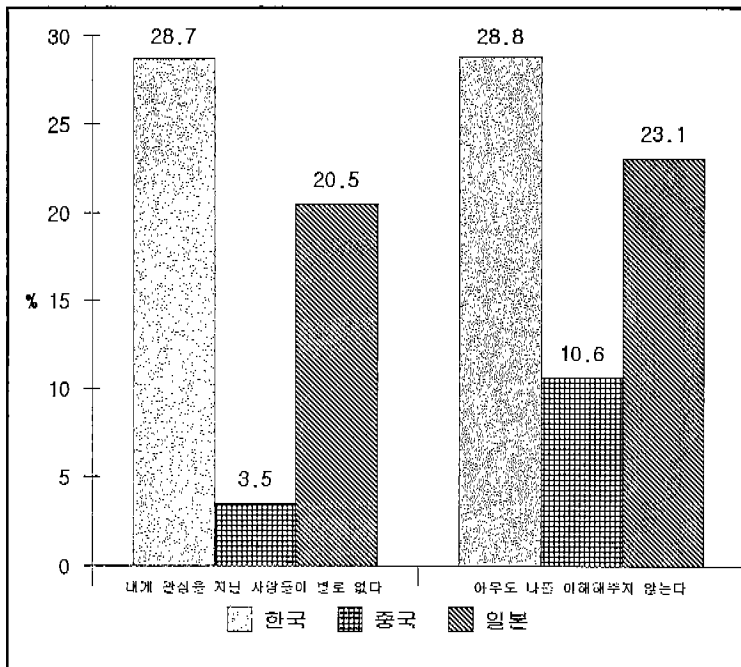
56) 부록 < 표 56 >, < 표 57 > 참조.

이 두 문항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이나 중국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3점 척도이다. 이렇게 측정척도가 서로 상이한 까닭은 한·중·일 삼국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을 느끼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국은 고등학생이(29.3%)이 중학생(28.4%)보다 더 많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주위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한 반면, 주위에서 자신을 더 이해한다(고등학생-72.4%, 중학생-69.4%)고 응답하였으나, 반대로 일본은 중학생(78.1%)이 고등학생(74.9%)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동시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적어진다고 답해 소외감 및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소외감 / 고독감



성별로는 일본은 남자(25.2%)가 여자(16.8%)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더 적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남자-25.9%, 여자-21.2%)도 더 적다고 하였고, 중국도 남자가(11.9%)가 여자(9.9%)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적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나 일본은 남자가 여자보다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일본의 경우, 남자(18.0%)가 여자(17.6%)보다 진정한 친구가 더 적다고 나타난 조사결과와 연결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진정한 친구가 더 없으므로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상대(confidant)도 없고, 따라서 동지애를 느끼는 상대도 없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소외감/고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성적별로는 한·중·일 모두 성적이 낮을수록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더 적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더 적게 나타났다.

4) 요약

아동과 성인의 중간적 존재인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급격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신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더욱 확실해 지고, 정신적으로는 격심한 정서의 표출보다는 자아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고독을 즐기며,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향을 띄고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며, 사회적으로는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라 부모로부터 심리적 이유(離乳)를 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 즉 이러한 자아의식의 발달과 고독감·독립심으로 말미암아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이 줄어들고 자립적·독립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한 교우나 동료집단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⁵⁷⁾. 즉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준거집단으로 형성되므로, 인격형성의 모델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제 6 절에서는 한·중·일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친구

57)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 세계에 관한 연구-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pp.10-14.

관계 만족도, 친구와의 친밀도, 소외감/고독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중·일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만족도를 현재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족정도로 측정한 결과,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현재의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한국은 82.3%, 중국은 87.0%, 일본은 91.0%가 친구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삼국중 한국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것과 관련해서, 주변사람들에 대한 불만족도는 삼국중 가장 높게(한국-53.7%, 중국-21.9%, 일본-32.3%) 나타났고,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문항에도 삼국중 가장 높게 긍정적인 반응(한국-20.3%, 중국-9.7%, 일본-17.5%)을 보였으며,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한국-28.7%, 중국-3.5%, 일본-20.5%)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한국-28.8%, 중국-10.6%, 일본-23.1%) 등 소외감 및 고독감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53.7%)의 한국청소년이 주변사람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달리, 삼국중 가장 낮은 빈도율(21.9%)을 나타냈고, 전체응답자의 9.7%만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문항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여 친구와의 친밀도가 삼국중 가장 높았으며, 친구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그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도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나, 중국청소년들이 가장 진전하고 진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1.0%가 친구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삼국중 친구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한 청소년이 32.3%,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7.5%나 되므로, 일본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진정한 친구관계가 아닌, 표면적·의례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도, 이해

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진정한 친구를 적게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상대도, 동지애를 느끼는 상대도 적으므로 주변으로부터 소외감/고독감을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7. 자아관

1)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1-5.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5-8.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2) 자아비판

15-4.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5-6.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3) 독창성 / 개성

8-7.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15-7.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

4)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자아관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아비판, 독창성/개성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아비판의 경우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독창성/개성의 경우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의 총 3영역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여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⁵⁸⁾

- 1-5.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5-8.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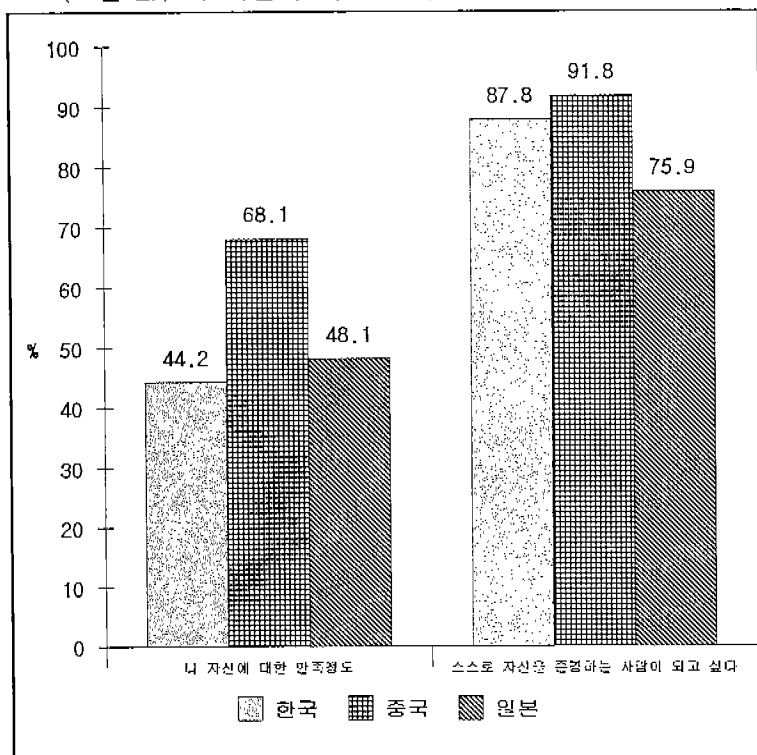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와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의 2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각각 44.2%, 87.8%가, 중국은 각각 68.1%, 91.8%가, 일본은 각각 48.1%, 75.9%가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여, 중국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고, 자신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도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중·일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한국:중-52.1%, 고-36.6% 중국:중-72.5%, 고-64.3% 일본:중-57.0%, 고-40.5%)보다 자기자신에 대해서 더 만족한다고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8) 부록 < 표 58 >, < 표 59 > 참조.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문항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이나 중국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3점 척도이다. 이렇게 측정척도가 서로 상이한 까닭은 한·중·일 삼국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중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27)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성별로는 중국과 일본은 여자가 남자(중국:여-70.9%, 남-66.1%, 일본:여-48.5%, 남-48.2%)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여자가 남자(중국:여-95.0%, 남-91.8%, 일본:여-83.1%, 남-71.2%)보다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율도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은 남자(49.2%)가 여자(39.6%)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별로는 한·중·일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도 높게 나타났고,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2) 자아비판⁵⁹⁾

15-4.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5-6.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삼국의 청소년들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의 2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각각 41.2%, 63.6%가, 일본은 각각 36.1%, 56.0%가, 중국은 각각 4.0%, 41.5%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한국청소년이 가장 자신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고, 중국청소년이 가장 자신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에서 있어서 한국청소년이 가장 낮게,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게 만족한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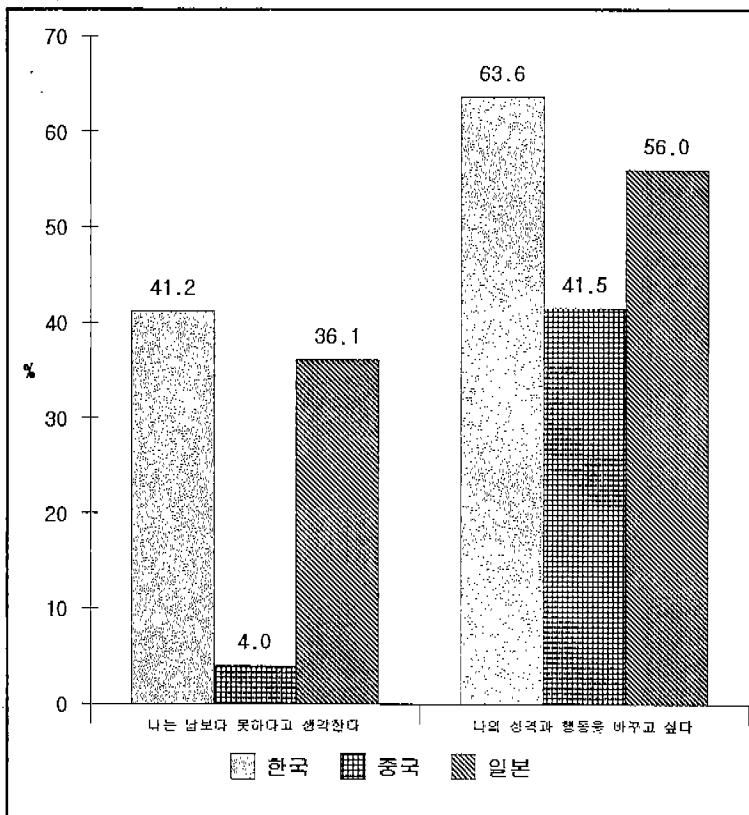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국은 중학생(42.7%)이 고등학생(40.3%)보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평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별로는 자신이 남보다 더 못하다는 응답은 여학생(43.6%)이 남학생(39.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응답은 반대로 남학생(66.7%)이 여학생(6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동일하게 여학생(38.2%)이 남학생(35.5%)보다 자신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응답도 여학생(64.0%)의 경우가 남학생(49.8%)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과 일본의 의식 차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어도

59) 부록 < 표 60 >, < 표 61 > 참조.

이 두 문항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이나 중국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3점 척도이다. 이렇게 측정척도가 서로 상이한 까닭은 한·중·일 삼국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중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개선할 의지나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한국, 일본과는 상이한 조사결과인, 남자(5.1%)가 여자(3.1%)보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는 중국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자청소년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자청소년보다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더 바꾸고 싶다(남-44.7%, 여-39.7%)는 높은 의지를 보여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다.

(그림 28) 자아비판



학교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은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을 남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동시에,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도 높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려는 욕심도 강함을 알 수 있다. 중국도 성적이 낮을수록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독창성/개성⁶⁰⁾

8-7.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15-7.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

자신에 대한 독창성/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의 2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각각 53.5%, 78.6%가, 중국은 각각 54.4%, 72.4%가, 일본은 각각 53.3%, 71.6%가 ‘그렇다’라고 나타나, 독창성 및 개성에 대한 욕구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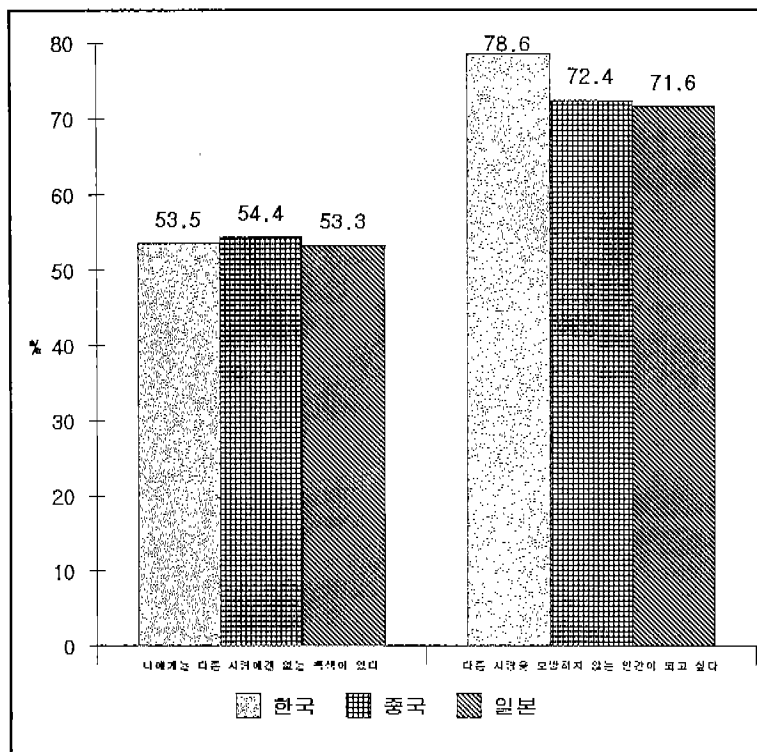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국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고(고-54.9%, 중-52.5%),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80.6%, 중-78.3%)고 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더 있다(중-57.6%,

60) 부록 < 표 62 >, < 표 63 > 참조.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문항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이나 중국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3점 척도이다. 이렇게 측정척도가 서로 상이한 까닭은 한·중·일 삼국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중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고-52.3%)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중-69.7%, 고-77.6%)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만의 개성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남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9) 독창성 / 개성



성별로는 중국, 일본은 남자(중국:남-58.6%, 여-51.4%, 일본:남-58.2%, 여-49.2%)가 여자(중-51.4%, 일-49.2%)보다 자신에게 남에게 없는 특색이 더 많다고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남을 더 모방하는 것(중국:남-30.6%, 여-22.7%, 일본:남-31.7%, 여-22.8%)으로 나타나, 의식과 행동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성적별로는 한국과 중국은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만의 특색이 더 강하다고 인식하여, 더 남을 모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주관적 측면인 개인적 정체감과 객관적 측면인 심리적·사회적 정체감이 분화되고 이들의 재통합과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보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대개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즉 그들에게 부딪치는 여러 가지 과업의 곤란과 실패, 성(性)적 성숙으로 인한 내부 변화의 질적·양적 분화,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직업이나 배우자 선택의 강요, 경쟁분위기와 자기능력의 한계성, 이상적인 자아개념과 현실적인 자아개념간의 갈등, 이상적 포부수준과 현실적 상황간의 갈등 등 많은 성공과 실패의 정신세계 또는 현실사회의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정을 노출시키는 특징을 나타낸다⁶¹⁾.

이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현재에 분명히 더 많은 정신적 부담과 긴장을 안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시기의 발달 과업인 올바른 정체감(identity) 확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성인기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제 7 절에서는 한·중·일 청소년의 가치관중 자신에 대한 만족, 자아비판, 독창성/개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4.2%(중국-68.1%, 일본-48.1%)가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87.8%가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해,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는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으면서도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낮은 만족정도는 높은 열등의식과 자신에 대한 변화욕구로 연결

61)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 세계에 관한 연구-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pp.14-21.

된다. 전체응답자의 41.2%(중국-4.0%, 일본-36.1%)가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며, 63.6%(중국-41.5%, 일본-56.0%)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응답해 한국청소년이 삼국중 가장 자아비판적으로 나타났다. 즉 삼국중 열등감이 가장 크며, 더불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도 가장 강했는데 이것은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이 낮으므로, 열등감도 크나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고 싶은 욕구도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은 자신만의 독창성 및 개성에 대한 욕구도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68.1%가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91.8%가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관련하여 중국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응답자의 4.0%만이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변화욕구도 삼국중 가장 낮았다. 또한 중국청소년들은 전체응답자의 54.4%(한국-53.5%, 일본-53.3%)가 자신은 남들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고 응답해,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삼국중 가장 개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주의체제에서 성장한 중국청소년이 자본주의·민주주의에서 성장한 한국, 일본청소년보다 더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일이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48.1%가 현재 자기모습에 만족하고, 75.9%가 자기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응답자의 36.1%가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56.0%가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해 한국 다음으로 자아비판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8. 직업관

1)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6. 여러분이 장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중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2) 일에 대한 사고방식

8-9.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13.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3)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직업선택시 고려 조건, ‘일’에 대한 사고방식의 2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선택시 고려조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장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중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일’에 대한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의 총 2영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여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직업선택시 고려조건⁶²⁾

6. 여러분이 장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중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중·일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이 안

62) 부록 < 표 64 > 참조.

정되어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는 직업’, ‘느긋하고 마음 편하게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의 4가지 중 어느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61.2%)·중(58.5%)·일(53.7%) 모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순위의 응답을 제외하고는 한·중·일 모두 국가별 차이를 나타냈는데, 2순위로 한국과 일본은 ‘수입’(한국-28.2%, 일본-20.8%)을, 중국은 ‘중요한 책임’(20.4%)을 꼽았고, 3순위에 한국(8.5%)은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중국(14.3%)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일본(13.0%)은 ‘중요한 책임을 맡는 직업’을 꼽았으며, 4순위로 한국(1.9%)은 ‘중요한 책임’을, 중국(6.4%)과 일본(11.8%)은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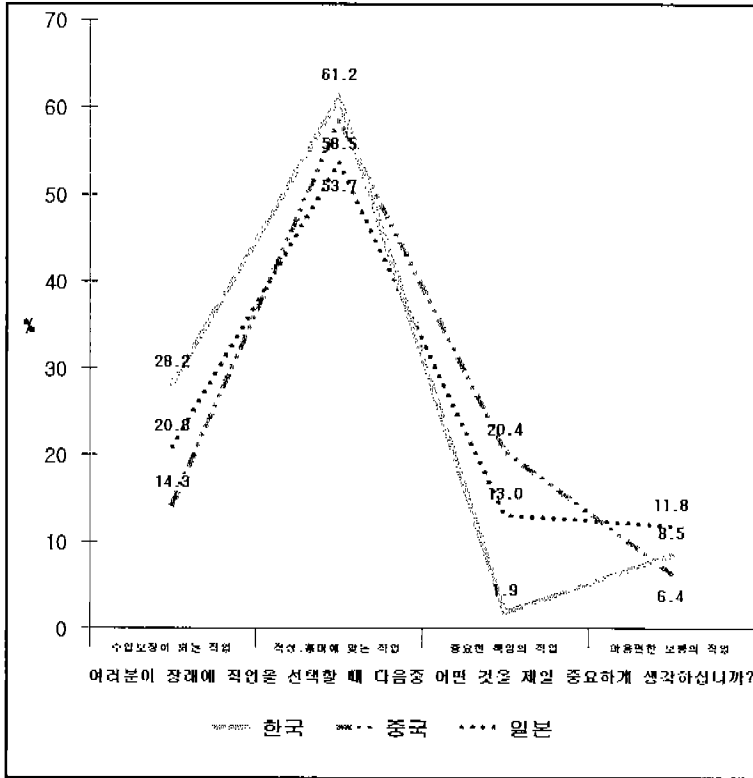
따라서 공통적인 요소인 1순위를 제외하고 보면, 한국과 일본은 수입이 높은 직업을, 중국은 중요한 책임을 맡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17~2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청년의식조사⁶³⁾에서, 일본청소년의 개인적 관심사로 돈(34.9%)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한 것과 일본의 부모들은, 아들은 월급이 많고 적극적인 직장을 얻기를 바란다는 조사결과⁶⁴⁾와, 중국 초등학교생의 54.4%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⁶⁵⁾와도 일치한다. 반대로 가장 기피하는 직업으로는 한국은 중요한 책임을 맡는 직업을, 중국과 일본은 평균적인 보통의 직업을 선택하여, 한국은 중요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수입만 높은 직장을 원해, 책임과 권리의 균형에서 권리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국과 일본은 보통의 평범한 직장생활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하고 획일적인 사회생활을 배격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업이나 고소득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띄었다.

63) 세계청년의식조사(1994. 3), 일본총무청.

64) 조선일보, 1994년 4월 26일자.

65) 오영태·강상욱(1995), 전개논문, pp.197-245.

(그림 30)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2) ‘일’에 대한 사고방식66)

8-9.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13.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일’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의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중국은 74.8%가, 한국은 71.9%가, 일본은 42.0%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에 비

66) 부록 < 표 65 >, < 표 66 > 참조.

교적 큰 비중을 두고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57.5%)이 많아 두 나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점차 일지향에서 여가지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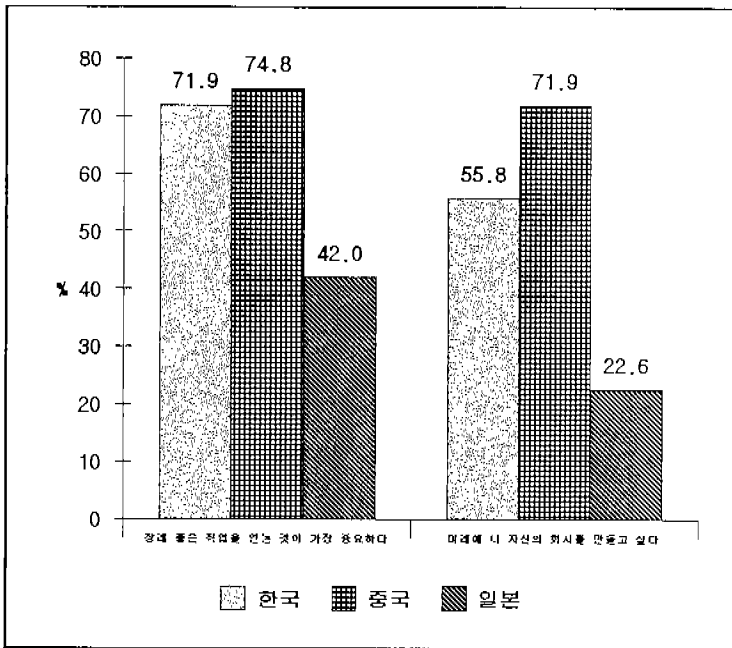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직업선택시 고려 조건’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면 한·중·일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중시도와 직업 선호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중학생(한국:고-76.3%, 중-68.0%, 중국:고-77.6%, 중-73.7%)보다 더 많이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연령이 상승할수록, 사회로 진수(進水)하는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직업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한국과 일본은 남자가 여자(한국:남-76.1%, 여-68.4%, 일본:남-47.7%, 여-36.8%)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특이하게도 중국은 여자(77.9%)가 남자(73.0%)보다 좋은 직업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공산화를 거치면서 모택동 정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을 이루었으므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 못지 않게 매우 활발하며, 또한 고위직이나 회사의 최고경영자들도 여자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좋은 직업 획득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성적별로는 한국과 중국은 성적이 낮은 경우(한국-73.4%, 중국-76.9%)가 좋은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대한 사고방식과 관련하여, 삼국 청소년들의 창업정신을 알아보기 위해,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의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55.8%, 중국은 71.9%, 일본은 22.6%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해, 직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중국 청소년의 경우가 자신의 회사를 갖고 싶어하

는 창업정신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삼국중 가장 낮은 일본청소년의 경우, 창업정신도 가장 희박하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22.6%만이 자신의 회사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림 31) 일에 대한 사고방식



변인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삼국 모두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여자청소년보다(한국:남-63.2%, 여-48.3%, 중국:남-75.0%, 여-70.2%, 일본:남-32.0%, 여-13.5%) 창업정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성적이 낮을수록(상·중상-55.5%, 중-55.1%, 중하·하-59.0%) 자신의 회사를 갖고 싶은 희망이 더 높았는데, 이는 취업시 학력이 중요시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그만큼 취업에의 경쟁에서 뒤짐으로 개인회사를 갖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요약

한·중·일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의식을 직업선택시 고려조건과 일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71.9%가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선택시 대다수의 청소년(61.2%)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우선시하였고, 극소수의 청소년(1.9%)만이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여 중요한 책임에 대한 기피경향이 삼국중 가장 높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의 응답일 수도 있는 ‘적성 및 흥미’를 제외하면 수입이 안정되어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28.2%)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74.8%가 장래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삼국중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청소년은 창업정신이 삼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71.9%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한국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58.5%)을 가장 선호하고, 느긋하고 마음 편하게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6.4%)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일 수도 있는 ‘적성 및 흥미’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는 직업(20.4%)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성장한 중국청소년들은 국가관, 책임의식이 투철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42.0%가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보다 30%정도 낮은 응답율로써,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청소년의 창업정신에도 나타나는데, 전체 응답자의 22.6%만이 미래에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여 한국, 중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한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53.7%)을 가장 선호하고, 느긋하고 마음 편하게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11.8%)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한국·중국과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일 수도 있는 ‘적성 및 흥미’를 제외하면, 수입이 안정되어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20.8%)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다.

9. 가치관

1) 삶에 대한 인식

- 8-1.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 8-5.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 8-6.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좋다

2) 공동체 의식

- 8-2.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3) 고민 · 걱정

- 2.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4)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

- 8-10.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16.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습득하십니까?

5) 요약

한·중·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삶에 대한 인식, 공동체 의식, 고민·걱정,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삶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공동체 의식의 경우에는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고민·걱정의 경우에는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에는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니까?’의 총 4영역 7문항을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해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본 후, 변인별 경향을 살펴

보았다. 변인별 설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통계표로 대체 가능하며 3개국의 각각 4개 변인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하기보다는 변인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 해석하였다.

1) 삶에 대한 인식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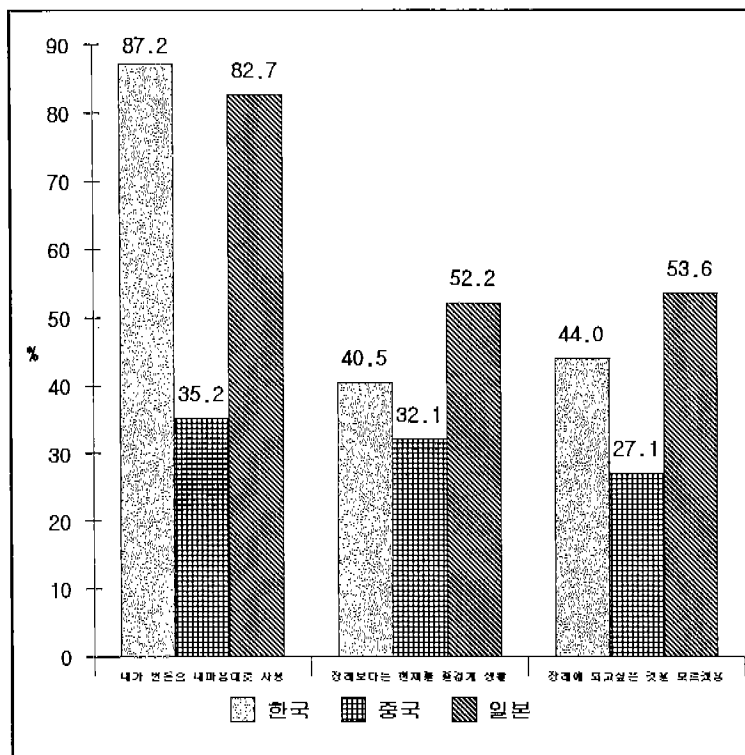
- 8-1.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8-5.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8-6.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

삶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의 3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각각 87.2%, 40.5%, 44.0%가, 중국은 각각 35.2%, 32.1%, 27.1%가, 일본은 각각 82.7%, 52.2%, 5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근대적 교육과 서구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 스스로 번 돈의 재량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현실을 유보하기보다는 현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높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고교생 23.0%가 자신의 장래가 ‘그다지 밝지 않으며, 틀렸다’고 하여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며, 51.7%가 ‘앞일은 생각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현재지향적 향락형 청소년이라고 밝힌 일본청소년연구소⁶⁸⁾의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일본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67) 부록 < 표 67 > ~ < 표 69 > 참조.

68) 경향신문, 1994년 5월 9일자.

(그림 32) 삶에 대한 인식



변인별로 살펴보면, 한·중·일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스스로 번 돈은 자신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한국:고-89.0%, 중-85.7%, 중국:고-40.5%, 중-30.6%, 일본:고-89.5%, 중-76.1%)고 응답했고, '장차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한국:고-47.9%, 중-40.6%, 중국:고-29.1%, 중-25.6%, 일본:고-56.0%, 중-51.6%)고 응답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일본의 청소년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미래를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원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미래의 안정을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미래지향적인 경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별로는 일본은 여자가 남자보다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자기주장이 강했고(여-82.4%, 남-83.8%),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성향(여-56.3%, 남-48.5%)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한·중·일 모두 성적이 낮을수록 미래보다는 현재에 치중하는 삶을 영위하며, 한국, 중국은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성적이 낮을수록 자신이 번 돈에 대한 권리주장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적으로 순열이 지워지는 학교사회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체념도 빨라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따라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알 수도 없으므로, 현재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공동체의식⁶⁹⁾

8-2.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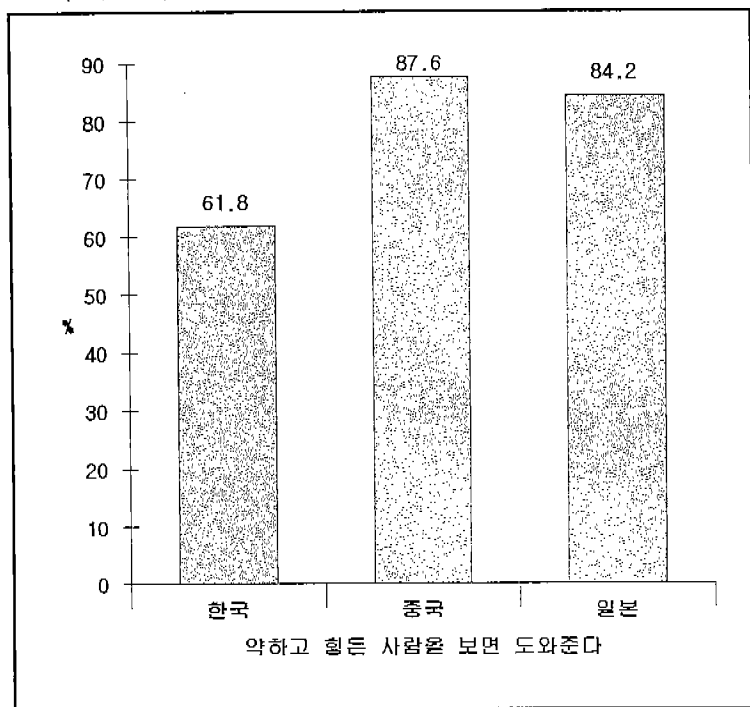
공동체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삼국청소년에게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의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중국은 전체응답자의 87.6%, 일본은 84.2%, 한국은 61.8%가 도와준다고 응답해 중국과 일본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이 한국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 도와준다는 응답이 20% 정도가 낮게 나타나, 나만 아는 이기심이 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삼국중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중·일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한국:중-63.6%, 고-60.7%, 중국:중-89.2%, 고-87.7%, 일본:중-87.8%, 고-81.9%)보다 도와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상승할수록 타

69) 부록 < 표 70 > 참조.

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겠고, 성별로는 중국과 일본은 여자가 남자(중국:여-91.1%, 남-85.6%, 일본:여-89.1%, 남-80.2%)보다 도와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한·중·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3) 공동체 의식



3) 고민 · 걱정⁷⁰⁾

2.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한·중·일 청소년의 고민·걱정을 알아보기 위해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한 후, ‘공부·성적’, ‘진학’, ‘결혼

70) 부록 < 표 71 >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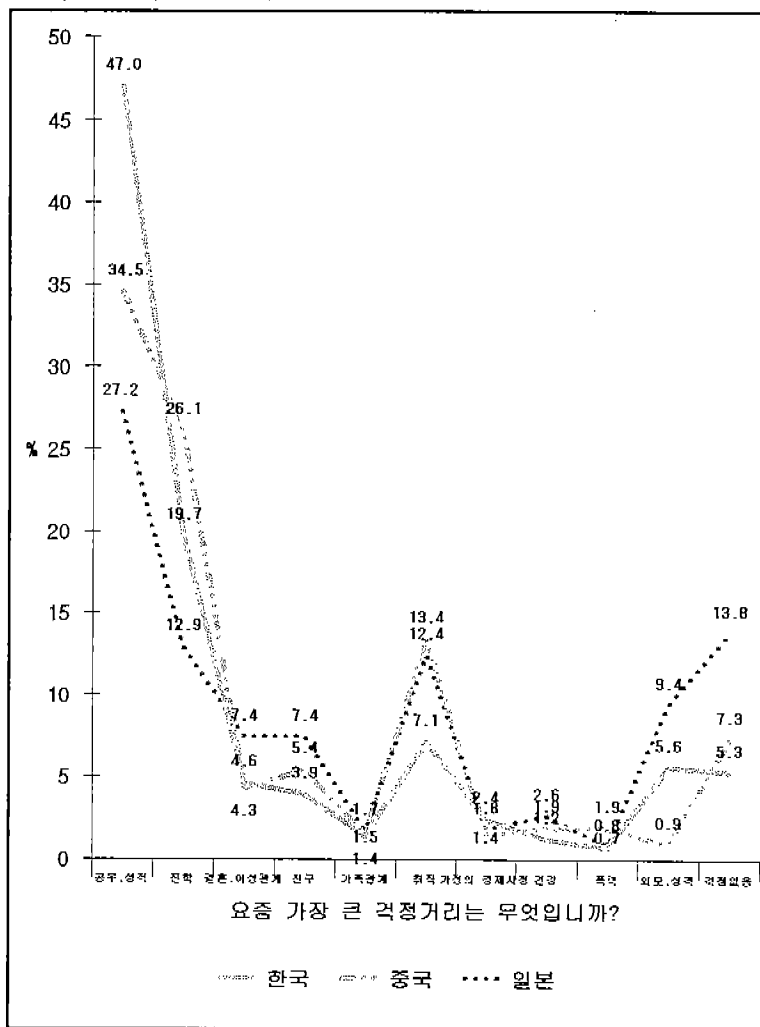
또는 이성관계', '친구', '가족관계', '취직(장래직업)', '가정의 경제사정', '건강', '폭력', '자신의 외모나 성격', '특별한 걱정거리 없음'의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하나를 택하라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가장 큰 걱정거리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것은 삼국(三國) 모두 공부·성적(한국-47.0%, 중국-34.5%, 일본-27.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부·성적과 진학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에 공부·성적과 진학을 함께 살펴보면, 한국은 66.7%, 중국은 60.6%, 일본은 40.1%의 응답율을 보여, 한·중·일 청소년 걱정거리중 대부분이 공부·성적 및 진학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다만, 일본의 응답율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20%정도 낮게 나타나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 2 절의 학교생활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일본청소년의 경우, 삼국중 학교공부의 등한시 정도가 가장 높고, 대학진학 보다는 직업전문학교를 선호하는 최근의 동향으로 희망하는 학력도 삼국중 가장 낮아 학교 및 학교공부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적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특이한 점은 한국과 중국의 2순위가 진학(한국-19.7%, 중국-26.1%)이었는데 반해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다(13.8%)고 답한 점이다. 이것은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에서 나타난 일본 청소년의 현재지향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부·성적 및 진학을 제외한 9개를 살펴보면, 수위를 차지한 걱정거리는 '취직(장래직업)'(한국-7.1%, 중국-13.4%, 일본-12.4%),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다'(한국-5.3%, 중국-7.3%, 일본-13.8%), '결혼이나 이성관계'(한국-4.6%, 중국-4.3%, 일본-7.4%), '친구관계'(한국-3.9%, 중국-5.4%, 일본-7.6%) 등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걱정이 적게 되는 문제로는 '가정의 경제형편'(한국-2.4%, 중국-1.4%, 일본-1.8%), '가족관계'(한국-1.4%, 중국-1.5%, 일본-1.7%), '건강문제'(한국-1.2%, 중국-1.9%, 일본-2.6%), '폭력문제'(한국-0.7%, 중국-1.9%, 일본-0.8%) 등으로 나타났

다. 특이한 결과를 보인 문항은 자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한 문항이었는데, 한국(5.6%)과 일본(9.4%)은 비교적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이 쓰인다고 나타났으나, 중국에서는 0.9%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그림 34) 고민·걱정



4)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⁷¹⁾

8-10.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6.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니까?

한·중·일 청소년의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좋은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와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니까?’의 2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한국은 전체응답자의 63.3%가, 중국은 62.3%가, 일본은 47.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한국과 중국은 결혼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 중국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대국을 이룩한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져 독신자가 증가해 가는 추세이고, 핵가족화와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사회나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희박하게 되어 성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었고,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금욕윤리가 붕괴되었으며, 피임기술이 확립되어 안전한 성생활이 보장받게 되어 결혼을 하지 않고도 결혼생활에서 얻는 것을 획득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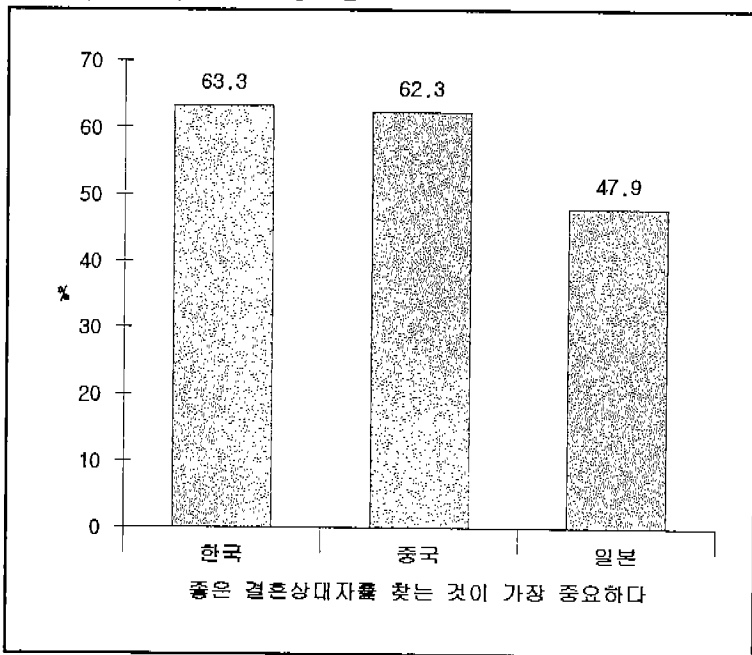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은 고등학생이 중학생(한국:고-68.0%, 중-59.5%, 중국:고-67.3%, 중-59.0%)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한·중·일 모두 남자가 여자(한국:남-70.5%, 여-56.9%, 중국:남-68.1%, 여-58.2%, 일본:남-53.0%, 여-43.4%)보다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자립

71) 부록 < 표 72 >, < 표 73 > 참조.

이 가능하게 되었고, 여성도 결혼보다는 사회에서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적령기라는 구분이 점차 모호하게 되는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는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없으나, 여성은 그 밖에도 육아라는 삼중, 사중고에 시달리므로, 이러한 결혼생활보다는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성향이 증가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적별로는 일본은 성적이 높을수록 결혼이 중요하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결혼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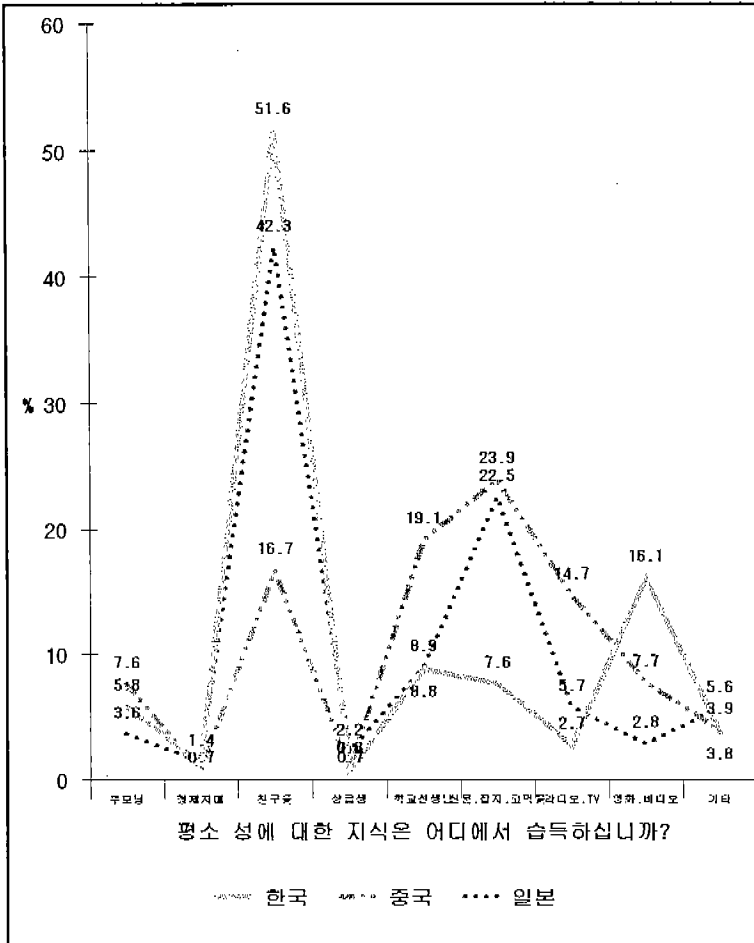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습득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상급생’, ‘학교선생님’, ‘신문·

잡지·코믹물', '라디오·TV', '영화·비디오', '기타'의 9개중 1개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 청소년은 성지식을 주로 '친구'(한국-51.6%, 중국-16.7%, 일본-42.3%)나 '학교선생님'(한국-8.8%, 중국-19.1%, 일본-8.9%)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를 통한 성지식 습득은 연령이 높아지고 학년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면서, 성지식 창구가 점차 대중매체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신문·잡지·코믹물'의 활자매체와 '영화·비디오'의 영상매체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신문·잡지·코믹물'의 활자매체는 주로 중국(23.9%)과 일본(22.5%) 청소년들의 성지식 습득의 주된 경로이지만, 한국(7.6%)은 이용율이 매우 낮고, 반면에 한국 청소년(16.1%)의 성지식 습득의 주된 경로인 '영화·비디오'인 영상매체는 중국(7.7%)과 일본(2.8%)에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나타나, 같은 대중매체이지만 활자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한 성지식 접촉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라디오·TV'를 통해서 중국(14.7%)과 일본(5.7%)의 청소년은 비교적 많은 성지식을 얻지만, 한국은 단지 2.7%에 그쳐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중매체로 볼 수 있는 '신문·잡지·코믹물', '영화·비디오', '라디오·TV'를 놓고 볼 때, 비교적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대중매체가 중국과 일본 청소년의 주된 성지식 습득의 경로인 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성지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대중매체를 주로 이용한다고 나타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한·중·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로 가장 이용율이 낮은 것은 형제자매(한국-1.3%, 중국-0.7%, 일본-1.4%)와 상급생(한국-0.7%, 중국-0.8%, 일본-2.2%)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성지식을 교육받는다는 청소년(한국-5.8%, 중국-7.6%, 일본-3.6%)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을 하나의 자연스런 생리현상으로 간주하여 가정 내에서도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한 서구와는 달리, 유교사상에 젖어 있는 동양사회에서는 성을 터부시하므로 성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하여, 올바

론 성지식의 1차적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가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6) 성지식 습득의 경로



5) 요약

가치관은 문화의 일부분이며, 문화는 사회화를 통하여 학습되어 지는 것이므로, 사회환경은 가치관의 형성 및 갈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즉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갖는 신념, 가치, 규범, 기대, 문화 등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의 혼란은 교육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외래문화의 전파 등에 의해 야기된다. 한국, 중국, 일본은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환경에 처해있으며, 청소년들의 가치의식도 각기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므로, 본 절에서는 삼국청소년의 가치관을 삶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식, 고민·걱정,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서구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자신의 권리주장이 확고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지향적인 경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87.2%(중국-35.2%, 일본-82.7%)가 자신이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응답해 삼국중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재량권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44.0%가 장래에 무엇이 될지를 모르겠고, 40.5%가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해 대다수의 한국청소년은 장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고, 현실의 쾌락을 추구하는 현재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에 있어서도 삼국중 가장 낮은 빈도율을 보였는데, 중국(87.6%)과 일본(84.2%) 청소년의 80% 이상이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청소년은 61.8%의 응답율을 보여 이기적인 성향이 삼국중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큰 걱정이나 고민거리로는 공부·성적(47.0%)과 진학(19.7%)을 들어 공부 및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35.2%가 스스로 번 돈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효사상이 강하고,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가 삼국중 가장 높은 중국청소년은 비록 자신이 번 돈이라도 개인소유가 아닌 가족공동의 소유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청소년은 비교적 낮은 비율의 청소년만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27.1%), 현실의 쾌락을 추구하는(32.1%) 것으로 나타나 삼국중 장래에 대한 준비를 가장 확고히 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청소년은 삼국중 가장 현재지향적이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 낙천적인 성향이 강하며, 개인적이고 서구적 사고방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53.6%)고 하며, 장래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52.2%)고 응답해 삼국중 현재지향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걱정되는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국·중국과 마찬가지로 공부·성적(27.2%)과 진학(12.9%)을 우선 순위로 꼽긴 했지만, 한국(66.7%), 중국(60.6%)보다는 20% 이상 낮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별 걱정이 없다는 응답(13.8%)은 한국(5.3%), 중국(7.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삼국중 가장 낙천적인 경향을 띄었다. 한편 일본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삼국중 가장 개방적이고 서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청소년(47.9%)의 비율은 한국(63.3%)과 중국(62.3%)에 비해 월등히 낮았는데, 이처럼 일본청소년들이 결혼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이미 경제적인 선진화를 이룩한 일본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져 서구처럼 독신자가 증가해 가는 추세이고, 핵가족화와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사회나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희박하게 됨에 따라 성에 대한 규제가 약화, 꼭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생활에서 얻는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3. 맺음말

조사결과 나타난 삼국청소년의 가치특성 및 행동성향을 중심으로 각국 청소년 의식구조의 대표적 유형을 구분해 보면, 한국청소년들은 삼국중 심리적으로 가장 억압되고 왜곡되어 있는 갈등적 청소년으로, 중국의 청소년들은 개방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경제적으로 갈등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적응적 청소년으로, 일본의 청소년들은 삼국중 가장 먼저 경제적 선진화를 이룩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가장 현재지향적 청소년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서 보이는 이러한 주요 특징적 현상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반영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반화된 보편성·절대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시기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상이한 사회·경제·정치체제를 형성한 한·중·일 3개국의 청소년들이 인식, 가치, 행동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와 자식관계, 가족과의 대화로 한·중·일 청소년의 가정관을 조사하였다.

둘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에 대한 평가, 학력에 대한 인식으로 한·중·일 청소년의 학교관을 조사하였다.

셋째,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한·중·일 청소년의 사회관을 조사하였다.

넷째, 비행의 경험정도와 비행에 대한 허용도로 한·중·일 청소년의 비행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 폭력경험 정도,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로 한·중·일 청소년의 폭력실태를 조사하였다.

여섯째, 친구관계 만족도, 친구와의 친밀도, 소외감/고독감으로 한·중·일 청소년의 친구관을 조사하였다.

일곱째,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아비판, 독창성/개성으로 한·중·일 청소년의 자아관을 조사하였다.

여덟째,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일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한·중·일 청소년의 직업관을 조사하였다.

아홉째, 삶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식, 고민/걱정, 결혼 및 성지식 습득의 경로로 한·중·일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북경사회과학원’과의 논의 끝에 공동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정관 9문항, 학교관 8문항, 사회관 7문항, 청소년비행 14문항, 청소년폭력 12문항, 친구관 5문항, 자아관 6문항, 직업관 3문항, 가치관 7문항,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4문항 등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중·일 모두 교급별, 학년별, 성별, 성적별을 준거변수로 하여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한국은 서울 및 경기지역, 중국은 북경, 일본은 동경에 거주하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7년 5월 중순~6월 중순 사이, 한국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976부를 수거하였으며, 내용이 부실기재된 6부를 제외한 1,97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SPSS/WIN(ver 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중·일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1) 가정관

한·중·일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한국은 77.7%, 중국은 91.5%, 일본은 81.0%가 ‘만족하는 편’ 혹은 ‘대단히 만족’의 답변을 하였는데, 삼국중 한국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부모로부터의 간섭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한국-62.4%, 중국-27.5%, 일본-50.2%), 체벌경험도 삼국중 가장 높았으며(한국-35.3%, 중국-28.3%, 일본-11.3%),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한국-51.7%, 일본-44.6%, 중국-19.5%) 부모와 많은 마찰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과의 대화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56.3%, 중국-58.7%, 일본-78.4%).

중국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삼국중 가장 높고(한국-81.9%, 중국-97.2%, 일본-62.3%),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도 가장 높고(한국-83.0%, 중국-98.1%, 일본-67.1%), 부모로부터의 간섭

도, 가출충동도 가장 적게 느끼며, 극소수의 청소년(7.8%)만이 부모에게 반항한다고 응답하는 등 부모와의 마찰과 갈등을 가장 적게 경험한 결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삼국중 가장 낮고, 효의 개념도 삼국중 가장 희박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의사도 가장 낮았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일본청소년이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고 응답해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삼국중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부모들은 자녀에게 관대하며 또한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이 삼국중 가장 낮았고, 가족들과 대화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된 일본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유교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에서 유래된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우위에 두었다.

2) 학교관

한·중·일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의 만족도보다는 낮지만, 학교생활에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 가운데 한국은 64.7%, 중국은 77.1%, 일본은 78.4%가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을 하여 삼국중 한국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한국청소년의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공부와 입시에 대한 부담이 삼국중 가장 큰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청소년의 41.6%(중국-17.2%, 일본-33.1%)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삼국중 대학입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체응답자의 92.2%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학력주의 사회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공부를 중시여기며, 고학력에 대한 희망정

도가 삼국중 가장 높지만, 대학이 출세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다수의 한국청소년(63.9%)과 일본청소년(72.0%)이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고 하여, 학교공부를 등한시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중국청소년(72.5%)은 학교공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었으며, 고학력에 대한 희망정도가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45.5%)이 석사이상의 학력을 희망했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94.1%나 되었다. 그러나 중국청소년은 대학을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좋은 학교의 졸업여부가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일본과는 달리 중국에서의 입신출세는 학력보다는 인간관계, 특히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청소년은 삼국중 학교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응답자의 72.0%(한국-63.9%, 중국-26.7%)가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학교공부의 등한시 정도가 높으며, 대학진학보다는 직업전문학교를 선호하는 최근의 동향에 따라 희망하는 학력은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청소년은 학교공부와 대학입학에 대한 심적 부담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사회관

한·중·일 청소년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었으나 각국의 사회전반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족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90.1%(중국-56.8%, 일본-74.1%)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여, 삼국중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높은 불만족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국청소년의 86.2%(중국-70.8%, 일본-78.2%)가 한국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인 51.5%의 청소년(중국-39.7%, 일본-33.7%)이 한국사회는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

결된다는 입장을 취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74.1%가 불만족의 경향을 보여, 사회에 대한 불만족도가 한국 다음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정도도 한국 다음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청소년의 68.7%가 법대로 살면 손해 보는 수가 많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법이 통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하여 비교적 투철한 국가관을 소유한 중국청소년들도 최근 개방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응답자의 39.7%가 중국에선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일본청소년의 응답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혁의 와중에서 권력이 남용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중국사회의 일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이다.

4) 청소년비행

한·중·일 청소년비행을 ‘가출하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도박하기’, ‘공공물건 부수기’, ‘물건 훔치기’, ‘음란비디오나 잡지보기’의 7개로 나누어 그 경험정도와 허용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경우 비행경험정도는 삼국중 가장 높았고, 허용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공물건 부수기’(한국-19.8%, 중국-27.8%, 일본-9.5%)를 제외한 모든 비행영역에서 한국청소년의 경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술 마시기’(한국-55.4%, 중국-28.7%, 일본-30.9%), ‘카드나 화투 등 도박하기’(한국-45.7%, 중국-7.7%, 일본-25.7%), ‘물건 훔치기’(한국-24.0%, 중국-1.6%, 일본-6.5%)는 중국·일본과 20% 이상의 격차를 보일 정도로 그 정도가 훨씬 높았다. 한국에서 가장 경험정도가 높은 것은, ‘술 마시기’(55.4%)이었고, ‘도박하기’(45.7%),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4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허용도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7.29%가 ‘술 마시기’는 마시는 사람의 자유의사라는 허용적인 입장을 취해 허용도가 가장 높았다. 그밖에 ‘담배 피우기’(49.7%), ‘도박하기’(49.1%), ‘가출하기’(49.5%) 등도 높은 허용도를 보였는데, 비행에 대한 허용도가 높을수록 경험정도도 증가해 비행경험정도와 허용도간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비행경험정도에 있어 ‘술 마시기’(30.9%), ‘도박하기’(25.7%),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23.7%) 순으로 나타나 한국보다 훨씬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그 순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적 낮은 경험정도와는 달리 비행에 대한 허용도는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82.3%가 ‘음란 비디오나 잡지 보기’는 보는 사람의 자유라는 허용적인 견해를 가졌고, ‘가출하기’(78.5%), ‘도박하기’(67.6%), ‘술 마시기’(66.0%), ‘담배 피우기’(50.2%) 등도 모두 과반수가 넘는 허용도를 나타내 일본청소년이 삼국중 비행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높은 비행 허용도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낮게 나타난 비행경험정도는, 일본청소년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국과는 달리 성적이 비교적 높은 인문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술 마시기’(28.7%)와 ‘공공물건 부수기’(27.3%)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0% 내외의 응답율을 보여 삼국중 비행경험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허용도에 있어서도 ‘술 마시기’(43.2%)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0~20%의 낮은 허용도를 나타내 비행에 대한 허용도가 삼국중 가장 낮았다. 특히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의 경우 응답자의 90.6%가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 허용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처럼 중국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비행경험정도도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5) 청소년폭력

한·중·일 청소년의 폭력을 학교나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정도, 실제 폭력행사 경험, 폭력발생의 시기와 장소 등 3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삼국청소년 모두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여러 형태의 폭력이 자주 혹은 가끔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학교 및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높은 발생빈도와는 달리 본인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경험여부에 있어서는 삼국 모두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 청소년폭력은 실제로 소수의 문제학생에 의해 빈번히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주변에서 가끔, 혹은 자주 발생하는 폭력으로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67.6%)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한 사람을 따돌리기’(66.0%),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47.5%)도 비교적 발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발생하는 폭력의 형태로는 ‘집단으로 패싸움하기’(26.8%)를 들었다. 한편,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경험은 10% 내외의 낮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18.3%)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경우엔, 가끔, 혹은 자주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국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68.1%)를 들었고, 한국에서 낮은 응답율을 보였던 ‘집단으로 패싸움하기’(53.7%)도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발생하는 폭력의 형태로는 ‘폭력을 휘둘러 금품 빼앗기’(10.4%)를 들었고,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경험에 있어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0% 내외의 낮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폭력으로 돈으로 빼앗은 적이 있다’(12.3%)가 가장 높게,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7.0%)가 한국과 반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가끔, 혹은 자주 발생하는 폭력으로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

기'(54.0%), '집단으로 패싸움하기'(43.5%)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가장 적게 발생하는 폭력의 형태로는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기'(4.6%),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6.3%)를 들었다. 실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경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 삼국중 폭력사용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폭력형태로 '매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가 11.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5% 미만의 경험율을 보였다.

6) 친구관계

한·중·일 청소년들은 그들의 친구관계에 비교적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중 한국은 82.3%, 중국은 87.0%, 일본은 91.0%가 친구관계에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을 하여, 삼국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친구관계 만족도와 관련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문항에는 삼국청소년 모두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한국-20.3%, 중국-9.7%, 일본-20.5%).

이상의 결과로 국가간 비교를 해 보면, 한국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청소년의 과반수 이상(한국-53.7%, 중국-21.9%, 일본-32.3%)이 주변에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주변사람들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주변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한국-28.7%, 중국-3.5%, 일본-20.5%),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도 않는다(한국-28.8%, 중국-10.6%, 일본-23.1%)는 등 주변친구들로부터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의 정도가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중국청소년들은 전체응답자의 90%이상이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해 친구와의 친밀도가 삼국중 가장 높았고, 한국과는 달리 주변친구들에 대한 불만족도는 삼국중 가장 낮았으며, 친구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주변친구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의 정도도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나 중국청소년이 가장 건전하고 진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91.0%가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해 삼국중 친구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변친구들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2.3%,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5명중 1명꼴로 나타나 일본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진정한 친구관계가 아닌 표면적·의례적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

7) 자아관

한·중·일 청소년의 자아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중 한국은 44.2%, 중국은 68.1%, 일본은 48.1%가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불만족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의 경우, 자아만족도가 삼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높은 열등의식과 변화욕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의 41.2%(중국-4.0%, 일본-36.1%)가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며, 63.6%(중국-41.5%, 일본-56.0%)가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해 삼국중 가장 자아비판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68.1%가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삼국중 자아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청소년중 아주 극소수(4.0%)만이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변화욕구도 삼국중 가장 낮았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48.1%가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여, 불만족에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10명중 3명 이상이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두 명중 한 명꼴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응답해 한국 다음으로 자아비판적이었다.

8) 직업관

한·중·일 청소년의 직업관을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일’에 대한 사

고방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삼국청소년은 비교적 건전한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청소년 모두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한국-61.3%, 중국-58.5%, 일본-53.7%)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한국-71.9%, 중국-74.8%, 일본-42.0%)는 견해를 가져 장래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일본은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회사창업을 희망(한국-55.8%, 중국-71.9%, 일본-22.6%)해 창업정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직업선택시 흥미와 적성 이외에 높이 고려한 것은 ‘안정된 수입’(28.2%)이었으며,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는 직업(한국-1.9%, 중국-20.4%, 일본-13.0%)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국 중 중요한 책임에 대한 기피경향이 가장 높았다.

중국청소년은 전체응답자의 74.8%가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여 삼국중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는 달리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는 직업(20.4%)을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다음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42.0%가 장래 구직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삼국중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점차 일 지향에서 여가지향으로 의식이 전환되어 가는 일본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청소년은 수입이 좋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직업(20.8%)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고 싶은 희망은 삼국 중 가장 낮았다.

9) 가치관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속하지만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가치의식도 각기 다른 양상을 띄었다.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방식 하에 강한 효사상이 지배적인 중국청소년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자신의 권리주장이 확실하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고, 현재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응답자의 87.2%(중국-35.2%, 일본-82.7%)가 자신이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응답해 삼국중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재량권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도 삼국중 가장 낮은 빈도율을 보였다. 중국청소년의 87.6%, 일본청소년의 84.2%가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청소년은 61.8%의 응답율을 보여, 삼국중 가장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가장 큰 걱정이나 고민거리는 66.7%가 공부·성적 및 진학을 꼽아 공부와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삼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효사상이 강하고,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가 삼국중 가장 높은 중국 청소년들은 삼국중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장 낮아 비록 자신이 번 돈이라도 개인소유가 아닌 가족공동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도 삼국중 가장 높아 87.6%의 중국청소년이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국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삼국중 장래에 대한 준비를 가장 확고히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띄었다.

일본청소년은 삼국중 가장 현재지향적이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 낙천적인 성향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서구적 사고방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그저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삼국중 가장 현재지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한국·중국과 마찬가지로 공부·성적 및 진학을 꼽긴 했지만, 그 비율이 월등히 낮았고, 반면 별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은 한국·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삼국중 가장 낙천적인 경향을 띠었다.

한편 결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삼국중 가장 개방적이고 서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한국(63.3%)과 중국(62.3%) 청소년에 비해 일본청소년(47.9%)들이 결혼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미 경제적인 선진화를 이룩한 국가로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져 독신자가 증가해 가는 추세이고,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화됨으로써 꼭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생활에서 얻는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결과의 요약과 같이 한·중·일 삼국의 청소년들은 각국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그들의 인식, 가치, 행동 측면에서 특색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결과 나타난 삼국 청소년의 가치특성을 중심으로 각국의 청소년 의식구조의 대표적 유형을 구분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한국청소년은 삼국중 가장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왜곡되어 있는 갈등적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입시전쟁, 잦은 시험과 서열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 그로 인한 부모의 강한 통제 및 부모와의 마찰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점차 파행화 되어 가는 한국의 교육제도하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심리적 발달이 심히 왜곡되고 억압된 한국의 청소년은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성취동기를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의식에 있어서도 상당 정도 비판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에겐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부와 권력이면 무엇이든 해결되고,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

이 청소년들 사이에 매우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지니게 된 것은 우리사회의 모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관을 정립하여, 미래사회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줘야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2) 중국의 청소년들은 개방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경제적으로 갈등상황에 처해있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적응적 청소년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중국의 유교적 사고방식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억제되고,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계층구조를 지닌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투철한 국가관이 청소년들의 가치체계에 내면화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나 사회전체의 공익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희망적인 의식성향을 갖는 등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3) 삼국중 가장 먼저 경제적 선진화를 이룩하여 경제대국의 신화를 이루어낸 일본의 청소년들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삼국중 가장 현재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유형화된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해 서구의 향락적인 문화패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의식성향은 공동체적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성향을 갖는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물질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두며, 여가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일본청소년들은 혈연을 중시여기는 가족주의, 부모자식간의 의존관계를 중시하는 효의식, 생산하고 절약하는 미덕을 지닌 전통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고, 개방주의, 감성주의, 경제주의, 여가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없는 현실추구형이므로, 자신의 확고한 소신이 따로 있

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 성향을 지녀, 문제상황과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국 청소년 의식구조의 유형별 분석은 삼국 청소년의 의식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형 분류해 본 것이지, 일반화된 절대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으로 가장 억압되어 있는 갈등적 청소년으로 분류했지만, 부모에 대한 강한 효의식, 투철한 직업관 등 비교적 건전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건강한 의식을 지닌 사회인으로 적응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소지하고 있고, 반면 적응적 청소년으로 유형화된 중국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 삶에 대한 현실지향적 태도 등 문제성향과 갈등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물질중심의 현재지향적인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개인위주의 충동적이고 향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우선으로 꼽은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과는 달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를 우선시 하는 등 비물질주의(postmaterialism), 공동체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서 보이는 주요한 특징적인 현상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반영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제반 사회환경의 변동에 따라 계속 변화해 가는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3. 맺음말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동아시아권 국가로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산업화의 시기와 사회문화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 삼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식, 가치, 행동측면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삼국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기 다른 사회환경에 처해 있으며, 개방화·산업화가 한창 진행중인 중국은 한국의 궤적을, 한국은 또 일본의 궤적을 쫓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청소년의 가치관은 한국청소년의 과거를, 일본 청소년의 가치관은 한국청소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개방화·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급속한 사회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이지만 청소년들의 사고나 의식은 전통적인 유교정신의 영향으로 보수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이 아직까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한국 특유의 복잡한 사회적 상황이 청소년들의 의식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었으며, 개인적 이기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서구적 사고방식 등에서 일본청소년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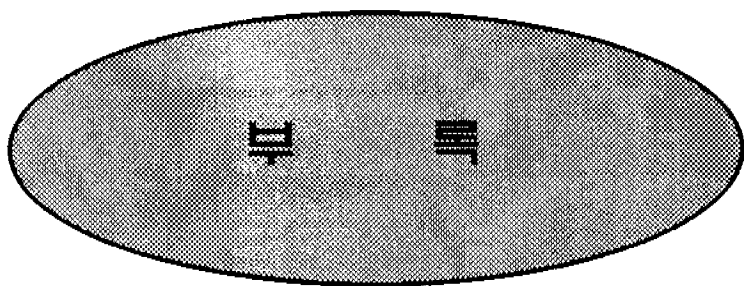
본 연구는 비교적 그 규모가 방대했음에도 단기간에 진행된 조사 연구이고, 한·중·일 삼국의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연구방법을 설문조사로만 한정하였기에 삼국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 등,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삼국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성향 전반을 비교하여 그 주요한 특징을 밝혀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차후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 할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석진(1995), 청소년 자살 급증, 일 정부 비상, 뉴스피플 183(1995년 1월 12일), pp.54-55.
- 고성혜(1995), 청소년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5-27.
- 공성진(1995), 한·중·일 문화인식과 동북아의 미래, 기업경영 443호 (1995년 3월호), 1995, pp.94-97.
- 김복호(1991),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본 한국전통사상과 일본문화, 자유 213(1991년 5월), pp.71-78.
- 김영규 외(1987), 한·중·일의 문화와 의식구조, 전통문화 173(1987년 2월), pp.29-49.
- 김용숙(1985), 한일 청소년범죄, 얼마나 심각한가?, 광장 141(1985년 5월), pp.211-219.
- 김용운(1994),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역사적 체험과 민족성의 논리-, 서울: 한길사.
- 김종덕(1982), 일본사회내의 학력과 역할 1, 부산상공 9(2), pp.54-58.
- 김태호(1994),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나카네 지에 저, 이광규 역(1992), 일본사회의 성격, 서울: 일지사.
- 노동선(1993), 중국문화의 가치체계와 민족성 연구 시론, 중국연구 14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문용린(198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문화정(1985), 일본문화, 그 원류에 대한 고찰, 청주대학교 국제문화연구 2(1985년 1월), pp.61-75.
- 박종돈(1994), 동양적 유교사상 이후의 경영실태와 행동 -한국·중국·일본의 문화비교분석-, 인천전문대논문집 21권(1994년 12월호).

- 비탈리 에이 루빈 저, 임철규 역(1988),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자, 묵자, 상양, 장자의 사상 연구-, 서울: 현상과 인식.
- 삼성복지재단(1994), 한국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생활세계적 접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 서현섭·키yota 하루히토(1995), 한국인이 보는 일본사회, 일본인이 보는 한국사회, 한세정책 14(1995년 8월), pp.81-95.
- 시바 료타로·도널드 킨 저, 이태욱·이영정 역(1993), 일본인과 일본 문화, 서울: 을유문화사.
- 오동광(1980), “일본·일본인·일본사회”에 대한 서평, 월간경향 182(1980년 4월), pp.256-258.
- 오영태·강상욱(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대 논문집 제 29집 1호, pp.197-245.
- 溫元凱 저, 고영근 역(1993), 중국인의 의식구조 개조, 서울: 교보문고.
- 윤탁·김진원(1985), 문화에 대한 편견 아직도 깊다 -일본문화의 유모-, 예향 5(1985년 2월), pp.65-67.
- 이광규(1994), 전통 일본가족의 구조적 특징, Modern Praxis 13(1994년 7월), pp.81-95.
- 이문규(1989), 중국의 청소년의 사상정치교육, 한양대학교 중소연구 41(1989년 3월), pp.127-186.
- 이영호(1981),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 3권.
- 이윤구(1990), 학업청소년·교사·부모의 의식위기 -미·일·서독 등의 비교조사를 중심으로-, 서울교육 118(1990년 5월), pp.45-54.
-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5-33.
- 이학규, 중국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전병석(1986), 청소년비행 문제의 한·일간 비교, 청소년 1986년 12월호, pp.33-40.
- 전병재(1982), 국가발전과 지식인의 의식구조, 국민의식과 국가발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진성(1990), 전후 일본의 가족문제와 가족정책, 현대사회 37(1990년 12월), pp.195-213.
-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현희(1992), 한국과 일본의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비교, 동국대학교 동의론집 19(1992년 2월), pp.291-305.
-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재석(1990),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우리나라 청소년을 세계 10개국과 비교한 국제조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 황정규(1979),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Hirsh, Michael(1995), 일본인의 정신적 방향, 뉴스위크 180(1995년 5월 31일), pp.14-18.
- Kluckhohn & Strodtbeck(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 New York: Row Perterson and Co.
- Marin J. Levy, 「The Family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Mass: Havard Press, 1948
- 경향신문, 1994년 5월 9일자.
- 동아일보, 1996년 4월 17일자.
- 조선일보, 1993년 6월 28일자.
- 조선일보, 1994년 4월 26일자.
- 한국일보, 1994년 12월 7일자.



1. 교차집계표

2. 설문지

부록 1. 교차집계표

< 표 3 > 가정생활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χ^2 (df)		
		한	중	인	한	중	일	한	중	인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22.5	49.9	31.0	57.2	43.4	53.9	16.8	5.3	11.8	3.6	1.4	3.3	19.18***	25.24***	59.47***
	고	15.2	40.0	17.0	60.7	50.0	61.1	20.8	8.2	15.8	3.4	1.9	6.2	(3)	(3)	(3)
학년별	중1	34.2	54.9	44.3	54.6	39.0	46.0	10.5	4.6	6.8	0.7	1.5	3.0	57.44*** (15)	56.67*** (15)	122.71*** (15)
	중2	23.5	45.2	30.5	59.5	46.6	55.5	13.5	6.5	11.5	3.5	1.6	2.5			
	중3	17.8	50.0	23.6	56.2	44.3	57.2	21.5	4.8	14.9	4.6	0.9	4.2			
	고1	15.2	43.1	21.7	64.9	46.7	58.1	16.9	8.3	14.5	3.0	1.9	5.7			
	고2	15.7	33.1	12.8	58.6	54.8	66.4	22.3	10.6	16.6	3.4	1.4	4.2			
	고3	14.5	45.8	17.1	59.0	47.1	55.4	22.8	4.6	16.7	3.7	2.6	10.8			
성 별	남	20.3	43.3	20.2	56.0	48.1	58.8	19.6	6.5	15.4	4.0	2.0	5.6	6.46 (3)	4.72 (3)	16.18** (3)
	여	17.4	46.5	27.2	61.5	45.3	56.3	17.9	7.0	12.4	3.1	1.2	4.1			
학 교 성격별	상·중상	23.5	47.5	27.9	59.7	44.0	57.5	15.0	7.0	10.9	1.8	1.5	3.6	51.20*** (6)	6.17 (6)	52.54*** (6)
	중	17.9	45.3	25.6	60.7	47.3	59.8	18.4	6.0	11.5	3.0	1.4	3.1			
	중하·하	14.8	41.9	18.5	53.5	48.3	53.9	24.5	7.8	19.7	7.1	2.1	7.9			
전 계		18.9	45.0	23.6	58.8	46.5	57.4	18.7	6.7	13.8	3.6	1.6	4.8	99.9	99.8	99.7

p<.01, *p<.001

(단위 : %)

< 표 4 >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83.5	97.2	63.8	16.5	2.8	36.2	2.77 (1)	1.00 (1)	0.97 (1)
	고	80.5	97.9	61.6	19.5	2.1	38.4			
학년별	중1	91.4	96.2	72.3	8.6	3.8	27.7	27.67*** (5)	5.02 (5)	12.86* (5)
	중2	87.8	97.7	63.4	12.2	2.3	36.6			
	중3	77.4	97.9	59.1	22.6	2.1	40.9			
	고1	82.7	97.8	62.2	17.3	2.2	37.8			
	고2	78.3	97.4	62.4	21.7	2.6	37.6			
	고3	80.9	98.7	59.3	19.1	1.3	40.7			
성 별	남	81.8	97.1	58.4	18.2	2.9	41.6	0.04 (1)	1.38 (1)	15.37*** (1)
	여	82.2	97.9	66.9	17.8	2.1	33.1			
학 교 성격별	상·중상	85.1	98.2	66.3	14.9	1.8	33.7	22.35*** (2)	2.67 (2)	15.97*** (2)
	중	83.9	97.1	65.7	16.1	2.9	34.3			
	중하·하	75.1	98.1	56.3	24.9	1.9	43.7			
전 계		81.9	97.2	62.3	17.9	2.4	37.1	99.8	99.6	99.4

*p<.05, ***p<.001

(단위 : %)

< 표 5 > 부모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

		그렇다			아니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3.0	35.7	17.0	77.0	64.3	83.0	7.21** (1)	58.51*** (1)	17.16*** (1)
	고	18.0	21.1	10.6	82.0	78.9	89.4			
학년별	중1	28.9	41.9	17.4	71.1	58.1	82.6	35.15*** (5)	76.80*** (5)	29.14*** (5)
	중2	26.6	35.9	21.8	73.4	64.1	78.2			
	중3	18.2	28.2	12.9	81.8	71.8	87.1			
	고1	24.2	19.3	10.3	75.8	80.7	89.7			
	고2	18.6	20.8	10.5	81.4	79.2	89.5			
	고3	11.7	23.6	11.6	88.3	76.4	88.4			
성 별	남	20.3	32.8	12.3	79.9	67.2	87.7	0.01 (1)	17.94*** (1)	3.24 (1)
	여	20.6	24.7	15.1	79.4	75.3	84.9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9.5	25.3	12.8	80.5	74.7	87.2	1.54 (2)	10.05** (2)	0.45 (2)
	중	21.9	28.3	14.0	78.1	71.7	86.0			
	중하·하	19.6	33.7	13.1	80.4	66.3	86.9			
전 계		20.5	28.5	13.7	79.3	71.0	86.1	99.8	99.5	99.8

p<.01, *p<.001

(단위 : %)

< 표 6 >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86.9	98.1	70.9	13.1	1.9	29.1	16.61*** (1)	1.35 (1)	7.61** (1)
	고	80.0	98.7	65.1	20.0	1.3	34.9			
학년별	중1	94.7	97.4	76.0	5.3	2.6	24.0	61.20*** (5)	5.29 (5)	15.66** (5)
	중2	82.3	98.6	67.4	17.7	1.4	32.6			
	중3	88.1	98.2	70.7	11.9	1.8	29.3			
	고1	73.4	99.4	68.5	26.6	0.6	31.5			
	고2	77.1	98.6	64.5	22.9	1.4	35.5			
	고3	89.2	98.0	61.0	10.8	2.0	39.0			
성 별	남	88.9	98.1	65.0	11.1	1.9	35.0	40.10*** (1)	0.73 (1)	7.47** (1)
	여	78.2	98.6	70.8	21.8	1.4	29.2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83.4	98.8	70.1	16.6	1.2	29.9	4.62 (2)	1.06 (2)	20.76*** (2)
	중	85.2	98.3	71.7	14.8	1.7	28.3			
	중하·하	80.6	98.1	60.8	19.4	1.9	39.2			
전 계		83.0	98.1	67.1	16.4	1.6	31.8	99.6	99.7	98.9

p<.01 *p<.001

(단위 : %)

< 표 7 >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인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68.2	27.2	52.9	31.8	72.8	47.1	26.33*** (1)	0.27 (1)	2.76 (1)
	고	56.9	28.2	49.2	43.1	71.8	50.8			
학년별	중1	71.1	26.0	50.2	28.9	74.0	49.8	43.44*** (5)	8.71 (5)	11.01 (5)
	중2	61.5	31.5	56.3	38.5	68.5	43.7			
	중3	72.6	23.2	51.9	27.4	76.8	48.1			
	고1	53.5	29.0	48.2	46.5	71.0	51.8			
	고2	61.5	29.5	53.2	38.5	70.5	46.8			
	고3	54.9	25.4	43.2	45.1	74.6	56.8			
성 별	남	67.5	33.8	51.7	32.5	66.2	48.3	19.88*** (1)	38.99*** (1)	0.47 (1)
	여	57.6	21.9	50.2	42.4	78.1	49.8			
학 교 성적별	상·중상	60.4	24.7	51.5	39.6	75.3	48.5	4.31 (2)	27.71*** (2)	8.04* (2)
	중	62.5	25.7	48.2	37.5	74.3	51.8			
	중하·하	66.3	37.2	55.6	33.7	62.8	44.4			
전 계		62.4	27.5	50.2	37.4	71.8	48.3	99.8	99.2	98.6

*p<.05, ***p<.001

(단위 : %)

< 표 8 >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34.7	7.9	54.4	65.3	92.1	45.6	6.41* (1)	0.00 (1)	0.01 (1)
	고	40.4	7.8	54.5	59.6	92.2	45.5			
학년별	중1	23.0	8.4	45.5	77.0	91.6	54.5	35.90*** (5)	1.08 (5)	11.19* (5)
	중2	37.1	7.9	57.6	62.9	92.1	42.4			
	중3	36.7	7.1	57.0	63.3	92.9	43.0			
	고1	49.8	7.5	56.7	50.2	92.5	43.3			
	고2	38.7	7.4	52.7	61.3	92.6	47.3			
	고3	33.3	8.9	53.9	66.7	91.1	46.1			
성 별	남	33.4	8.3	51.4	66.6	91.7	48.6	13.48*** (1)	0.90 (1)	6.97** (1)
	여	41.5	7.3	57.3	58.5	92.7	42.7			
학 교 성적별	상·중상	34.5	6.7	53.5	65.5	93.3	46.5	15.06*** (2)	2.13 (2)	13.15** (2)
	중	36.0	8.4	51.2	64.0	91.6	48.8			
	중하·하	45.0	8.8	60.5	55.0	91.2	39.5			
전 계		37.5	7.8	54.0	62.4	91.8	45.1	99.9	99.6	99.1

*p<.05, **p<.01, ***p<.001

(단위 : %)

< 표 9 >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52.6	16.8	44.1	47.4	83.2	55.9	0.19 (1)	12.32*** (1)	0.33 (1)
	고	51.4	22.7	45.4	48.6	77.3	54.6			
학년별	중1	36.8	15.3	36.6	63.2	84.7	63.4	48.61*** (5)	13.87* (5)	17.20** (5)
	중2	48.4	17.7	40.2	51.6	82.3	59.8			
	중3	61.1	17.3	51.6	38.9	82.7	48.4			
	고1	41.9	21.6	46.5	58.1	78.4	53.5			
	고2	53.1	22.5	44.5	46.9	77.5	55.5			
	고3	58.3	24.3	44.6	41.7	75.7	55.4			
성 별	남	52.2	20.3	41.0	47.8	79.7	59.0	0.01 (1)	0.32 (1)	10.91*** (1)
	여	51.8	19.3	48.4	48.2	80.7	51.6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43.8	16.0	38.0	56.2	84.0	62.0	36.13*** (2)	11.17** (2)	15.34*** (2)
	중	53.1	19.9	43.8	46.9	80.1	56.2			
	중하·하	61.6	23.7	50.6	38.4	76.3	49.4			
전 계		51.7	19.5	44.6	47.9	79.8	55.1	99.6	99.3	99.7

* $p<.05$, ** $p<.01$, *** $p<.001$

(단위 : %)

< 표 10 >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38.6	34.3	15.3	61.4	65.7	84.7	5.61* (1)	41.11*** (1)	28.42*** (1)
	고	33.3	22.1	7.7	66.7	77.9	92.3			
학년별	중1	41.4	38.7	23.1	58.6	61.3	76.9	10.80 (5)	60.00*** (5)	51.26*** (5)
	중2	37.6	35.1	14.0	62.4	64.9	86.0			
	중3	38.4	28.3	11.8	61.6	71.7	88.3			
	고1	29.6	24.5	9.6	70.4	75.5	90.4			
	고2	32.6	24.8	6.5	67.4	75.2	93.5			
	고3	37.5	15.5	6.3	62.5	84.5	93.8			
성 별	남	37.1	32.9	14.2	62.9	67.1	85.8	1.06 (1)	21.43*** (1)	16.23*** (1)
	여	34.8	24.0	8.5	65.2	76.0	91.5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33.9	24.2	8.5	66.1	75.8	91.5	6.31* (2)	24.13*** (2)	13.90*** (2)
	중	35.1	27.2	9.5	64.9	72.8	90.5			
	중하·하	40.8	36.7	14.9	59.2	63.3	85.1			
전 계		35.3	28.3	11.3	62.7	71.3	88.2	98.0	99.6	99.5

* $p<.05$, *** $p<.001$

(단위 : %)

< 표 11 >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그렇다			아니다			χ^2 (df)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교급별	중	55.5	59.5	81.7	44.5	40.5	18.3	0.66 (1)	0.23 (1)	9.53** (1)
	고	57.4	58.5	76.0	42.6	41.5	24.0			
학년별	중1	61.2	61.5	82.9	38.8	38.5	17.1	29.91*** (5)	7.91 (5)	18.08** (5)
	중2	61.5	57.8	83.8	38.5	42.2	16.3			
	중3	48.8	59.2	79.4	51.2	40.8	20.6			
	고1	65.1	58.6	77.7	34.9	41.4	22.3			
	고2	57.1	54.5	77.8	42.9	45.5	22.2			
	고3	50.6	63.9	70.0	49.4	36.1	30.0			
성 별	남	50.7	51.3	73.2	49.3	48.7	26.8	25.18*** (1)	49.94*** (1)	37.00*** (1)
	여	62.1	66.1	84.3	37.9	33.9	15.7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64.1	63.8	82.6	35.9	36.2	17.4	34.44*** (2)	16.20*** (2)	13.96*** (2)
	중	56.0	60.0	80.1	44.0	40.0	19.9			
	중하·하	46.7	52.4	73.5	53.3	47.6	26.5			
전 세		56.3	58.7	78.4	43.5	40.8	21.1	99.7	99.4	99.5

p<.01, *p<.001

(단위 : %)

< 표 12 > 학교생활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χ^2 (df)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교급별	중	9.1	24.5	33.6	61.4	60.4	50.5	22.3	12.8	50.5	7.2	2.3	4.0	40.08*** (3)	149.93*** (3)	71.58*** (3)
	고	4.9	8.3	18.7	53.9	60.9	54.8	33.8	25.2	18.9	7.4	5.6	7.6			
학년별	중1	10.5	33.8	44.3	72.4	54.8	47.2	13.2	9.9	6.8	3.9	1.5	1.7	98.82*** (15)	205.90*** (15)	129.17*** (15)
	중2	13.5	22.5	31.5	63.0	63.6	53.9	18.4	11.7	9.0	5.1	2.1	5.6			
	중3	5.0	16.1	29.2	56.6	63.0	49.6	28.4	17.6	17.2	10.0	3.3	4.0			
	고1	6.6	9.9	22.7	58.3	63.1	55.4	28.8	21.8	16.0	6.3	5.2	5.9			
	고2	3.7	6.6	16.1	50.3	63.2	58.2	38.3	25.0	19.4	7.7	5.2	6.3			
	고3	4.6	8.8	17.0	53.7	55.2	46.9	33.6	29.4	23.2	8.0	6.5	12.9			
성 별	남	7.7	17.5	23.3	58.5	60.9	53.2	25.8	18.2	16.2	8.1	3.4	7.4	6.67 (3)	2.20 (3)	13.55** (3)
	여	6.3	15.7	28.5	56.8	60.7	52.2	30.3	19.5	15.0	6.6	4.1	4.4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0.0	19.1	27.7	62.9	62.2	53.6	22.1	16.4	12.8	5.1	2.2	5.9	68.84*** (6)	32.03*** (6)	41.98*** (6)
	중	5.7	16.3	27.7	59.5	62.5	55.0	29.3	18.2	13.2	5.4	3.0	4.1			
	중하·하	5.3	14.4	21.1	48.1	55.8	48.5	33.5	23.1	22.0	13.2	6.6	8.4			
전 세		7.0	16.6	25.8	57.7	60.5	52.6	28.0	18.8	15.5	7.3	3.9	5.8	99.9	99.7	99.7

p<.01, *p<.001

(단위 : %)

< 표 13 >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32.3	55.2	58.5	46.9	32.1	33.5	15.9	10.3	6.5	4.9	2.4	1.6	11.16*	46.81***	27.53***
	고	37.2	61.7	67.6	46.3	33.7	28.7	11.3	4.0	3.2	5.2	0.6	0.5	(3)	(3)	(3)
학년별	중1	28.9	45.3	52.2	47.4	35.4	35.3	15.1	15.6	9.5	8.6	3.6	3.0	46.54*** (15)	104.00*** (15)	49.25*** (15)
	중2	26.8	55.7	59.3	49.9	33.1	32.3	20.0	9.8	6.5	3.3	1.4	1.9			
	중3	37.8	65.9	61.4	44.3	27.0	33.3	12.9	4.7	4.7	5.0	2.4	0.5			
	고1	36.4	63.5	66.7	48.0	30.9	30.0	11.6	5.0	3.4	4.0	0.6	0.0			
	고2	32.0	60.0	68.9	48.6	34.8	27.6	12.3	4.3	2.8	7.1	0.9	0.7			
	고3	43.5	61.9	67.6	42.3	35.4	28.0	9.9	2.3	3.6	4.3	0.3	0.9			
성 별	남	35.9	58.4	64.9	44.0	32.8	30.1	14.3	6.9	4.1	5.8	1.9	0.9	5.65	1.17	3.44
	여	33.6	58.5	61.7	48.9	32.9	31.7	12.9	7.3	5.5	4.5	1.3	1.1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38.9	61.9	68.6	47.0	31.8	28.6	10.0	5.1	2.0	4.0	1.2	0.8	22.87*** (6)	17.88** (6)	11.97 (5)
	중	32.8	58.9	61.9	48.3	32.5	32.3	14.5	7.4	4.6	4.4	1.3	1.2			
	중하하	32.8	53.1	63.5	43.7	34.9	29.5	15.8	9.4	6.1	7.7	2.7	1.0			
전 체		34.6	57.9	62.9	46.2	32.6	30.8	13.6	7.1	4.7	5.1	1.6	1.0	99.5	99.2	99.5

*p<.05, **p<.01, ***p<.001

(단위 : %)

< 표 14 >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1.2	9.7	9.2	25.8	25.8	16.6	43.3	49.6	44.2	19.6	14.9	30.1	9.61*	22.48***	27.46***
	고	7.9	4.7	4.2	26.2	25.9	15.9	48.4	55.1	42.3	17.5	14.4	37.6	(3)	(3)	(3)
학년별	중1	8.6	11.5	12.9	23.7	22.2	15.9	43.4	50.9	45.1	24.3	15.4	26.2	38.02*** (15)	32.51*** (15)	56.58*** (15)
	중2	7.7	9.6	10.2	27.6	25.8	14.6	47.0	49.9	45.7	17.8	14.8	29.5			
	중3	15.0	7.7	6.2	25.2	30.0	18.6	40.3	47.8	42.4	19.5	14.5	32.8			
	고1	7.9	5.0	2.1	25.2	25.1	17.8	52.3	54.5	42.4	14.6	15.4	37.7			
	고2	8.0	4.5	4.7	28.4	26.7	12.2	48.4	54.0	44.5	15.2	14.9	38.6			
	고3	7.7	4.7	7.1	24.7	25.7	19.6	44.8	57.3	37.3	22.8	12.3	36.0			
성 별	남	11.9	8.8	7.7	26.3	27.1	19.2	42.1	47.6	41.5	19.8	16.5	31.6	16.31**	21.53***	18.85***
	여	7.7	5.8	5.6	25.4	24.8	13.3	49.5	56.5	44.7	17.3	12.9	36.4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0.9	7.0	6.7	28.8	26.9	20.4	42.7	53.4	40.9	17.6	12.7	31.9	14.65* (6)	8.14 (6)	20.52** (6)
	중	9.6	7.5	5.7	27.2	26.0	16.4	45.9	52.4	46.5	17.3	14.1	31.4			
	중하하	8.7	7.1	7.4	20.9	24.0	13.1	48.7	50.6	40.3	21.7	18.3	39.3			
전 체		9.7	7.2	6.6	25.9	25.6	16.2	45.6	51.8	43.0	18.4	14.5	33.9	99.4	(99.1)	99.6

*p<.05, **p<.01, ***p<.001

(단위 : %)

< 표 15 >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6.4	6.1	29.5	29.2	15.9	35.7	29.8	38.8	26.2	14.7	39.2	8.7	70.17***	61.57***	71.62***
	고	37.8	7.8	46.3	35.3	24.2	32.4	16.3	43.4	15.5	10.6	24.6	5.8	(3)	(3)	(3)
학년별	중1	17.9	3.4	15.8	15.2	11.7	34.6	45.0	35.2	37.2	21.9	49.6	12.4	177.60***	114.39***	123.11***
	중2	19.0	5.8	36.6	31.7	15.2	32.9	29.8	43.6	22.7	19.6	35.4	7.8			
	중3	35.9	9.5	31.8	30.9	21.7	38.5	24.8	36.8	22.6	8.5	32.0	7.2			
	고1	34.4	7.7	41.6	32.8	20.4	36.4	15.9	44.9	16.0	16.9	27.0	5.9			
	고2	33.9	7.1	50.4	36.8	23.9	30.4	19.3	44.4	14.4	10.1	24.6	4.9			
	고3	45.1	9.0	47.1	36.1	29.2	29.3	13.6	40.2	16.4	5.2	21.6	7.1			
성 별	남	31.4	8.1	39.8	32.7	21.6	32.0	24.8	38.5	19.3	11.3	31.7	8.9	6.79	11.75**	13.47**
	여	33.1	5.7	36.8	31.8	18.1	35.9	21.0	43.6	21.9	14.1	32.5	5.5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33.1	6.7	35.6	33.1	18.7	35.3	21.5	40.6	20.2	12.2	34.0	9.0	5.62	5.35	5.56
	중	30.2	6.5	37.2	32.7	19.6	36.2	25.2	41.1	19.9	11.9	32.9	6.8			
	중하·하	33.5	7.3	40.6	30.7	22.3	31.9	21.7	41.8	20.3	14.0	28.6	7.2	(6)	(6)	(6)
전 계		31.9	6.9	38.1	32.0	19.8	33.9	22.8	40.7	20.5	12.7	31.8	7.1	99.4	99.2	99.7

p<.01, *p<.001

(단위 : %)

< 표 16 >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6.4	7.5	5.1	12.2	23.5	19.3	49.5	52.5	45.9	32.0	16.5	29.7	43.04***	37.22***	127.77***
	고	1.1	2.6	1.9	9.5	21.0	8.1	52.4	61.6	38.1	36.9	14.8	51.9	(3)	(3)	(3)
학년별	중1	5.9	12.6	7.4	16.4	26.7	26.0	48.7	47.4	47.2	28.9	13.4	19.5	87.39***	93.01***	188.44***
	중2	7.1	6.3	5.6	14.5	23.5	21.6	53.2	55.7	44.1	25.2	14.5	28.8			
	중3	5.9	3.3	3.5	8.9	19.9	13.7	46.8	54.3	46.5	38.3	22.6	36.3			
	고1	0.7	2.2	2.6	11.6	17.6	10.6	58.6	65.3	43.9	29.1	14.9	42.9			
	고2	1.1	2.1	0.7	8.0	22.4	6.3	55.1	59.9	35.4	35.7	15.6	57.6			
	고3	1.5	3.6	3.1	9.3	23.2	6.7	43.7	59.6	33.2	45.5	13.6	57.0			
성 별	남	5.4	6.5	4.5	11.9	20.9	15.3	48.8	54.7	39.8	33.8	17.9	40.4	17.48***	18.23***	13.21**
	여	2.1	3.8	2.5	10.0	23.6	11.5	52.9	59.0	43.8	35.0	13.7	42.2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2.2	4.5	4.2	11.0	25.6	10.1	54.7	55.8	40.8	32.1	14.2	44.8	14.45*	9.52	13.73*
	중	3.9	5.7	3.6	10.9	22.2	14.0	50.8	56.2	44.5	34.4	15.9	38.0			
	중하·하	5.3	5.0	2.8	11.2	18.8	14.0	45.8	59.4	38.2	37.7	16.9	45.1	(6)	(6)	(6)
전 계		3.8	5.1	3.4	10.9	22.1	13.4	50.7	56.5	41.5	34.3	15.5	41.0	99.5	99.2	99.4

*p<.05, **p<.01, ***p<.001

(단위 : %)

< 표 17 >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14.2	7.0	8.8	26.7	11.9	23.9	30.1	43.5	38.3	29.0	37.6	29.0	8.15*	19.35***	6.91
	고	12.6	3.9	9.8	29.9	11.8	23.9	33.1	39.4	33.2	24.3	44.9	33.1	(3)	(3)	(3)
학년별	중1	16.6	8.4	10.7	29.8	10.4	28.2	25.8	49.6	34.6	27.8	31.6	26.5	29.70*	43.35***	32.95**
	중2	11.0	6.8	8.7	11.0	13.1	21.5	33.7	43.7	39.6	30.7	36.4	30.2			
	중3	16.1	5.6	7.7	27.3	12.2	23.3	28.6	36.2	39.5	28.0	46.0	29.5			
	고1	10.9	4.4	9.6	28.5	10.8	22.0	34.1	37.6	37.5	26.5	47.2	31.0			
	고2	16.0	4.2	7.7	32.7	12.0	23.5	32.4	39.2	30.3	18.9	44.6	38.5			
	고3	10.5	2.6	14.3	28.4	12.6	28.1	33.0	42.1	30.8	28.1	42.7	26.8			
성 별	남	14.8	7.2	11.1	28.7	11.4	25.8	30.0	40.0	32.9	26.5	41.5	30.2	3.93	13.64**	14.48**
	여	12.1	3.8	7.5	28.0	12.2	22.0	32.9	43.2	38.2	27.0	40.9	32.2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4.2	6.7	10.6	30.7	14.1	22.7	31.9	41.9	35.3	23.3	37.3	31.4	19.05**	13.17*	17.44**
	중	12.0	4.8	8.9	29.1	11.4	27.4	33.1	43.1	35.9	25.8	40.7	27.8			
	중하하	14.4	4.8	9.0	23.9	10.2	20.0	28.6	39.7	35.1	33.1	45.4	35.9			
전 체		13.4	5.4	9.3	28.2	11.8	23.8	31.4	41.2	35.5	26.7	40.8	31.0	99.6	99.2	99.6

*p<.05, **p<.01, ***p<.001

(단위 : %)

< 표 18 > 학교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7.4	10.1	8.5	22.0	27.5	24.0	38.9	42.8	40.1	31.7	19.6	27.4	32.87***	79.54***	37.87***
	고	2.8	3.7	4.5	17.2	17.4	18.4	46.3	52.9	38.8	33.7	26.0	38.3			
학년별	중1	10.6	12.8	10.3	25.2	29.6	27.5	33.1	41.4	37.3	31.1	16.2	24.9	44.44***	103.08***	70.10***
	중2	7.1	10.0	9.7	21.0	24.7	24.4	39.3	46.9	40.6	32.5	18.4	25.3			
	중3	6.6	7.1	6.5	21.7	28.6	21.7	40.5	39.3	41.4	31.3	25.0	30.4			
	고1	2.0	3.0	3.4	15.9	16.3	21.4	50.8	54.0	43.4	31.2	26.7	31.8			
	고2	3.7	3.1	3.5	17.7	19.7	15.7	45.4	51.1	37.1	33.1	26.1	43.7			
	고3	2.5	5.3	8.4	17.9	15.7	17.3	42.9	54.0	34.7	36.7	25.0	39.6			
성 별	남	7.0	8.1	7.5	18.8	21.7	18.8	41.4	45.8	37.6	32.8	24.4	36.1	14.29**	8.10*	15.10**
	여	3.3	6.1	5.4	20.4	23.4	23.1	43.7	49.4	41.4	32.7	21.1	30.2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5.4	7.2	6.7	22.2	27.4	17.7	44.7	46.6	38.8	27.7	18.9	36.8	21.14**	20.13**	12.19
	중	4.6	7.3	5.3	19.0	20.4	21.5	44.1	49.8	42.2	32.4	22.5	31.0			
	중하하	5.5	6.5	7.9	17.1	21.1	22.0	37.6	45.3	36.5	39.8	27.1	33.7			
전 체		5.1	6.9	6.4	19.5	22.4	20.9	42.3	47.2	39.3	32.5	22.5	32.9	99.6	98.9	99.5

*p<.05, **p<.01, ***p<.001

(단위 : %)

< 표 19 > 당신은 어느정도의 학력을 희망합니까?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학위			박사학위			$\chi^2(df)$		
	합	중	일	합	중	일	합	중	일	합	중	일	합	중	일	합	중	일
교급별	중	0.6	0.6	1.7	6.8	7.4	25.0	71.8	39.8	64.1	10.7	16.0	6.3	36.2	2.9	3.23	90.83***	12.65*
	고	0.3	0.2	0.9	6.0	2.9	29.8	71.1	58.3	58.2	10.6	14.3	6.6	24.2	4.4	(4)	(4)	(4)
학년별	중1	0.7	0.5	1.7	4.7	6.8	18.7	70.5	38.1	66.1	12.1	16.2	9.6	38.4	3.9			
	중2	0.5	1.2	2.6	5.2	9.6	28.8	71.8	39.3	62.8	15.1	16.6	3.8	7.4	33.3	1.9		
	중3	0.7	0.0	1.0	8.8	5.4	25.7	72.2	42.3	63.9	6.8	15.2	6.4	11.6	37.2	3.1	63.22***	45.15**
	고1	0.7	0.0	1.3	2.6	3.0	30.0	63.2	49.6	59.4	15.2	18.5	5.6	18.2	28.9	3.7	(20)	(20)
	고2	0.3	0.2	0.7	7.2	4.0	29.6	74.7	60.3	60.6	9.2	11.6	5.0	8.6	23.8	4.1		
성 별	고3	0.0	0.3	0.5	7.8	1.3	29.5	74.5	65.9	52.1	7.8	13.1	11.5	9.9	19.3	6.5		
	남	0.3	0.7	1.4	8.0	6.5	26.3	72.0	48.4	58.7	8.8	15.7	8.2	10.8	30.7	5.4	14.52***	27.10***
	여	0.6	0.1	1.2	4.8	4.1	28.6	70.9	50.7	63.4	12.3	15.0	4.8	11.4	30.1	2.0	(4)	(4)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0.2	0.1	1.1	2.9	1.5	18.1	62.4	39.2	61.0	14.7	18.8	10.9	19.8	40.4	8.9		
	중	0.3	0.0	0.8	3.4	3.9	22.2	78.0	52.7	68.7	11.0	14.8	5.9	7.3	28.6	2.3	213.17***	128.13***
	중하하	1.2	1.5	2.0	15.7	12.4	40.3	74.2	52.8	50.8	4.1	11.6	4.5	4.7	21.7	2.3	(8)	(8)
전 계	0.5	0.4	1.2	6.4	5.2	26.7	70.7	48.6	59.3	10.5	15.2	6.3	30.3	3.6	99.7	99.7	97.1	97.1

(단위 : %)

*p<.05, **p<.01, ***p<.001

< 표 20 >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0.6	4.8	1.8	11.1	35.0	29.9	56.7	47.1	46.3	31.6	13.0	22.0	31.96***	13.87**	45.00***
	고	0.2	3.9	0.5	7.1	42.4	18.6	49.7	43.3	52.7	43.0	10.5	28.2	(3)	(3)	(3)
학년별	중1	0.7	6.9	2.6	21.1	36.9	36.3	53.9	46.1	43.2	24.3	10.2	17.9	92.04***	34.97**	65.55***
	중2	1.1	3.3	1.3	13.0	32.2	27.7	59.5	49.5	44.3	26.4	15.0	26.8			
	중3	0.2	4.5	1.8	6.3	36.4	27.8	55.3	45.4	49.8	38.2	13.7	20.8			
	고1	0.7	3.0	0.5	10.0	39.2	20.6	48.5	45.6	54.7	40.9	12.2	24.2			
	고2	0.0	3.3	0.2	6.3	42.2	17.1	55.0	44.5	52.5	38.7	10.0	30.2			
	고3	0.0	5.6	0.9	5.3	46.4	18.0	45.2	38.8	49.5	49.5	9.2	31.5			
성 별	남	0.6	5.5	1.6	8.8	37.1	22.9	53.1	42.9	46.2	37.5	14.5	29.2	1.16	22.98***	22.08***
	여	0.3	3.3	0.6	9.2	40.2	25.0	53.4	47.3	53.0	37.1	9.2	21.4			
학 교 성적별	상·중·상	0.5	3.6	1.7	8.3	44.3	21.1	56.6	42.1	55.3	34.6	10.0	21.9	9.25	18.79**	19.56**
	중	0.1	4.6	0.8	9.4	37.1	26.6	52.8	46.6	49.7	37.7	11.7	22.9			
	중하·하	1.0	4.6	1.0	9.1	32.9	21.4	50.6	48.5	47.6	39.2	14.1	30.0			
전 세		0.5	4.3	1.1	9.0	38.4	23.7	53.0	45.1	49.1	37.1	11.7	25.0	99.6	99.5	98.9

p<.01, *p<.001

(단위 : %)

< 표 21 >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3.3	8.5	7.0	28.2	27.1	23.3	29.6	35.5	43.8	28.9	29.0	25.8	86.71***	34.75***	22.28***
	고	18.0	8.3	8.3	42.8	36.2	28.9	24.5	35.8	45.1	14.7	19.7	17.7	(3)	(3)	(3)
학년별	중1	9.2	4.4	6.9	17.1	20.8	21.9	34.2	38.7	42.5	39.5	36.2	28.8	112.29***	87.77***	61.87***
	중2	14.5	9.8	9.0	31.1	27.5	19.9	29.0	34.0	40.8	25.4	28.7	30.2			
	중3	13.7	11.6	5.5	29.6	33.8	26.9	28.5	33.5	47.0	28.3	21.1	20.6			
	고1	17.2	8.8	6.2	29.6	32.2	25.6	24.8	38.3	49.2	17.2	20.7	18.9			
	고2	16.6	6.1	7.3	45.1	36.8	28.9	26.3	35.4	45.8	12.0	21.7	18.1			
	고3	20.4	10.7	13.8	42.3	40.3	34.8	22.2	33.3	36.2	15.1	15.7	15.2			
성 별	남	16.2	10.9	10.9	37.3	30.9	28.2	26.4	34.2	41.7	20.2	24.0	19.3	4.60	17.98***	36.73***
	여	15.2	5.9	4.6	33.9	32.1	24.4	27.5	37.1	47.1	23.5	24.9	24.0			
학 교 성적별	상·중·상	13.7	6.6	9.0	37.6	33.3	29.4	28.5	34.8	40.6	20.2	25.3	21.0	8.47	7.47	8.73
	중	15.0	8.6	6.7	34.9	31.3	24.2	27.3	35.7	46.2	22.9	24.4	22.8			
	중하·하	18.8	10.3	8.2	34.8	29.4	27.7	24.9	37.2	44.2	21.5	23.1	20.0			
전 세		15.7	8.3	7.6	35.4	31.4	26.1	26.9	35.4	44.2	21.7	24.3	21.5	99.7	99.5	99.5

***p<.001

(단위 : %)

< 표 22 >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32.7	24.7	34.2	49.7	46.7	44.4	15.7	25.7	19.6	1.9	2.9	1.9	39.83***	4.68	0.96
	고	30.6	21.8	34.5	60.3	49.5	44.1	8.7	26.7	20.0	0.4	2.0	1.3	(3)	(3)	(3)
학년별	중1	35.1	22.4	35.9	41.1	46.9	47.9	19.9	28.1	15.0	4.0	2.6	1.3	75.64***	17.68	16.92
	중2	27.4	25.8	36.6	54.5	47.2	41.0	16.4	23.7	19.6	1.6	3.3	2.8			
	중3	36.1	25.8	31.3	48.7	46.0	45.0	13.7	25.5	22.3	1.5	2.7	1.5			
	고1	23.8	19.6	36.8	67.2	46.1	44.3	8.6	32.0	18.4	1.5	2.2	0.5			
	고2	29.1	24.1	33.1	60.3	50.9	45.3	10.0	22.9	20.0	8.7	2.1	1.6			
	고3	28.4	21.3	33.5	53.9	51.5	41.1	7.4	25.6	23.2	0.3	1.7	2.2			
성 별	남	31.7	23.3	40.5	53.3	46.0	41.8	13.8	27.8	16.1	1.2	3.0	1.5	4.80	7.27	37.10***
	여	31.7	23.4	28.4	56.5	50.2	46.5	10.7	24.6	23.4	1.1	1.8	1.7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35.1	20.5	37.8	52.7	51.9	40.3	10.9	26.5	20.2	1.2	1.2	1.7	11.49	14.97*	10.57
	중	30.0	24.1	34.0	27.7	46.7	46.7	11.1	26.3	18.0	1.2	2.9	1.3			
	중·하하	30.6	26.6	34.4	52.9	45.6	40.8	15.5	24.5	23.0	1.0	3.3	1.8	(6)	(6)	(6)
전 계		31.5	23.1	34.2	54.7	47.7	44.0	12.1	26.0	19.7	1.2	2.4	1.6	99.5	99.2	99.5

*p<.05, ***p<.001

(단위 : %)

< 표 23 >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10.7	6.8	17.8	36.9	20.8	45.8	43.2	41.0	30.0	9.3	31.4	6.4	57.80***	46.96***	27.39***
	고	12.1	4.4	21.8	47.3	25.7	52.3	38.3	49.5	22.2	2.3	20.3	3.7	(3)	(3)	(3)
학년별	중1	7.9	6.1	16.8	27.0	14.8	40.5	46.7	36.8	31.9	18.4	42.2	10.8	111.97***	100.71***	62.23***
	중2	13.6	6.8	19.9	33.1	21.3	45.2	45.8	44.6	30.2	7.6	27.3	4.7			
	중3	9.3	7.4	16.7	43.2	27.1	49.4	39.9	41.4	28.7	7.6	24.1	5.2			
	고1	15.9	6.1	17.1	42.4	25.9	51.9	39.4	47.4	28.2	2.3	20.7	2.8			
	고2	11.4	1.9	23.2	51.4	24.1	53.2	36.3	51.9	19.2	0.9	22.2	4.4			
	고3	9.3	6.0	27.7	47.4	48.8	51.3	39.6	48.8	17.4	3.7	17.3	3.6			
성 별	남	12.0	7.2	27.0	45.1	23.5	46.1	38.4	43.2	22.2	4.5	26.0	4.7	13.94**	12.23**	63.25***
	여	10.7	4.1	13.0	39.0	22.4	52.2	43.1	47.5	29.5	7.2	26.0	5.3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8	4.5	23.6	41.7	17.9	44.1	42.0	50.8	27.2	4.5	26.8	5.1	10.47	23.33***	25.23***
	중	10.0	5.3	16.4	41.9	24.8	49.9	42.3	44.4	28.4	5.9	25.4	5.3			
	중·하하	13.4	7.6	24.1	42.6	25.4	50.7	36.5	40.7	20.7	7.5	26.2	4.4	(6)	(6)	(6)
전 계		11.4	5.6	19.8	41.8	23.1	48.9	40.7	44.9	25.8	5.9	25.9	4.9	99.7	99.5	99.5

p<.01, *p<.001

(단위 : %)

(단위: %)

< 포 24 > 사·호·에·서·성·등·하·기·위·한·요·건

[illegible]

< 표 25 >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원인 (단위 : %)

교 류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원	중	인	원	중	인	원	중	인	원	중	인	원	중	인	원	중	인
교 류 구 분	중	노력부족 (72.3)	국가의 책임 (62.4)	부모의 환경 (52.9)	노력부족 (46.7)	부모의 환경 (27.6)	국가의 책임 (40.9)	부모의 환경 (49.7)	국가의 책임 (27.6)	가난 (17.8)	사회적 책임 (29.4)	부모의 환경 (18.1)	타고난 성격 (19.6)	타고난 성격 (17.6)	가난 (6.7)	타고난 성격 (6.6)	타고난 성격 (5.4)	가난 (5.4)
	고	노력부족 (71.7)	국가의 책임 (53.6)	부모의 환경 (51.1)	노력부족 (43.7)	부모의 환경 (29.6)	국가의 책임 (40.1)	부모의 환경 (41.4)	국가의 책임 (29.6)	가난 (20.2)	사회적 책임 (19.1)	타고난 성격 (17.7)	타고난 성격 (21.4)	타고난 성격 (19.3)	가난 (4.2)	타고난 성격 (10.8)	타고난 성격 (4.3)	가난 (4.3)
학 년 별	중1	노력부족 (64.1)	국가의 책임 (60.0)	부모의 환경 (51.9)	노력부족 (43.6)	부모의 환경 (29.3)	국가의 책임 (40.1)	부모의 환경 (43.0)	국가의 책임 (29.1)	가난 (15.7)	사회적 책임 (14.3)	타고난 성격 (20.3)	타고난 성격 (14.6)	타고난 성격 (14.6)	가난 (6.6)	타고난 성격 (8.8)	타고난 성격 (4.7)	가난 (4.7)
	중2	노력부족 (70.0)	국가의 책임 (61.4)	부모의 환경 (56.5)	노력부족 (48.4)	부모의 환경 (28.4)	국가의 책임 (38.7)	부모의 환경 (39.3)	국가의 책임 (24.8)	사회적 책임 (19.8)	부모의 환경 (16.6)	타고난 성격 (16.6)	타고난 성격 (17.2)	타고난 성격 (17.2)	가난 (6.3)	타고난 성격 (8.6)	타고난 성격 (5.9)	가난 (5.9)
학 년 별	중3	노력부족 (71.1)	국가의 책임 (61.0)	부모의 환경 (51.9)	노력부족 (46.9)	부모의 환경 (29.8)	국가의 책임 (33.6)	부모의 환경 (41.9)	국가의 책임 (28.8)	가난 (21.3)	사회적 책임 (18.7)	타고난 성격 (18.7)	타고난 성격 (18.4)	타고난 성격 (18.4)	가난 (9.1)	타고난 성격 (12.5)	타고난 성격 (5.5)	가난 (5.5)
	고1	노력부족 (70.0)	국가의 책임 (61.9)	부모의 환경 (53.4)	노력부족 (41.2)	부모의 환경 (24.6)	국가의 책임 (27.6)	부모의 환경 (39.7)	국가의 책임 (24.5)	가난 (24.0)	사회적 책임 (13.4)	타고난 성격 (13.4)	타고난 성격 (13.3)	타고난 성격 (13.3)	가난 (2.7)	타고난 성격 (4.0)	타고난 성격 (4.0)	가난 (4.0)
학 년 별	고2	노력부족 (70.6)	국가의 책임 (60.3)	부모의 환경 (49.9)	노력부족 (45.6)	부모의 환경 (44.4)	국가의 책임 (45.0)	부모의 환경 (44.2)	국가의 책임 (30.5)	사회적 책임 (19.8)	타고난 성격 (12.1)	타고난 성격 (17.6)	타고난 성격 (18.1)	타고난 성격 (18.1)	가난 (5.2)	타고난 성격 (8.3)	타고난 성격 (3.5)	가난 (3.5)
	고3	노력부족 (75.3)	국가의 책임 (73.3)	부모의 환경 (62.7)	노력부족 (44.4)	부모의 환경 (40.1)	국가의 책임 (38.9)	부모의 환경 (36.4)	국가의 책임 (28.4)	사회적 책임 (20.3)	타고난 성격 (18.3)	타고난 성격 (20.7)	타고난 성격 (18.3)	타고난 성격 (18.3)	가난 (4.6)	타고난 성격 (10.1)	타고난 성격 (7.1)	가난 (7.1)
성 별	남	노력부족 (76.7)	국가의 책임 (58.2)	부모의 환경 (55.9)	노력부족 (49.2)	부모의 환경 (42.9)	국가의 책임 (38.7)	부모의 환경 (42.9)	국가의 책임 (28.0)	사회적 책임 (21.1)	타고난 성격 (16.4)	타고난 성격 (16.4)	타고난 성격 (18.6)	타고난 성격 (18.6)	가난 (7.1)	타고난 성격 (10.7)	타고난 성격 (5.6)	가난 (5.6)
	여	노력부족 (68.8)	국가의 책임 (62.6)	부모의 환경 (55.1)	노력부족 (43.9)	부모의 환경 (38.0)	국가의 책임 (43.3)	부모의 환경 (41.9)	국가의 책임 (28.1)	가난 (19.4)	사회적 책임 (19.3)	타고난 성격 (20.0)	타고난 성격 (17.3)	타고난 성격 (17.3)	가난 (6.0)	타고난 성격 (10.0)	타고난 성격 (4.1)	가난 (4.1)
학 교 구 분	상	노력부족 (75.0)	국가의 책임 (66.6)	부모의 환경 (56.0)	노력부족 (45.0)	부모의 환경 (32.0)	국가의 책임 (36.2)	부모의 환경 (44.1)	국가의 책임 (31.3)	가난 (24.0)	사회적 책임 (16.6)	타고난 성격 (16.6)	타고난 성격 (17.7)	타고난 성격 (17.7)	가난 (4.9)	타고난 성격 (10.7)	타고난 성격 (5.3)	가난 (5.3)
	중상	노력부족 (75.0)	국가의 책임 (66.6)	부모의 환경 (56.0)	노력부족 (45.0)	부모의 환경 (32.0)	국가의 책임 (36.2)	부모의 환경 (44.1)	국가의 책임 (31.3)	가난 (24.0)	사회적 책임 (16.6)	타고난 성격 (16.6)	타고난 성격 (17.7)	타고난 성격 (17.7)	가난 (4.9)	타고난 성격 (10.7)	타고난 성격 (5.3)	가난 (5.3)
학 교 구 분	중	노력부족 (73.2)	국가의 책임 (61.7)	부모의 환경 (55.9)	노력부족 (43.8)	부모의 환경 (38.3)	국가의 책임 (43.7)	부모의 환경 (39.6)	국가의 책임 (28.6)	사회적 책임 (18.8)	타고난 성격 (19.0)	타고난 성격 (17.4)	타고난 성격 (16.2)	타고난 성격 (16.2)	가난 (6.6)	타고난 성격 (10.0)	타고난 성격 (4.7)	가난 (4.7)
	중하	노력부족 (67.4)	국가의 책임 (53.1)	부모의 환경 (53.2)	노력부족 (45.1)	부모의 환경 (40.1)	국가의 책임 (42.6)	부모의 환경 (41.8)	국가의 책임 (28.7)	사회적 책임 (18.8)	타고난 성격 (17.3)	타고난 성격 (20.9)	타고난 성격 (17.2)	타고난 성격 (17.2)	가난 (8.9)	타고난 성격 (11.0)	타고난 성격 (4.4)	가난 (4.4)
전 체	저	노력부족 (72.7)	국가의 책임 (64.4)	부모의 환경 (53.4)	노력부족 (44.6)	부모의 환경 (39.4)	국가의 책임 (40.0)	부모의 환경 (41.1)	국가의 책임 (28.5)	가난 (19.6)	사회적 책임 (36.9)	타고난 성격 (18.2)	타고난 성격 (20.5)	타고난 성격 (20.5)	가난 (6.6)	타고난 성격 (15.0)	타고난 성격 (4.8)	가난 (4.8)

< 표 26 >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예술, 문화적으로 성숙된 나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나라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류빈	중	16.9	18.2	33.8	33.5	26.3	14.7	19.2	23.1	22.2	3.8	5.5	1.4	16.6	14.0	21.2	10.0	12.9	6.8	37.23***	17.15**	22.15***
	고	10.1	17.4	32.7	35.9	33.7	13.5	19.6	21.5	20.3	5.1	3.9	4.9	13.1	11.5	22.7	16.2	11.9	6.0	(5)	(5)	(5)
	중1	31.6	20.3	30.5	28.9	20.0	12.4	15.8	24.8	25.3	5.3	6.8	1.3	11.2	15.7	22.7	7.2	12.4	7.7			
학년별	중2	18.9	18.0	38.4	31.5	27.2	12.2	18.1	22.7	21.3	1.6	4.0	1.6	17.5	13.8	19.7	12.3	14.3	6.9			
	중3	10.4	16.1	31.9	36.7	32.4	18.0	21.3	21.7	21.2	5.0	6.0	1.2	17.6	12.2	21.4	9.1	11.6	6.2	98.70***	51.70**	55.72***
	고1	9.9	14.9	31.7	34.1	33.1	11.2	19.9	23.1	22.3	5.3	3.6	2.6	17.6	12.7	24.7	17.5	12.7	7.5	(25)	(25)	(25)
	고2	11.7	16.7	33.3	36.9	30.7	13.1	17.1	23.6	20.4	5.1	4.7	5.9	14.0	11.6	22.5	15.1	12.7	4.7			
	고3	8.6	21.3	33.0	36.4	38.7	17.9	21.9	16.7	16.5	4.9	3.3	7.1	12.0	10.2	19.6	16.0	9.8	5.8			
성별	남	13.5	16.8	29.1	36.9	32.3	16.0	17.6	23.4	18.8	4.7	3.1	4.0	16.9	13.0	24.7	10.3	11.4	7.4	23.94***	19.15**	33.67***
	여	13.4	18.7	37.2	32.1	27.5	12.1	21.6	21.6	23.6	4.3	6.2	2.5	12.8	12.6	19.3	15.8	13.4	5.4	(5)	(5)	(5)
학교 성격별	상·중성	12.3	17.6	32.0	31.8	27.5	15.4	19.5	23.0	19.4	4.6	3.7	3.7	14.8	12.0	22.2	16.9	16.1	7.3			
	중	14.0	17.5	32.0	33.7	29.4	14.0	22.0	22.1	23.2	4.8	5.4	2.3	13.0	14.0	22.1	12.5	11.6	6.4	30.20***	19.89*	9.69
	중하·하	14.4	19.6	35.3	39.6	32.7	14.2	16.1	21.7	19.4	4.1	4.6	4.0	17.1	12.2	21.4	8.7	9.3	5.8	(10)	(10)	(10)
전체	전체	13.5	17.8	33.0	34.5	29.8	14.0	19.5	22.3	21.0	4.5	4.7	3.2	14.8	12.8	21.8	13.0	12.4	6.3	99.7	99.8	99.3

*p<0.05, **p<0.01, ***p<0.001

(단위 : %)

< 표 27 > 가솔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8.3	4.6	7.6	91.7	95.4	92.4	37.21*** (1)	0.10 (1)	0.00 (1)
	고	17.7	4.9	7.6	82.3	95.1	92.4			
학년별	중1	2.6	4.8	3.8	97.4	95.2	96.2	50.66*** (5)	2.68 (5)	11.89* (5)
	중2	10.4	4.4	6.5	89.6	95.6	93.5			
	중3	8.5	4.5	10.7	91.5	95.5	89.3			
	고1	15.3	5.8	8.5	84.7	94.2	91.5			
	고2	21.4	5.2	6.8	78.6	94.8	93.2			
	고3	15.7	3.3	7.1	84.3	96.7	92.9			
성 별	남	14.5	6.7	8.3	85.5	93.3	91.7	3.52 (1)	16.78*** (1)	1.51 (1)
	여	11.5	3.0	6.8	88.5	97.0	93.2			
학 교 성적별	상·중상	8.3	3.4	5.6	91.7	96.6	94.4	108.76*** (2)	10.96** (2)	12.48** (2)
	중	8.7	4.0	6.4	91.3	96.0	93.6			
	중하·하	27.1	7.2	10.8	72.9	92.8	89.2			
전 체		12.9	4.7	7.6	86.6	95.1	92.2	99.5	99.8	99.8

*p<.05, **p<.01, ***p<.001

(단위 : %)

< 표 28 > 담배 피운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3.5	3.0	4.9	76.5	92.0	95.1	37.14*** (1)	63.28*** (1)	34.11*** (1)
	고	36.3	19.4	12.3	63.7	80.6	87.7			
학년별	중1	6.6	5.9	5.5	93.4	94.1	94.5	125.55*** (5)	86.04*** (5)	55.09*** (5)
	중2	20.5	7.5	5.0	79.5	92.5	95.0			
	중3	31.6	11.0	4.5	68.4	89.0	95.5			
	고1	20.7	17.1	9.0	79.3	82.9	91.0			
	고2	41.8	16.3	11.4	58.2	83.7	88.6			
	고3	44.8	26.6	19.6	55.2	73.4	80.4			
성 별	남	40.3	23.8	10.8	59.7	76.2	89.2	99.04*** (1)	186.98*** (1)	10.45** (1)
	여	19.6	3.9	6.7	80.4	96.1	93.3			
학 교 성적별	상·중상	22.5	10.1	6.8	77.5	89.9	93.2	101.67*** (2)	31.02*** (2)	53.21*** (2)
	중	25.5	11.5	5.2	74.5	88.5	94.8			
	중하·하	48.3	20.3	15.7	51.7	79.7	84.3			
전 체		29.7	13.5	8.7	69.7	86.2	92.2	99.4	99.7	99.8

p<.01, *p<.001

(단위 : %)

< 표 29 > 술 마신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40.7	20.6	19.7	59.3	79.4	80.3	177.34*** (1)	78.37*** (1)	108.89*** (1)
	고	70.7	37.5	41.3	29.3	62.5	58.7			
학년별	중1	17.9	17.3	11.9	82.1	82.7	88.1	267.09*** (5)	85.50*** (5)	136.07*** (5)
	중2	38.1	20.0	19.9	61.9	80.0	80.1			
	중3	50.2	25.0	24.2	49.8	75.0	75.8			
	고1	56.3	36.9	33.5	43.7	63.1	66.5			
	고2	74.3	35.8	44.8	25.7	64.2	55.2			
	고3	80.2	40.3	47.8	19.8	59.7	52.2			
성별	남	60.7	39.6	34.6	39.3	60.4	65.4	19.27*** (1)	124.83*** (1)	12.78*** (1)
	여	50.7	18.2	27.3	49.3	81.8	72.7			
학교 성적별	상·중상	50.5	26.4	30.1	49.5	73.6	69.9	47.50*** (2)	11.67** (2)	18.61*** (2)
	중	52.2	26.8	27.3	47.8	73.2	72.7			
	중하·하	69.2	34.3	37.6	30.8	65.7	62.4			
전체		55.4	28.7	30.9	44.1	71.1	68.9	99.5	99.8	99.8

p<.01, *p<.001

(단위 : %)

< 표 30 > 도박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41.4	5.5	23.9	58.6	94.5	76.1	15.73*** (1)	16.29*** (1)	3.23 (1)
	고	50.5	10.1	27.4	49.5	89.9	72.6			
학년별	중1	27.6	5.3	19.7	72.4	94.7	80.3	61.95*** (5)	21.00*** (5)	10.44 (5)
	중2	39.9	5.1	27.0	60.1	94.9	73.0			
	중3	47.2	6.3	23.9	52.8	93.7	76.1			
	고1	38.7	9.1	27.6	61.3	90.9	72.4			
	고2	59.1	9.0	25.2	40.9	91.0	74.8			
	고3	52.0	12.8	31.7	48.0	87.2	68.3			
성별	남	63.8	12.5	38.4	36.2	87.5	61.6	246.59*** (1)	68.78*** (1)	163.42*** (1)
	여	28.3	3.1	13.4	71.7	96.9	86.6			
학 교 성적별	상·중상	46.8	6.1	21.3	53.2	93.9	78.7	12.92** (2)	6.54* (2)	8.57* (2)
	중	42.3	7.5	25.1	57.7	92.5	74.9			
	중하·하	52.6	10.1	29.6	47.4	89.9	70.4			
전체		45.7	7.7	25.7	53.8	92.0	74.0	99.5	99.7	99.7

*p<.05, **p<.01, ***p<.001

(단위 : %)

< 표 31 > 공공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9.0	25.1	9.0	81.0	74.9	91.0	0.82 (1)	5.90* (1)	0.72 (1)
	고	20.7	29.7	10.1	79.3	70.3	89.9			
학년별	중1	10.5	22.6	6.0	89.5	77.4	94.0	22.60*** (5)	10.86 (5)	5.44 (5)
	중2	18.8	25.4	9.0	81.2	74.6	91.0			
	중3	22.0	27.7	10.7	78.0	72.3	89.3			
	고1	14.1	32.8	9.3	85.7	67.2	90.7			
	고2	25.1	28.4	9.8	74.9	71.6	90.2			
	고3	21.9	27.9	11.6	78.1	72.1	88.4			
성 별	남	31.0	32.4	14.1	69.0	67.6	85.9	149.66*** (1)	26.40*** (1)	46.82*** (1)
	여	8.9	22.7	5.1	91.1	77.3	94.9			
학 교 성 격별	상·중상	18.3	26.7	8.7	81.7	73.3	91.3	10.41** (2)	0.91 (2)	11.28** (2)
	중	18.6	27.2	7.8	81.4	72.8	92.2			
	중하·하	25.3	29.0	12.9	74.7	71.0	87.1			
전 계		19.8	27.3	9.5	79.9	72.5	90.1	99.6	99.7	99.7

*p<.05, **p<.01, ***p<.001

(단위 : %)

< 표 32 >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1.2	1.5	6.1	78.8	98.5	93.9	8.53** (1)	0.12 (1)	0.74 (1)
	고	27.0	1.6	7.0	73.0	98.4	93.0			
학년별	중1	7.2	1.8	5.1	92.8	98.2	94.9	64.48*** (5)	3.06 (5)	2.37 (5)
	중2	16.9	1.2	7.1	83.1	98.8	92.9			
	중3	29.3	1.5	5.7	70.7	98.5	94.3			
	고1	19.3	0.8	6.5	80.7	99.2	93.5			
	고2	34.0	2.1	7.0	66.0	97.9	93.0			
	고3	26.5	2.0	8.0	73.5	98.0	92.0			
성 별	남	32.1	2.5	8.7	67.9	97.5	91.3	65.44*** (1)	11.68*** (1)	14.63*** (1)
	여	16.3	0.7	4.5	83.7	99.3	95.5			
학 교 성 격별	상·중상	20.5	1.2	5.3	79.5	98.8	94.7	27.31*** (2)	4.12 (2)	18.69*** (2)
	중	22.6	1.2	4.7	77.4	98.8	95.3			
	중하·하	33.2	2.5	10.1	66.8	97.5	89.9			
전 계		24.0	1.6	6.5	75.5	98.2	93.2	99.5	99.8	99.8

p<.01, *p<.001

(단위 : %)

< 표 33 > 음란비디오나 잡지를 본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37.4	3.1	15.4	62.6	96.9	84.6	18.99*** (1)	16.98*** (1)	72.30*** (1)
	고	47.3	6.9	31.7	52.7	93.1	68.3			
학년별	중1	18.4	1.8	5.1	81.6	98.2	94.9	160.53*** (5)	26.86*** (5)	100.17*** (5)
	중2	27.5	2.1	16.3	72.5	97.9	83.8			
	중3	51.6	6.0	20.8	48.4	94.0	79.3			
	고1	28.3	7.2	27.1	71.7	92.8	72.9			
	고2	53.0	5.9	34.7	47.0	94.1	65.3			
	고3	58.6	7.9	34.1	41.4	92.1	65.9			
성 별	남	61.3	8.9	40.7	38.7	91.1	59.3	284.21*** (1)	76.74*** (1)	300.67*** (1)
	여	23.5	1.0	7.5	76.5	99.0	92.5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39.8	4.0	22.3	60.2	96.0	77.7	16.59*** (2)	12.51** (2)	24.70*** (2)
	중	40.5	3.7	20.5	59.5	96.3	79.5			
	중하·하	50.7	7.6	31.4	49.3	92.4	68.6			
전 계		42.0	4.9	23.7	57.5	94.7	95.6	99.5	99.6	99.7

p<.01, *p<.001

(단위 : %)

< 표 34 > 가출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54.4	77.3	27.0	45.6	22.7	73.0	16.25*** (1)	21.86*** (1)	42.82*** (1)
	고	45.1	68.5	15.1	54.9	31.5	84.9			
학년별	중1	67.1	83.0	37.2	32.9	17.0	62.8	59.44*** (5)	41.84*** (5)	68.32*** (5)
	중2	58.9	77.9	27.2	41.1	22.1	72.8			
	중3	46.5	69.9	20.9	53.5	30.1	79.1			
	고1	54.3	72.5	16.6	45.7	27.5	83.4			
	고2	44.7	66.3	15.5	55.3	33.7	84.5			
	고3	37.0	67.0	11.7	63.0	33.0	88.3			
성 별	남	52.1	73.5	21.4	47.9	26.5	78.6	3.95* (1)	0.11 (1)	0.48 (1)
	여	47.5	72.9	20.2	52.5	27.1	79.8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56.7	73.3	20.9	43.3	26.7	79.1	26.94*** (2)	0.11 (2)	1.79 (2)
	중	49.0	72.6	21.2	51.0	27.4	78.8			
	중하·하	41.2	73.1	18.5	58.8	26.9	81.5			
전 계		49.5	72.8	20.6	49.9	26.9	78.5	99.5	99.7	99.1

*p<.05, ***p<.001

(단위 : %)

< 표 35 > 담배 피우기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61.3	82.7	62.0	38.7	17.3	38.0	102.93*** (1)	151.29*** (1)	119.20*** (1)
	고	38.2	40.3	37.5	61.8	40.8	62.5			
학년별	중1	82.9	87.0	69.7	17.1	13.0	30.3	199.26*** (5)	177.31*** (5)	144.77*** (5)
	중2	63.8	82.7	63.9	36.2	17.3	36.1			
	중3	47.8	77.7	56.0	47.8	22.3	44.0			
	고1	46.0	64.9	44.7	46.0	35.1	55.3			
	고2	62.6	60.8	34.4	63.6	39.2	65.6			
	고3	74.4	50.2	30.6	74.4	49.8	69.4			
성 별	남	46.5	66.0	45.8	53.5	34.0	54.2	8.64** (1)	31.88*** (1)	8.96** (1)
	여	53.3	76.8	52.6	46.7	23.2	47.4			
학 교 성격별	상·중상	55.1	73.6	53.7	44.9	26.4	46.3	27.83*** (2)	1.76 (2)	20.17*** (2)
	중	52.1	71.3	51.6	47.9	28.7	48.4			
	중하·하	40.0	70.3	41.2	60.0	29.7	58.8			
전 계		49.7	71.0	48.7	49.7	28.6	50.2	99.5	99.6	98.9

p<.01, *p<.001

(단위 : %)

< 표 36 > 술 마시기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46.7	69.6	49.0	53.3	30.4	51.0	185.40*** (1)	163.16*** (1)	203.71*** (1)
	고	17.8	42.9	18.8	82.2	57.1	81.2			
학년별	중1	71.7	74.5	62.8	28.3	25.5	37.2	321.03*** (5)	183.95*** (5)	242.83*** (5)
	중2	54.1	70.6	50.0	45.9	29.4	50.0			
	중3	32.5	62.6	40.3	67.5	37.4	59.8			
	고1	30.3	46.8	22.6	69.7	53.2	77.4			
	고2	17.5	44.9	17.5	82.8	55.1	82.5			
	고3	6.8	35.3	14.4	93.2	64.7	85.6			
성 별	남	32.4	50.7	30.8	67.6	49.3	69.2	0.00 (1)	30.65*** (1)	5.31* (1)
	여	32.2	62.3	35.7	67.8	37.7	64.3			
학 교 성격별	상·중상	35.5	58.0	33.1	64.5	42.0	66.9	6.35* (2)	0.48 (2)	7.96* (2)
	중	32.5	56.9	35.7	67.5	43.1	64.3			
	중하·하	28.4	56.0	28.8	71.6	44.0	71.2			
전 계		32.2	56.5	32.9	67.2	43.2	66.0	99.4	99.6	99.0

*p<.05, ***p<.001

(단위 : %)

< 표 37 > 도박하기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56.7	92.0	41.9	43.3	8.0	58.1	28.33***	17.52***	90.93***
	고	44.5	86.5	21.9	55.5	13.5	78.1	(1)	(1)	(1)
학년별	중1	69.1	94.4	57.6	30.9	5.6	42.4	54.83***	26.71***	139.45***
	중2	60.8	91.6	39.7	39.2	8.4	60.3			
	중3	49.2	89.6	34.5	50.8	10.4	65.5			
	고1	49.3	89.3	28.5	50.7	10.7	71.5			
	고2	42.7	85.8	18.5	57.3	14.2	81.5			
	고3	42.0	84.2	17.5	58.0	15.8	82.5			
성 별	남	40.8	85.8	24.4	59.2	14.2	75.6	73.43***	29.35***	45.85***
	여	60.3	92.9	38.6	39.7	7.1	61.4	(1)	(1)	(1)
학 교 성적별	상·중·상	52.5	90.9	31.1	47.5	9.1	68.9	3.44	2.80	3.73
	중	50.5	89.0	33.4	49.5	11.0	66.6			
	중하·하	46.9	88.0	28.7	53.1	12.0	71.3			
전 계		50.4	89.0	31.1	49.1	10.6	67.6	99.4	99.7	98.7

***p<.001

(단위 : %)

< 표 38 > 공공물건 부수기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48.9	86.4	38.4	15.1	13.6	11.6	1.75	12.25***	6.64**
	고	87.0	80.9	34.4	13.0	19.1	15.6	(1)	(1)	(1)
학년별	중1	88.2	89.8	93.1	11.8	10.2	6.9	5.42	29.21***	15.21**
	중2	85.3	88.1	85.6	14.7	11.9	14.4			
	중3	83.4	80.1	88.0	16.6	19.9	12.0			
	고1	87.7	78.2	84.7	12.3	21.8	15.3			
	고2	85.4	81.8	85.6	14.6	18.2	14.4			
	고3	88.2	82.8	81.6	11.8	17.2	18.4			
성 별	남	81.8	82.9	80.8	18.2	17.1	19.2	26.78***	1.51	50.83***
	여	90.0	84.8	91.8	10.0	15.2	8.2	(1)	(1)	(1)
학 교 성적별	상·중·상	89.2	84.5	88.5	10.8	15.5	11.5	19.65***	0.61	6.26*
	중	86.8	84.1	87.8	13.2	15.9	12.2			
	중하·하	80.2	82.9	83.8	19.8	17.1	16.2			
전 계		85.4	83.4	85.5	14.0	16.2	13.5	99.4	99.6	99.0

*p<.05, **p<.01, ***p<.001

(단위 : %)

< 표 39 > 물건 훔치기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87.4	97.2	89.7	12.6	2.8	10.3	0.10 (1)	0.95 (1)	7.99** (1)
	고	88.0	97.8	85.5	12.0	2.2	14.5			
학년별	중1	90.1	97.4	92.2	9.9	2.6	7.8	14.28* (5)	4.82 (5)	22.10*** (5)
	중2	88.5	97.7	85.6	11.5	2.3	14.4			
	중3	85.6	96.1	91.5	14.4	3.9	8.5			
	고1	86.3	97.5	88.8	13.7	2.5	11.2			
	고2	84.8	98.6	84.0	15.2	1.4	16.0			
	고3	92.9	97.0	82.5	7.1	3.0	17.5			
성 별	남	85.2	97.0	83.3	14.8	3.0	16.7	10.61** (1)	3.13 (1)	30.90*** (1)
	여	90.1	98.2	91.6	9.9	1.8	8.4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89.9	98.1	88.4	10.1	1.9	11.6	13.03** (2)	4.34 (2)	8.53* (2)
	중	88.5	97.9	89.4	11.5	2.1	10.6			
	중하·하	83.0	96.4	84.5	17.0	3.6	15.5			
전 계		87.2	97.1	86.6	12.3	2.5	12.4	99.4	99.6	99.0

*p<.05, **p<.01, ***p<.001

(단위 : %)

< 표 40 >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에 대한 허용도

		절대하면 안된다			그 사람 자유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51.5	93.4	25.6	48.5	6.6	74.4	104.84*** (1)	18.83*** (1)	104.23*** (1)
	고	28.6	88.2	8.5	71.4	11.8	91.5			
학년별	중1	71.1	97.2	45.2	28.9	2.8	54.8	164.78*** (5)	41.52*** (5)	202.30*** (5)
	중2	55.1	94.4	25.1	44.9	5.6	74.9			
	중3	42.1	87.8	14.8	57.9	12.2	85.2			
	고1	37.9	86.2	9.9	62.1	13.8	90.1			
	고2	25.9	89.6	8.5	74.1	10.4	91.5			
	고3	22.9	88.4	6.3	77.1	11.6	93.7			
성 별	남	33.7	86.7	14.1	66.3	13.3	85.9	31.59*** (1)	46.93*** (1)	9.43** (1)
	여	46.3	95.0	19.3	53.7	5.0	80.7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40.8	91.4	12.7	59.2	8.6	87.3	0.91 (2)	2.51 (2)	9.43** (2)
	중	40.0	91.5	18.9	60.0	8.5	81.1			
	중하·하	38.1	89.2	14.4	61.9	10.8	85.6			
전 계		39.8	90.6	16.5	59.3	9.1	82.3	99.1	99.7	98.9

p<.01, *p<.001

(단위 : %)

< 표 41 > 욕이나 저주의 말 등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0.5	7.1	8.7	20.2	22.9	28.3	40.4	40.3	51.8	28.8	29.8	11.2	23.80*** (3)	4.76 (3)	66.08*** (3)
	고	10.9	6.9	17.8	22.3	26.7	35.9	47.3	37.2	39.0	19.5	29.2	7.3			
학년별	중1	20.4	7.1	13.6	24.3	22.5	37.0	38.8	39.2	44.3	16.4	31.1	5.1	78.97*** (15)	29.50* (15)	128.96*** (15)
	중2	10.4	5.9	6.6	22.4	27.2	24.1	37.2	37.0	54.9	30.1	30.0	14.4			
	중3	7.4	8.6	7.5	17.2	17.8	26.4	43.5	45.7	53.9	32.0	27.9	12.2			
	고1	16.3	6.3	21.2	24.3	24.5	38.5	42.3	36.4	35.7	17.0	32.8	4.7			
	고2	9.5	5.9	18.5	19.0	27.8	36.0	49.3	41.3	39.5	22.2	25.0	6.1			
	고3	7.5	8.9	10.7	23.9	27.6	31.7	49.7	32.6	43.3	18.9	30.9	14.3			
성 별	남	6.7	3.8	15.8	17.4	24.2	32.8	45.2	41.4	41.8	30.8	30.6	9.6	77.43*** (3)	36.25*** (3)	13.28** (3)
	여	14.7	10.1	11.1	25.0	25.1	31.8	42.4	36.4	48.3	17.9	28.4	8.7			
학 교 성적별	상·중상	9.4	8.6	13.8	21.0	25.8	32.0	44.2	34.7	41.0	25.3	30.8	13.2	7.72 (6)	15.33* (6)	16.01* (6)
	중	12.3	7.6	12.0	22.4	25.4	33.0	43.7	38.8	47.6	21.7	28.3	7.3			
	중하·하	9.8	4.4	14.8	20.1	22.4	31.8	43.3	42.1	43.0	26.8	31.1	10.5			
전 체		10.7	7.0	13.4	21.1	24.7	32.1	43.4	38.7	44.9	24.2	29.4	9.1	99.3	99.8	99.6

*p<.05, **p<.01, ***p<.001

(단위 : %)

< 표 42 > 구타 등 폭력 휘두르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9.6	30.0	33.2	30.8	31.9	39.5	41.0	29.9	24.1	8.6	8.2	3.2	13.35** (3)	9.03* (3)	38.91*** (3)
	고	16.7	33.8	45.8	37.6	31.2	35.6	39.7	29.6	16.1	6.0	5.4	2.5			
학년별	중1	32.2	27.1	42.6	35.5	32.9	37.4	27.0	31.6	17.9	5.3	8.4	2.1	87.59*** (15)	24.99 (15)	79.36*** (15)
	중2	19.1	30.8	26.8	27.8	30.5	38.9	46.0	29.3	29.9	7.1	9.4	4.4			
	중3	15.9	32.4	32.8	31.7	32.4	41.1	41.5	28.6	23.1	10.9	6.5	3.0			
	고1	22.3	33.7	49.6	44.0	26.8	38.0	31.0	32.6	10.3	2.7	6.9	2.1			
	고2	12.4	36.2	45.5	30.5	31.0	33.3	49.6	27.7	19.2	7.5	5.2	1.9			
	고3	16.1	30.6	39.3	39.1	36.8	36.2	37.3	28.6	20.1	7.5	3.9	4.5			
성 별	남	13.4	24.7	31.9	29.8	37.4	41.0	45.0	30.5	23.0	11.8	7.4	4.1	97.96*** (3)	57.67*** (3)	57.11*** (3)
	여	23.0	38.5	47.4	38.3	26.0	34.1	35.9	29.4	16.9	2.9	6.1	1.6			
학 교 성적별	상·중상	17.3	31.5	39.4	35.1	31.6	36.6	39.6	30.0	19.7	8.0	6.9	4.2	7.71 (6)	12.53 (6)	12.14 (6)
	중	18.9	34.3	38.8	34.9	31.4	40.3	40.5	28.4	19.1	5.7	5.8	1.7			
	중하·하	17.5	26.6	40.8	31.3	32.3	34.9	42.1	32.3	20.6	9.1	8.7	3.8			
전 체		18.1	31.7	39.6	33.9	31.4	37.3	40.2	29.6	19.8	7.3	6.8	2.8	99.4	99.6	99.5

*p<.05, **p<.01, ***p<.001

(단위 : %)

< 표 43 > 위험하여 물건 빼앗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4.8	66.3	68.6	34.9	16.4	25.8	31.6	13.5	4.7	8.7	3.8	0.8	25.96*** (3)	8.89* (3)	9.83* (3)
	고	25.6	63.9	62.0	43.9	20.9	30.9	25.6	12.4	6.3	5.0	2.8	0.9			
학년별	중1	45.4	64.9	85.3	27.6	18.3	12.5	23.0	12.7	2.2	3.9	4.1	0.0	96.74*** (15)	23.11 (15)	71.25*** (15)
	중2	22.1	63.8	58.6	37.2	17.4	32.6	34.4	14.8	7.2	6.3	4.0	1.6			
	중3	20.2	71.1	66.8	35.6	12.8	28.2	32.1	12.8	4.2	12.1	3.3	0.7			
	고1	30.3	59.4	66.7	44.7	24.0	28.9	21.0	12.7	3.9	4.0	3.9	0.5			
	고2	18.7	67.0	61.3	45.2	18.9	31.1	30.0	11.3	6.8	6.1	2.8	0.7			
	고3	28.6	64.8	54.9	41.6	20.1	33.9	25.2	13.5	9.4	4.7	1.6	1.8			
성 별	남	21.1	63.5	65.1	38.0	18.6	28.4	31.2	13.8	5.1	9.7	4.1	1.4	40.25*** (3)	6.26 (3)	8.06* (3)
	여	29.4	66.4	65.1	40.6	18.8	28.6	25.9	12.3	6.0	4.2	2.4	0.3			
학 교 성적별	상·중상	24.9	64.6	63.9	38.2	17.6	27.0	28.9	14.5	7.0	8.0	3.3	2.0	14.79* (6)	6.68 (6)	11.06 (6)
	중	26.0	65.1	66.3	41.9	19.7	28.9	27.4	12.7	4.3	4.7	2.5	0.5			
	중하·하	23.8	63.7	64.2	36.4	19.0	28.8	30.5	12.7	6.2	9.3	4.6	0.8			
전 계		25.1	64.8	64.6	39.0	18.5	28.2	28.4	12.9	5.5	6.9	3.3	0.8	99.4	99.6	99.2

*p<.05, ***p<.001

(단위 : %)

< 표 44 > 폭력을 휘둘러 금품 빼앗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9.8	75.9	72.8	37.8	13.2	23.6	25.7	7.0	3.1	6.7	3.8	0.5	9.10* (3)	16.42*** (3)	16.17** (3)
	고	27.7	72.1	64.8	44.0	17.3	29.4	23.5	8.2	4.8	4.9	1.9	1.0			
학년별	중1	53.6	76.8	86.4	53.6	15.6	12.8	13.9	3.3	0.9	13.9	4.3	0.0	86.47*** (15)	43.20*** (15)	71.20*** (15)
	중2	26.6	73.2	66.3	41.4	13.1	28.6	26.8	9.4	4.4	5.2	4.2	0.6			
	중3	24.6	78.3	70.0	37.8	10.7	26.0	28.7	8.3	3.3	8.9	2.7	0.8			
	고1	30.0	69.4	69.5	46.3	17.6	27.9	19.7	10.7	1.8	4.0	2.2	0.8			
	고2	20.2	74.5	64.6	47.4	16.0	27.4	26.6	6.8	7.3	5.8	2.6	0.7			
	고3	33.5	72.0	56.7	38.2	20.4	36.2	23.6	6.9	5.4	4.7	0.7	1.8			
성 별	남	26.0	73.1	67.6	38.4	15.2	27.6	26.9	7.6	3.5	8.7	4.1	1.3	40.26*** (3)	12.86** (3)	10.63* (3)
	여	31.6	74.9	69.6	43.3	15.9	25.7	22.2	7.6	4.5	3.0	1.6	0.2			
학 교 성적별	상·중상	27.8	72.0	68.6	38.9	17.3	24.9	26.7	8.2	5.1	6.7	2.5	1.4	23.91*** (6)	4.02 (6)	9.54 (6)
	중	28.7	74.8	69.4	45.9	15.1	27.2	21.2	7.7	2.8	4.2	2.5	0.5			
	중하·하	29.7	74.1	67.8	34.8	15.0	26.5	28.0	7.2	5.1	7.5	3.6	0.7			
전 계		28.6	73.8	68.0	40.4	15.4	26.4	24.4	7.5	3.9	5.8	2.9	0.7	99.2	99.6	99.1

*p<.05, **p<.01, ***p<.001

(단위 : %)

< 표 45 > 한 사람을 따돌리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2.9	41.8	29.3	18.9	29.3	36.6	43.1	22.0	28.5	25.1	6.9	5.7	19.52*** (3)	4.71 (3)	20.17*** (3)
	고	9.3	42.6	36.1	25.9	30.2	38.3	43.7	22.4	21.9	21.2	4.8	3.7			
학년별	중1	23.0	45.3	39.9	26.3	27.7	39.9	34.2	21.9	17.2	16.4	5.1	3.0	72.56*** (15)	17.71 (15)	82.13*** (15)
	중2	13.1	42.1	25.8	17.4	27.3	35.8	40.9	21.9	31.4	28.6	8.7	6.9			
	중3	9.4	37.4	25.9	17.7	33.5	35.2	47.8	22.3	32.7	25.1	6.8	6.2			
	고1	10.0	42.8	42.4	31.7	29.8	38.0	39.7	23.8	17.3	18.7	3.6	2.3			
	고2	6.6	42.7	35.8	21.6	29.2	38.2	46.6	22.2	23.4	25.3	5.9	2.6			
	고3	11.5	42.2	26.0	25.2	32.0	38.6	44.2	21.1	27.4	19.0	4.6	8.1			
성 별	남	14.1	43.3	37.4	26.4	30.1	36.1	39.9	20.4	21.4	19.6	6.2	5.1	45.94*** (3)	4.50 (3)	24.60*** (3)
	여	8.2	41.0	28.4	18.3	29.6	38.7	46.4	24.0	28.7	27.1	5.4	4.2			
학 교 성적별	상·중·상	9.2	42.8	30.4	22.2	32.1	37.7	42.7	19.7	26.2	25.9	5.4	5.6	9.97 (6)	5.94 (6)	6.31 (6)
	중	12.1	41.8	31.8	21.9	28.8	39.4	45.0	23.3	24.6	21.0	6.1	4.2			
	중하·하	12.4	41.1	36.1	24.0	28.5	35.1	39.6	24.5	23.9	24.0	5.9	4.9			
전 체		11.1	42.0	32.6	22.1	29.6	37.2	42.9	22.1	24.9	23.1	5.9	4.6	99.3	99.6	99.3

***p<.001

(단위 : %)

< 표 46 > 집단으로 패싸움하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35.3	8.6	19.5	37.5	37.9	33.3	21.1	39.9	40.9	6.1	13.7	6.3	12.19*** (3)	3.71 (3)	13.60** (3)
	고	30.5	10.5	24.2	42.8	35.0	35.1	22.7	41.2	36.8	3.9	13.3	3.9			
학년별	중1	61.2	10.2	25.1	28.3	38.4	37.4	7.2	41.0	33.6	3.3	10.4	3.8	94.51*** (15)	23.15 (15)	40.30*** (15)
	중2	32.0	8.2	16.7	33.1	39.2	31.8	25.7	36.4	44.3	9.3	16.2	7.2			
	중3	29.4	7.1	18.3	44.0	35.6	32.2	22.0	43.0	42.5	4.6	14.2	7.0			
	고1	34.8	12.5	28.8	41.8	32.5	35.0	19.7	41.1	32.6	3.7	13.9	3.6			
	고2	27.4	7.3	23.0	42.1	36.1	36.3	25.9	43.2	37.2	4.6	13.4	3.5			
	고3	30.0	12.5	18.9	44.6	36.5	32.9	22.0	38.5	43.2	3.4	12.5	5.0			
성 별	남	37.4	10.1	25.5	42.3	39.2	36.1	14.6	39.6	33.3	5.7	11.1	5.1	60.23*** (3)	14.43*** (3)	28.25*** (3)
	여	28.6	8.8	18.5	38.0	34.1	32.4	28.8	41.2	44.2	4.5	15.8	5.0			
학 교 성적별	상·중·상	32.4	8.4	20.8	41.2	36.1	35.5	21.2	41.3	38.6	5.3	14.2	5.1	5.34 (6)	3.30 (6)	3.85 (6)
	중	33.7	9.6	21.0	40.6	37.3	35.1	21.7	40.1	39.4	4.0	12.9	4.5			
	중하·하	33.0	10.6	23.9	37.5	35.1	32.5	23.0	39.7	37.9	6.5	14.6	5.7			
전 체		32.7	9.4	21.7	39.8	36.3	34.0	21.7	40.3	38.5	5.1	13.4	5.0	99.3	99.5	99.2

p<.01, *p<.001

(단위 : %)

< 표 47 >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의 발생정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28.6	47.8	39.1	31.9	26.5	25.7	28.9	16.7	26.4	10.5	9.0	8.8	26.05***	19.30***	67.92***
	고	28.6	39.1	48.6	41.4	28.7	32.3	23.3	21.8	15.6	6.7	10.4	3.6	(3)	(3)	(3)
학년별	중1	48.0	48.7	64.3	31.6	27.6	22.1	19.1	16.6	12.8	1.3	7.1	0.9	144.03***	27.88*	199.35***
	중2	22.4	50.4	34.3	24.9	25.5	24.3	35.5	15.2	30.8	17.2	8.9	10.6			
	중3	27.2	43.5	28.2	37.6	26.5	28.9	27.0	18.8	30.9	8.3	11.3	12.0			
	고1	30.2	37.7	52.2	39.6	30.0	31.8	20.5	20.9	14.5	9.7	11.3	1.6			
	고2	23.3	39.4	49.8	37.5	28.8	33.6	30.8	22.2	13.8	8.4	9.7	2.8			
	고3	32.9	40.5	39.5	47.2	27.0	30.9	17.7	22.4	21.1	2.2	10.2	8.5			
성 별	남	27.8	42.1	43.6	38.4	28.0	31.1	26.1	19.5	19.6	7.7	10.5	5.8	4.22	2.79	4.42
	여	29.7	44.9	44.3	34.7	27.1	27.2	26.0	19.1	22.1	9.5	8.8	6.4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27.2	40.7	43.1	37.8	28.6	30.7	25.5	20.8	19.2	9.4	10.0	7.0	5.01	13.70*	5.82
	중	29.7	45.4	44.1	37.3	26.6	29.7	25.9	20.1	21.5	7.2	7.9	4.6			
	중하하	27.8	43.2	43.9	35.4	28.3	29.1	26.6	16.2	20.0	10.2	12.4	7.0	(6)	(6)	(6)
전 계		28.5	43.4	43.8	36.2	27.5	29.0	25.9	19.1	20.7	8.6	9.6	6.0	99.2	99.6	99.5

*p<.05, ***p<.001

(단위 : %)

< 표 48 > 폭력으로 돈을 빼앗아 본 경험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인	한	중	인
교급별	중	9.3	16.3	1.3	90.7	83.7	98.7	0.06	34.46***	0.50
	고	8.9	8.2	1.6	91.1	91.8	98.4	(1)	(1)	(1)
학년별	중1	0.7	20.4	0.4	99.3	79.6	99.6	31.68***	53.46***	9.62
	중2	11.2	16.6	2.5	88.8	83.4	97.5			
	중3	10.6	11.3	0.8	89.4	88.7	99.3			
	고1	13.3	11.3	0.8	86.7	88.7	99.2			
	고2	9.2	6.8	1.9	90.8	93.2	98.1			
	고3	4.3	6.3	2.7	95.7	93.7	97.3			
성 별	남	11.1	23.4	2.4	88.9	76.6	97.6	9.89**	237.53***	12.94***
	여	6.9	1.9	0.5	93.1	98.1	99.5	(1)	(1)	(1)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7.7	8.8	1.1	92.3	91.2	98.9	11.74**	16.61***	3.51
	중	8.0	12.8	0.8	92.0	87.2	99.2			
	중하하	13.0	16.6	1.8	87.0	83.4	98.2			
전 계		9.0	12.3	1.4	90.5	87.3	98.2	99.5	99.6	99.7

p<.01, *p<.001

(단위 : %)

< 표 49 > 폭력은 사용하지 않고 돈을 빼앗아 본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0.9	13.0	5.1	89.1	87.0	94.9	0.09 (1)	27.20*** (1)	1.35 (1)
	고	10.4	6.4	4.0	89.6	93.6	96.0			
학년별	중1	5.9	16.6	3.0	94.1	83.4	97.0	15.22*** (5)	43.96*** (5)	7.67 (5)
	중2	8.7	13.6	6.2	91.3	86.4	93.8			
	중3	14.3	8.0	5.5	85.7	92.0	94.5			
	고1	9.0	7.7	3.9	91.0	92.3	96.1			
	고2	12.9	6.4	5.1	87.1	93.6	94.9			
	고3	9.0	5.0	2.2	91.0	95.0	97.8			
성 별	남	14.6	16.5	7.5	85.4	83.5	92.5	30.10*** (1)	108.71*** (1)	38.50*** (1)
	여	6.8	3.4	1.7	93.2	96.6	98.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7.4	7.7	4.5	92.6	92.3	95.5	51.67*** (2)	23.22*** (2)	2.18 (2)
	중	8.2	8.3	3.6	91.8	91.7	96.4			
	중하·하	19.5	15.2	5.1	80.5	84.8	94.9			
전 계		10.7	9.8	4.5	90.5	89.9	95.0	99.5	99.6	99.6

p<.01, *p<.001

(단위 : %)

< 표 50 >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본 경험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9.7	7.5	15.5	80.3	92.5	84.5	2.05 (1)	1.04 (1)	30.82*** (1)
	고	17.1	6.4	7.6	82.9	93.6	92.4			
학년별	중1	13.8	10.0	20.9	86.2	90.0	79.1	23.11*** (5)	9.48 (5)	43.93*** (5)
	중2	18.0	6.5	15.6	82.0	93.5	84.4			
	중3	23.0	5.9	12.3	77.0	94.1	87.8			
	고1	10.3	8.3	8.5	89.7	91.7	91.5			
	고2	19.5	5.4	6.1	80.5	94.6	93.9			
	고3	20.7	5.6	8.5	79.3	94.4	91.5			
성 별	남	31.4	12.1	18.3	68.6	87.9	81.7	214.78*** (1)	83.61*** (1)	94.64*** (1)
	여	5.6	2.2	4.5	94.4	97.8	95.5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7.9	4.0	9.3	82.1	96.0	90.7	19.24*** (2)	20.34*** (2)	6.69* (2)
	중	15.2	6.7	10.2	84.8	93.3	89.8			
	중하·하	25.0	10.7	13.9	75.0	89.3	86.1			
전 계		18.3	7.0	11.3	81.3	92.6	88.2	99.6	99.6	99.5

*p<.05, ***p<.001

(단위 : %)

< 표 51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hi^2(df)$		
		한	중	인	한	중	일	한	중	인
교급별	중	8.7	4.7	16.1	91.3	95.3	83.9	0.14	1.86	11.02***
	고	9.3	6.0	11.1	90.7	94.0	88.9	(1)	(1)	(1)
학년별	중1	5.9	5.9	17.2	94.1	94.1	82.8	13.47* (5)	7.79 (5)	13.13* (5)
	중2	6.3	3.8	15.0	93.7	96.2	85.0			
	중3	11.5	4.5	16.5	88.5	95.5	83.5			
	고1	6.3	4.1	11.1	93.7	95.9	88.9			
	고2	10.0	7.3	9.8	93.7	92.7	90.2			
	고3	11.1	6.3	13.4	88.9	93.7	86.6			
성 별	남	11.8	4.4	9.1	88.2	95.6	90.9	18.08***	3.72	32.41***
	여	6.2	6.2	17.8	93.8	93.8	82.2	(1)	(1)	(1)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7.9	5.1	14.4	92.1	94.9	85.6	20.36*** (2)	9.50** (2)	0.63 (2)
	중	6.6	4.0	12.7	93.4	96.0	87.3			
	중하·하	13.8	7.7	13.4	86.2	92.3	86.6			
전 계		8.9	5.3	13.4	90.6	93.9	86.0	99.5	99.2	99.5

*p<.05, **p<.01, ***p<.001

(단위 : %)

(단위 : %)

< 표 52 > 폭력발생 시기와 장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학년별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장소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장소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내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교외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합

< 표 53 > 친구관계 만족도

		대답히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3.8	33.5	38.7	60.5	53.9	54.0	13.3	10.7	6.1	2.4	1.8	1.3	25.01***	18.17***	24.56***
	고	15.7	25.5	28.4	65.2	61.5	61.7	17.4	11.0	8.1	1.6	2.0	1.8	(3)	(3)	(3)
학년별	중1	27.0	39.0	48.1	59.9	50.5	46.0	9.2	9.4	4.3	3.9	1.0	1.7	48.72***	46.15***	51.85***
	중2	26.6	31.5	34.1	56.8	56.2	58.4	14.4	11.4	5.9	2.2	0.9	1.6			
	중3	20.4	29.8	36.8	63.7	55.1	55.2	13.7	11.3	7.2	2.2	3.9	0.7			
	고1	12.3	30.4	33.6	64.5	58.8	58.1	20.6	8.6	7.2	2.7	2.2	1.0			
	고2	14.3	22.9	24.9	66.3	62.5	65.0	18.3	13.0	7.9	1.1	1.7	2.1			
	고3	20.4	23.2	25.6	64.8	63.4	61.9	13.6	11.1	9.9	1.2	2.3	2.7			
성 별	남	22.4	32.7	31.5	61.8	54.4	59.4	13.6	10.8	7.2	2.1	2.1	1.9	11.13*	10.86*	4.11
	여	17.2	26.7	35.0	63.6	60.7	56.8	17.2	10.8	7.1	2.0	1.7	1.2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22.3	31.0	33.5	62.5	56.3	58.1	14.0	10.3	5.6	1.2	2.4	2.8	22.51**	9.64	19.12**
	중	17.7	29.9	32.8	66.1	59.3	60.5	14.6	9.5	5.6	1.6	1.3	1.1			
	중하·하	19.5	29.3	32.9	58.4	55.1	55.3	18.1	13.7	10.2	4.1	1.9	1.6			
전 계		19.7	29.5	33.2	62.6	57.5	57.8	15.4	10.8	7.1	2.1	1.9	1.5	99.7	99.7	99.7

*p<.05, **p<.01, ***p<.001

(단위 : %)

< 표 54 >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

		배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7.1		9.7	37.1	23.3	27.8	41.6	42.8	50.2	4.1	33.9	12.4	3.85	1.31	19.87***
	고	17.2		8.2	36.7	21.3	20.3	43.6	43.6	55.8	2.6	35.1	15.7	(3)	(2)	(3)
학년별	중1	14.0		8.7	31.3	17.0	20.0	45.3	46.6	57.8	9.3	36.4	13.5	39.47***	18.13	48.17***
	중2	16.4		10.1	36.9	24.8	32.2	42.3	41.1	47.6	4.4	34.1	10.1			
	중3	18.7		10.0	39.2	28.4	28.8	39.9	40.7	47.8	2.2	30.8	13.5			
	고1	21.3		6.3	30.7	21.7	21.1	46.3	40.7	55.9	1.7	37.3	16.7			
	고2	17.3		6.8	40.1	20.3	19.1	40.3	44.9	57.3	2.3	34.8	16.7			
	고3	13.3		14.0	38.6	22.0	21.3	44.4	45.1	52.5	3.7	32.9	12.2			
성 별	남	18.6		10.7	38.5	24.2	25.7	39.3	44.1	48.8	3.5	31.7	14.7	8.39*	9.27**	16.96***
	여	16.1		7.1	35.0	20.1	22.1	45.8	42.6	57.2	3.2	37.3	13.6	(3)	(2)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15.7		8.9	36.9	19.6	24.6	43.4	47.4	51.4	4.0	32.9	15.1	20.29**	7.18	22.29**
	중	15.6		6.7	36.5	22.3	22.2	45.0	42.2	57.5	3.0	35.4	13.6			
	중하·하	23.4		12.1	37.9	23.4	25.7	35.7	40.3	47.2	3.1	36.2	15.0			
전 계		17.2		8.8	36.5	21.9	23.5	42.2	42.5	52.4	3.4	33.9	13.9	99.3	98.3	98.6

*p<.05, **p<.01, ***p<.001

(단위 : %)

< 표 55 >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5.9		5.4	15.3	11.3	10.3	25.2	78.0	35.6	53.5	12.7	48.8	9.35*	5.91	27.28***
	고	6.9		5.0	12.7	8.3	14.7	30.6	78.3	42.4	49.8	13.4	37.9	(3)	(2)	(3)
학년별	중1	4.6		5.7	14.6	7.6	6.5	20.5	79.9	29.6	60.3	12.5	58.3	68.99*** (15)	24.46** (10)	48.34*** (15)
	중2	7.9		7.0	17.8	10.7	11.7	21.6	76.9	36.7	52.6	12.4	44.6			
	중3	4.8		4.0	13.5	16.5	11.3	29.6	70.3	38.1	52.1	13.2	46.6			
	고1	12.0		5.7	17.7	9.2	15.4	30.0	78.3	42.0	40.3	12.5	36.8			
	고2	6.9		(3.5)	13.3	7.8	13.4	28.2	77.4	43.9	51.6	14.7	39.2			
	고3	2.2		6.8	7.4	7.9	15.8	33.6	79.3	40.3	56.8	12.8	37.1			
성 별	남	4.8		5.6	13.3	11.1	12.4	28.7	77.0	43.4	53.2	11.9	38.7	9.87* (3)	4.80 (2)	18.35*** (3)
	여	8.1		4.8	14.5	8.7	12.8	27.2	77.4	35.0	50.2	13.9	47.4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6.6		6.0	13.4	9.8	11.4	26.7	76.7	41.6	53.3	13.6	41.0	9.15 (6)	8.23 (4)	13.22* (6)
	중	5.6		3.9	13.2	8.7	11.7	30.6	80.2	38.8	50.6	11.1	45.6			
	중하·하	8.0		6.8	16.2	11.4	14.8	25.3	73.9	37.2	50.5	14.7	41.2			
전 세		6.4		5.1	13.9	9.7	12.4	27.7	76.	38.6	51.3	12.9	42.4	99.3	98.6	98.5

*p<.05, **p<.01, ***p<.001

(단위 : %)

< 표 56 >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4.9		5.3	23.5	3.1	15.2	52.5	90.4	56.3	19.0	6.5	23.2	25.27*** (3)	2.15 (2)	4.35 (3)
	고	3.4		4.6	25.9	4.1	16.7	59.1	88.7	58.8	11.6	7.3	19.9			
학년별	중1	3.3		4.4	24.0	2.9	11.4	52.7	91.6	51.5	20.0	5.5	32.8	51.91*** (15)	6.49 (10)	44.30*** (15)
	중2	4.7		8.3	26.4	3.1	18.6	51.1	90.5	55.4	17.9	6.4	17.6			
	중3	5.7		3.5	21.1	3.3	14.8	53.6	88.9	59.6	19.6	7.8	22.1			
	고1	5.7		5.8	30.5	2.8	16.8	55.7	89.7	59.3	8.1	7.5	18.1			
	고2	3.7		2.4	26.2	4.8	17.3	59.7	88.3	60.7	10.4	6.9	19.7			
	고3	0.9		6.8	21.3	4.6	15.8	61.7	87.9	54.1	16.0	7.5	23.4			
성 별	남	4.3		7.0	25.2	4.9	18.2	54.4	87.4	59.0	16.1	7.7	15.8	1.59 (3)	13.46** (2)	51.38*** (3)
	여	4.1		2.9	24.2	2.3	13.9	57.1	91.6	56.1	14.6	6.1	27.0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2.8		3.7	22.7	2.7	14.3	57.1	90.7	54.9	17.4	6.6	27.1	23.60*** (6)	11.45* (4)	19.53** (6)
	중	3.4		4.7	25.4	2.7	14.3	57.3	91.2	59.8	14.0	6.1	21.2			
	중하·하	7.2		6.0	27.8	5.4	19.6	50.8	86.5	56.2	14.2	8.1	18.1			
전 세		4.2		4.8	24.5	3.5	15.7	55.3	88.2	56.5	15.2	6.8	21.0	99.1	98.5	98.1

*p<.05, **p<.01, ***p<.001

(단위 : %)

< 표 57 >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8.2		6.5	22.3	11.0	15.4	47.0	72.7	54.9	22.4	16.3	23.2	24.67*** (3)	0.09 (2)	9.69* (3)
	고	3.9		6.9	23.7	10.6	18.2	54.3	73.1	57.0	18.1	16.3	17.9			
학년별	총1	4.6		4.3	15.9	11.0	11.7	49.0	72.3	51.3	30.5	16.7	32.6	57.39*** (15)	6.72 (10)	37.39** (15)
	중2	6.1		8.6	24.2	12.4	15.3	46.8	73.1	56.1	22.9	14.5	20.1			
	총3	11.1		6.0	22.9	9.3	17.5	46.5	72.8	56.1	19.4	18.0	20.3			
	고1	6.7		7.6	23.9	9.2	15.5	52.2	73.1	59.8	17.2	17.8	17.1			
	고2	3.8		5.7	5.7	11.0	19.5	52.6	71.9	57.7	17.9	17.1	17.1			
	고3	1.5		8.2	21.3	11.8	20.0	58.0	74.8	51.4	19.1	13.4	20.5			
성 별	남	6.5		8.4	24.6	11.7	17.5	48.6	72.2	56.8	20.3	16.1	17.3	4.12 (3)	2.00 (2)	18.04*** (3)
	여	5.8		5.1	21.3	9.9	16.1	52.6	73.8	55.4	20.3	16.3	23.5			
학 교 성격별	상·중·상	4.6		8.0	22.9	10.4	15.5	49.8	74.8	56.0	22.7	14.8	20.4	40.05*** (6)	15.48** (4)	10.00 (6)
	중	5.9		4.9	18.3	8.6	16.4	55.9	75.5	57.0	19.9	15.9	21.7			
	중하·하	8.9		8.2	30.3	14.3	17.7	42.9	67.7	55.5	17.9	18.0	18.7			
전 계		6.1		6.6	22.7	10.6	16.5	50.1	71.8	55.0	20.1	16.1	20.0	98.9	98.5	98.1

***p<.001

(단위 : %)

< 표 58 >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3.0	19.9	11.3	39.1	52.6	45.7	38.5	22.9	32.5	9.5	4.6	10.6	61.23*** (3)	21.64*** (3)	71.67*** (3)
	고	5.3	17.7	4.1	31.3	46.6	36.4	51.4	27.7	43.2	12.0	8.1	16.3			
학년별	총1	9.7	18.6	15.9	46.1	56.7	52.4	27.6	19.8	24.5	6.6	4.8	7.3	108.11*** (15)	37.26** (15)	103.82*** (15)
	중2	14.1	18.2	9.1	37.9	53.0	45.0	37.9	23.6	34.1	10.0	5.1	11.9			
	총3	9.8	23.6	10.4	37.7	47.2	42.3	42.5	25.7	35.8	10.0	3.6	11.4			
	고1	3.7	15.8	3.4	29.3	48.8	39.4	49.3	29.1	44.3	17.7	6.4	12.9			
	고2	5.5	18.9	3.3	28.2	46.6	35.3	54.0	25.8	43.5	12.4	8.7	18.0			
	고3	6.5	18.2	7.1	36.5	43.9	32.6	50.5	28.7	41.1	6.5	9.2	19.2			
성 별	남	12.8	20.4	9.6	36.4	45.7	38.6	41.5	26.2	35.9	9.2	7.7	15.9	36.66*** (3)	19.17*** (3)	23.21*** (3)
	여	5.7	17.0	5.6	33.9	53.9	42.9	48.1	24.3	40.2	12.3	4.8	11.3			
학 교 성격별	상·중·상	11.7	20.0	10.4	39.4	56.5	43.7	43.4	20.0	34.7	5.6	3.4	11.2	62.07*** (3)	59.68*** (6)	76.14*** (6)
	중	7.1	19.6	8.3	35.6	50.3	44.8	47.1	24.7	38.0	10.1	5.4	8.9			
	중하·하	9.4	15.6	5.1	29.4	42.2	32.1	42.7	31.2	40.7	18.6	11.0	22.1			
전 계		9.2	18.7	7.5	35.1	49.4	40.6	44.6	25.1	37.9	10.8	6.3	13.5	99.5	99.5	99.6

p<.01, *p<.001

(단위 : %)

< 표 59 >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교급별	중	48.9		42.8	39.2	92.8	35.7	8.0	2.5	16.4	3.9	4.7	5.1	2.79 (3)	4.80 (2)	3.24 (3)
	고	52.6		43.3	36.1	94.2	32.8	7.6	2.9	19.1	3.6	2.9	4.9			
학년별	중1	55.9		47.4	32.9	90.5	33.0	9.2	2.9	12.6	2.0	6.6	7.0	75.52*** (15)	24.73** (10)	27.53* (15)
	중2	44.9		41.6	37.3	92.3	34.0	10.7	2.9	18.1	7.1	4.8	6.3			
	중3	49.7		41.1	42.9	96.1	38.6	5.4	1.5	17.3	2.0	2.4	3.0			
	고1	48.0		43.9	33.2	94.7	34.5	10.7	2.2	18.0	8.1	3.1	3.7			
	고2	50.1		44.2	38.3	95.5	33.0	9.2	1.7	19.0	2.3	2.9	3.8			
	고3	59.6		41.0	36.4	91.8	28.8	3.1	5.2	21.2	0.9	3.0	9.0			
성 별	남	52.5		39.4	37.8	91.8	31.8	7.2	3.4	21.7	2.5	4.8	7.1	9.52* (3)	9.40** (2)	42.45*** (3)
	여	49.3		46.7	37.4	95.0	36.4	8.4	2.0	14.0	4.9	2.9	2.9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57.6		52.3	32.1	95.3	32.6	6.6	2.4	12.0	3.7	2.3	3.1	26.17*** (6)	8.28 (4)	30.76*** (6)
	중	48.1		42.4	41.3	92.7	36.3	7.2	2.4	17.2	3.4	4.8	4.1			
	중하하	45.7		39.5	39.0	92.6	32.2	11.0	3.3	21.3	4.3	4.1	7.0			
전 체		50.5		42.3	37.3	91.8	33.6	7.7	2.6	17.5	3.8	3.8	4.9	99.2	98.2	98.4

*p<.05, ***p<.001

(단위 : %)

< 표 60 >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한	중	인
교급별	중	9.9		9.3	32.8	4.1	26.6	39.0	81.7	50.2	18.2	14.2	13.9	17.28*** (3)	0.78 (2)	5.91 (3)
	고	5.6		7.7	34.7	4.1	30.1	44.1	83.0	50.8	15.7	12.9	11.4			
학년별	중1	12.5		8.9	23.7	4.4	25.3	46.1	80.5	48.4	17.8	15.1	17.3	44.79*** (15)	7.11 (10)	28.30* (15)
	중2	8.2		10.6	36.2	4.3	24.0	35.9	80.2	53.8	19.7	80.2	11.5			
	중3	10.5		8.5	33.1	3.6	29.3	39.2	85.0	48.4	17.2	85.0	13.8			
	고1	7.4		7.3	37.2	4.2	27.0	44.6	80.6	54.5	10.7	80.6	11.3			
	고2	6.1		7.4	37.2	4.0	34.8	40.3	84.5	49.0	16.4	84.5	8.8			
	고3	3.4		9.0	29.6	3.9	26.6	47.5	83.9	47.7	19.4	12.1	16.7			
성 별	남	7.7		8.9	31.5	5.1	26.6	41.1	83.0	49.2	19.6	11.9	15.2	9.68* (3)	9.48** (2)	13.77** (3)
	여	7.9		8.0	35.7	3.1	30.2	41.7	81.8	51.8	14.6	15.1	10.0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5.2		5.7	27.5	1.4	21.5	44.5	90.7	55.6	22.7	8.0	17.2	78.87*** (6)	59.17*** (4)	54.47*** (6)
	중	5.9		6.7	35.3	3.8	28.1	43.7	81.7	54.7	15.2	14.6	10.4			
	중하하	14.6		12.6	39.1	6.8	33.5	33.7	74.3	41.0	12.6	18.9	12.9			
전 체		7.8		8.3	33.4	4.0	27.8	41.1	81.2	49.4	17.0	13.3	12.3	99.2	98.5	97.8

*p<.05, **p<.01, ***p<.001

(단위 : %)

< 표 61 >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7.2		23.9	36.5	44.2	31.5	25.5	41.0	33.7	10.8	14.7	10.9	7.60	4.56	3.12
	고	25.4		25.0	39.3	40.0	33.5	27.7	43.2	30.0	7.6	16.9	11.5	(3)	(2)	(3)
학년별	중1	23.0		23.6	33.6	43.6	22.3	28.3	37.9	41.0	15.1	18.5	13.1	41.30***	12.81	32.54**
	중2	24.1		26.3	33.7	45.4	36.5	31.0	41.3	27.6	11.2	13.2	9.5			
	중3	31.0		22.1	39.7	43.4	32.8	20.3	44.3	34.3	9.0	12.3	10.8			
	고1	26.5		25.8	34.6	40.7	34.5	31.5	41.6	28.2	7.4	17.7	11.5			
	고2	21.3		25.8	45.0	39.8	35.3	27.1	44.3	29.6	6.6	16.0	9.2			
	고3	28.7		22.1	37.7	39.3	28.4	24.7	43.6	33.8	9.0	17.0	15.8			
성 별	남	28.6		21.6	38.1	44.7	28.2	22.8	39.7	34.8	10.4	15.6	15.4	16.42***	6.20*	52.75***
	여	24.2		27.2	37.6	39.7	36.8	30.1	44.5	28.8	8.0	15.8	7.1			
학 교 성적별	상·중·상	25.7		21.1	34.0	38.1	32.9	31.7	44.9	35.7	8.6	17.1	10.3	17.14**	12.32*	10.53
	중	26.2		23.5	40.3	40.2	33.2	24.7	43.3	31.7	8.7	16.5	11.7			
	중하·하	27.2		28.7	39.2	47.8	31.1	22.5	38.4	28.9	11.1	13.8	11.4			
전 계		26.1		24.0	37.5	41.5	32.0	26.4	41.4	31.3	9.2	15.5	11.0	99.2	98.4	98.4

p<.01, *p<.001

(단위 : %)

< 표 62 >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13.5	24.6	20.7	39.0	33.0	34.2	36.0	32.9	34.6	11.5	9.5	10.5	20.62***	30.59***	12.59**
	고	11.3	15.2	20.4	43.6	37.1	32.0	38.8	37.4	40.6	6.3	10.3	6.9			
학년별	중1	17.2	21.6	25.2	29.8	34.5	35.5	39.1	32.7	31.6	13.9	11.2	7.7	38.82***	40.48***	30.66**
	중2	10.9	25.5	20.2	45.4	32.1	30.4	34.2	33.0	35.1	9.6	9.4	14.3			
	중3	14.4	26.9	18.5	37.0	32.5	36.5	36.4	32.8	36.0	12.2	7.8	9.0			
	고1	9.6	13.9	21.0	45.7	39.3	30.8	37.1	35.7	40.9	7.6	11.1	7.3			
	고2	11.4	14.2	19.1	42.9	37.9	32.7	39.1	37.9	42.4	6.6	10.0	5.9			
	고3	12.7	18.3	22.0	42.6	33.2	32.7	40.1	38.5	36.8	4.6	10.0	8.5			
성 별	남	15.0	23.4	25.3	41.0	35.2	32.9	35.4	32.2	34.6	8.6	9.2	7.3	11.66**	18.34***	30.26***
	여	10.1	16.9	15.9	41.4	34.5	33.3	39.4	37.9	40.8	9.2	10.7	10.0			
학 교 성적별	상·중·상	15.7	19.8	26.0	44.6	34.8	35.9	34.0	37.3	30.5	5.7	8.1	7.6	36.61***	9.23	24.02***
	중	9.0	20.0	18.4	42.7	35.5	34.6	38.9	34.9	39.1	9.4	9.6	8.0			
	중하·하	13.6	20.9	21.2	34.9	33.7	27.8	39.6	32.6	40.4	12.0	12.8	10.7			
전 계		12.4	19.8	20.4	41.1	34.6	32.9	37.2	34.7	37.5	8.8	9.8	8.6	99.5	98.9	99.4

p<.01, *p<.001

(단위 : %)

< 표 63 >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38.5		34.2	39.8	69.7	38.1	12.8	18.1	22.9	8.8	12.2	4.8	8.97*	18.34***	1.10
	고	34.9		34.1	45.7	77.6	39.1	12.9	13.8	21.3	6.5	8.6	5.5	(3)	(2)	(3)
학년별	중1	46.0		37.4	34.7	63.4	34.3	8.7	20.5	22.6	10.7	16.1	5.7	39.52***	43.31***	17.19
	중2	37.3		31.7	40.0	69.1	37.8	15.3	18.4	25.1	7.4	12.4	5.4			
	중3	37.0		34.3	41.4	77.5	40.6	12.2	15.0	21.3	9.4	7.5	3.8			
	고1	32.9		37.2	40.6	78.1	36.9	17.4	11.9	21.2	9.1	10.0	4.7			
	고2	32.4		33.6	48.3	79.3	41.7	13.9	13.3	20.5	5.5	7.4	4.3			
	고3	39.5		30.2	47.5	74.8	37.8	7.7	16.7	23.0	5.2	8.5	9.0			
성별	남	39.4		32.7	41.4	69.4	35.7	11.5	18.0	25.0	7.7	12.6	6.7	7.24	18.52***	22.08***
	여	34.2		35.7	43.9	77.4	41.5	14.3	14.1	19.2	7.7	8.6	3.6	(3)	(2)	(3)
학교성격별	상·중·상	43.1		33.1	38.8	75.9	42.0	11.4	13.9	19.4	6.6	10.1	5.4	23.96***	4.56	10.76
	중	34.1		32.4	45.3	72.2	40.1	13.2	16.9	22.6	7.4	10.9	4.9			
	중·하·하	31.4		38.5	43.0	71.5	33.8	15.7	17.9	22.7	9.9	10.7	5.0	(6)	(4)	(6)
전체		36.4		33.6	42.2	72.4	38.0	12.8	15.7	21.7	7.6	10.2	5.0	99.1	98.4	98.3

*p<.05, ***p<.001

(단위 : %)

< 표 64 > 직업선택시 고려조건

		수입이 안정되어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중요한 재임이 맡겨지는 직업			노후하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26.6	11.1	23.0	64.3	55.1	49.4	1.5	27.2	15.3	7.6	6.7	12.3	7.92*	74.38***	18.24***
	고	30.0	17.8	19.2	58.4	62.6	58.4	2.3	13.5	11.0	9.3	6.1	11.5	(3)	(3)	(3)
학년별	중1	15.1	12.0	21.9	73.0	48.3	46.4	2.0	34.0	21.0	9.9	5.6	10.7	38.17***	113.22***	38.31***
	중2	25.6	11.7	26.9	64.3	59.3	47.5	1.9	22.0	13.1	8.2	7.0	12.5			
	중3	31.2	9.2	20.5	61.4	57.6	52.8	1.1	25.8	13.8	6.3	7.4	13.0			
	고1	25.2	12.2	17.9	65.6	68.5	59.3	2.0	13.8	11.9	7.3	5.5	10.9			
	고2	34.6	19.3	20.1	51.4	60.6	60.2	2.6	13.7	8.4	11.4	6.4	11.2			
	고3	9.6	22.4	19.3	59.3	58.2	53.8	2.2	12.8	14.3	9.0	6.6	12.6			
성별	남	29.9	12.8	21.2	56.7	57.2	55.9	2.5	22.4	11.7	10.9	7.6	11.2	25.68***	11.96**	4.69
	여	26.6	15.8	20.7	66.0	59.9	52.4	1.3	19.0	14.4	6.1	5.3	12.4	(3)	(3)	(3)
학교성격별	상·중·상	30.4	13.1	20.2	59.4	61.0	55.9	2.9	21.3	15.7	7.2	4.5	8.1	9.67	13.98*	9.21
	중	27.7	14.3	21.9	62.2	58.4	53.1	1.6	20.8	12.8	8.6	6.4	12.2			
	중·하·하	26.4	16.6	20.1	62.7	55.2	54.7	1.2	19.2	11.9	9.7	9.0	13.3	(6)	(6)	(6)
전체		28.2	14.3	20.8	61.2	58.5	53.7	1.9	20.4	13.0	8.5	6.4	11.8	99.8	99.6	99.3

*p<.05, **p<.01, ***p<.001

(단위 : %)

< 표 65 >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5.8	34.4	13.5	42.2	39.3	30.0	27.9	22.3	44.9	4.1	4.0	11.6	21.99***	12.98**	3.34
	고	26.3	32.7	11.8	50.0	44.9	29.2	21.8	20.3	45.0	1.8	2.0	14.0	(3)	(3)	(3)
학년별	중1	25.7	33.0	15.9	37.5	39.2	34.8	30.3	22.9	40.8	6.6	4.9	8.6	64.61***	25.56*	18.70
	중2	19.0	37.9	14.7	45.1	39.3	28.1	32.1	20.0	44.7	3.8	2.8	12.5			
	중3	31.3	31.4	11.2	41.5	39.5	28.8	23.7	24.6	47.4	3.5	4.5	12.7			
	고1	19.9	33.9	10.6	51.7	41.6	30.0	26.8	22.0	46.3	1.7	2.5	13.2			
	고2	26.0	31.2	10.8	51.7	46.3	28.8	19.1	21.0	46.7	3.1	1.4	13.7			
	고3	32.7	33.4	16.0	46.6	17.2	28.4	20.1	17.2	40.0	0.6	2.3	15.6			
성 별	남	30.2	34.6	16.6	45.9	38.4	31.1	21.4	23.6	40.9	2.6	3.5	11.4	22.16***	12.73**	35.51***
	여	22.3	32.5	8.8	46.1	45.4	28.0	28.3	19.4	49.0	3.4	2.7	14.2	(3)	(3)	(3)
학 교 성격별	상·중상	28.0	31.6	13.7	44.1	43.0	32.8	25.6	22.2	39.5	2.3	3.3	14.0	16.34*	13.25*	12.53
	중	22.4	32.4	12.4	49.0	44.0	30.2	25.8	19.9	46.9	2.9	3.6	10.4			
	중하·하	30.3	38.7	12.3	43.1	38.2	26.7	22.4	21.4	46.6	4.3	1.7	14.4			
전 세		26.0	33.2	12.6	45.9	41.6	29.4	24.7	21.1	44.7	3.0	3.0	12.8	99.6	99.0	99.5

*p<.05, **p<.01, ***p<.001

(단위 : %)

< 표 66 >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7.2	37.9	10.9	28.7	34.6	15.5	31.4	21.7	47.7	12.8	5.8	25.9	6.73	9.22*	33.50***
	고	24.4	32.7	6.6	31.9	39.9	12.4	33.6	22.4	44.4	10.2	5.1	36.6	(3)	(3)	(3)
학년별	중1	27.0	33.2	11.9	30.3	39.3	21.7	25.7	22.3	41.7	17.1	5.2	24.7	72.27***	24.85	66.42***
	중2	25.4	38.9	10.6	26.5	34.5	11.5	37.2	20.7	49.8	10.9	5.8	28.0			
	중3	28.6	42.0	10.7	29.9	29.5	15.1	28.6	22.3	49.5	12.8	6.3	24.8			
	고1	15.3	36.9	7.5	30.2	36.6	14.2	42.5	20.9	48.3	12.0	5.5	30.0			
	고2	21.6	29.3	4.4	30.5	42.3	11.0	36.5	22.9		11.5	5.4	40.0			
	고3	35.8	32.2	9.4	34.9	40.5	12.1	22.2	23.3	36.8	7.1	4.0	41.7			
성 별	남	32.5	38.2	13.9	30.7	36.8	18.1	26.9	19.5	43.6	9.9	5.6	24.4	57.32***	11.65**	117.63***
	여	19.2	32.5	3.7	29.6	37.7	9.8	38.1	24.5	48.2	13.1	5.3	38.4	(3)	(3)	(3)
학 교 성격별	상·중상	25.2	33.7	11.5	30.3	38.0	15.4	33.8	22.3	41.5	10.7	6.0	31.7	12.71*	5.08	7.85
	중	23.0	34.4	7.6	32.1	38.9	14.2	33.3	21.5	46.7	11.6	5.3	31.5			
	중하·하	31.2	37.7	8.7	27.8	33.7	12.6	29.0	23.4	47.6	12.0	5.2	31.1			
전 세		25.7	35.0	8.7	30.1	36.9	13.9	32.4	21.8	45.8	11.5	5.4	31.3	99.6	99.1	99.7

*p<.05, **p<.01, ***p<.001

(단위 : %)

< 표 67 >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31.4	8.9	25.5	54.3	21.7	50.6	11.4	46.5	20.4	2.9	22.9	3.6	8.86*	34.94***	76.41***
	고	30.7	9.6	37.3	58.3	30.9	52.2	9.8	44.0	8.5	1.2	15.5	2.0	(3)	(3)	(3)
학년별	중1	23.7	6.9	20.2	46.1	17.9	45.1	23.7	48.6	28.3	6.6	26.6	6.4	84.17***	52.37***	129.27***
	중2	30.4	8.6	23.9	59.0	24.5	54.0	10.1	45.1	19.9	0.5	21.7	2.2			
	중3	34.7	11.6	29.9	53.4	22.4	51.0	8.5	46.0	16.2	3.5	20.0	3.0			
	고1	38.1	8.6	30.5	54.3	29.6	57.4	6.6	43.1	10.1	1.0	18.8	2.1			
	고2	28.9	10.1	39.1	61.7	32.1	51.5	8.3	44.3	8.2	1.1	13.4	1.2			
	고3	25.7	10.2	46.0	58.2	30.7	44.2	14.6	44.6	6.3	1.5	14.5	3.6			
성 별	남	30.5	10.2	36.6	55.3	25.4	47.2	11.5	44.6	13.3	2.8	19.8	2.9	6.06	3.00	22.76***
	여	31.7	8.3	26.9	57.1	26.6	55.5	9.8	46.2	15.1	1.4	18.9	2.6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29.5	8.5	32.3	56.9	23.8	52.0	11.5	47.9	11.8	2.0	19.8	3.9	12.24	6.32	12.69*
	중	29.4	9.2	29.2	58.7	27.8	54.3	10.4	44.9	14.4	1.6	18.1	2.0			
	중하·하	36.7	10.5	35.0	51.1	27.2	47.3	9.5	42.9	14.9	2.6	19.3	2.8	(6)	(6)	(6)
전 체		31.1	9.2	31.5	56.1	26.0	51.2	10.6	45.1	14.1	2.1	19.2	2.7	99.8	99.5	99.6

*p<.05, ***p<.001

(단위 : %)

< 표 68 >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9.5	6.5	23.3	31.1	19.1	28.3	28.8	29.5	25.1	30.6	44.9	23.4	17.93***	36.76***	8.19*
	고	9.9	5.4	22.6	38.0	23.7	33.4	29.4	37.6	24.6	22.8	33.3	19.4	(3)	(3)	(3)
학년별	중1	9.9	8.8	18.3	21.7	15.8	26.8	22.4	25.6	28.5	46.1	49.9	26.4	59.74***	61.27***	54.10***
	중2	7.9	4.9	27.7	34.2	21.0	27.1	31.1	30.8	24.3	26.8	43.4	20.9			
	중3	10.7	5.9	22.6	31.8	20.5	30.0	29.0	32.3	23.8	28.5	41.2	23.6			
	고1	10.3	7.2	19.0	44.5	22.3	31.7	27.2	38.8	21.6	17.9	31.7	21.6			
	고2	9.7	5.4	28.8	38.7	24.1	37.2	26.6	34.0	20.8	24.9	36.6	13.1			
	고3	9.6	3.3	17.0	31.2	24.8	29.0	34.3	41.1	26.3	25.0	30.8	27.7			
성 별	남	10.9	5.4	24.1	32.4	21.9	31.3	29.5	34.1	25.2	27.2	38.6	19.4	5.29	1.89	4.88
	여	8.6	6.3	21.7	36.5	20.5	30.5	28.6	32.8	24.6	26.4	40.3	23.2	(3)	(3)	(3)
학 교 성 격 별	상·중·상	7.1	5.5	22.5	35.3	19.7	31.2	27.7	31.2	23.0	29.9	43.6	23.3	25.44***	13.57*	5.34
	중	9.2	5.2	23.2	32.9	21.5	30.5	30.7	34.2	26.9	27.2	39.1	19.4			
	중하·하	14.6	8.0	22.5	36.2	20.9	31.5	26.7	36.2	23.4	22.5	34.9	22.6	(6)	(6)	(6)
전 체		9.6	5.9	22.8	34.4	21.2	30.8	28.9	33.2	24.7	26.5	39.1	21.2	99.5	99.4	99.6

*p<.05, ***p<.001

(단위 : %)

< 표 69 >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16.6	13.4	21.0	26.5	17.9	33.2	35.3	34.4	36.2	21.7	34.2	9.6	32.83***	13.96**	10.12*
	고	8.2	10.3	15.8	29.5	23.2	35.2	40.6	35.6	40.1	21.6	30.9	8.9			
학년별	중1	25.0	14.0	22.7	25.7	15.3	32.6	29.6	36.9	33.5	19.7	33.8	11.2	77.91***	28.48*	30.85**
	중2	15.0	12.9	23.5	27.9	19.2	30.1	36.9	32.9	35.7	20.2	35.0	10.7			
	중3	15.0	13.4	17.9	25.7	19.4	36.1	35.9	33.4	38.1	23.5	33.7	8.0			
	고1	10.6	13.8	16.8	34.6	24.6	35.4	36.5	34.3	38.5	18.3	27.3	9.3			
	고2	7.4	10.2	15.6	34.0	21.6	36.8	40.6	35.6	41.7	18.3	32.5	5.9			
	고3	6.8	6.3	14.7	20.1	23.6	31.3	44.4	37.2	40.2	28.7	32.9	13.8			
성 별	남	13.7	11.4	20.5	26.8	19.4	28.0	36.5	35.0	40.5	22.9	34.2	10.9	5.70	2.88	34.96***
	여	11.2	12.4	16.1	29.1	21.3	40.2	39.2	35.0	36.0	20.5	31.3	7.7			
학 교 성적별	상·중상	9.4	11.2	14.0	24.8	17.4	28.4	41.2	34.3	43.3	24.5	37.1	14.3	44.36***	15.20*	24.14***
	중	10.5	12.8	19.1	29.6	21.2	35.4	37.8	36.6	37.0	22.1	29.3	8.5			
	중하·하	19.6	11.7	19.9	30.8	23.4	36.0	32.2	33.8	36.5	17.4	31.1	7.7			
전 계		12.4	11.8	18.2	28.1	20.3	34.0	37.7	34.6	38.0	21.6	32.3	9.2	99.5	99.0	99.3

*p<.05, **p<.01, ***p<.001

(단위 : %)

< 표 70 >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육별	중	16.7	39.9	27.8	46.9	49.3	60.0	33.1	8.9	10.4	3.3	1.8	1.8	38.54***	32.47***	25.91***
	고	7.7	28.7	19.7	53.0	59.0	62.2	36.7	10.7	15.1	2.6	1.5	3.0			
학년별	중1	21.9	45.0	30.8	21.9	46.1	58.5	30.5	6.8	8.5	2.6	2.1	2.1	69.64***	47.77***	60.70***
	중2	15.3	37.2	25.9	50.3	51.3	59.4	31.7	9.6	11.6	2.7	1.9	3.1			
	중3	16.1	37.6	27.5	44.9	50.4	61.3	35.1	10.4	10.7	3.9	1.5	0.5			
	고1	4.7	32.5	21.5	48.8	57.9	63.5	42.2	8.5	13.5	4.3	1.1	1.6			
	고2	5.7	28.3	17.1	54.3	58.5	66.0	37.4	11.8	14.6	2.6	1.4	2.3			
	고3	12.7	24.8	21.4	55.6	61.3	52.7	30.9	11.9	19.2	0.9	2.0	6.7			
성 별	남	14.0	34.9	20.5	49.5	50.7	59.7	33.2	12.2	16.1	3.3	2.1	3.7	7.43	19.07***	38.96***
	여	10.5	33.9	26.6	50.3	57.2	62.5	36.6	7.6	9.7	2.6	1.2	1.1			
학 교 성적별	상·중상	11.7	33.1	26.6	51.2	54.3	59.4	34.8	10.8	12.0	2.3	1.8	2.0	6.42	3.99	12.33
	중	11.1	34.3	21.8	51.0	55.2	64.3	35.0	9.1	11.7	3.0	1.5	2.2			
	중하·하	14.6	35.8	24.7	46.6	51.3	56.8	35.2	10.8	15.5	3.6	2.1	2.9			
전 계		12.2	34.1	23.4	49.6	53.5	60.8	34.8	9.7	12.8	2.9	1.6	2.4	99.6	99.0	99.5

***p<.001

(단위 : %)

< 표 71 >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공부, 성적			친화	신용 또는 이상행태	친구			가족관계			위협(잠재적)			건강			특리	자신의 외모나 성격			특별한 걱정거리			χ^2 (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류별	중	49.9	35.7	34.2	19.7	28.5	12.4	4.5	4.2	4.4	5.3	7.1	0.5	1.2	1.1	2.4	0.5	2.5	1.1	6.1	1.5	8.2	5.9	9.6	17.3	63.47***	93.55***	94.03***	(10)				
	고	45.2	34.3	22.0	20.4	24.3	13.9	4.5	10.1	3.4	5.3	7.6	1.5	1.8	2.4	1.1	1.5	1.7	2.7	3.1	0.4	0.5	0.4	3.7	5.1	11.2							
학년별	총1	59.7	43.1	32.5	2.7	15.1	5.1	4.1	1.5	4.1	6.5	8.1	1.5	1.5	4.1	1.1	2.4	2.1	3.1	1.2	4.4	2.4	5.4	12.3	26.3								
	총2	54.4	40.0	36.2	11.0	26.3	7.1	5.5	4.5	6.2	9.1	1.8	1.2	1.5	2.1	1.5	0.8	0.5	1.1	2.3	1.4	8.4	1.4	8.0	6.2	20.5							
	총3	43.1	21.6	33.7	32.2	46.8	20.6	4.8	3.5	6.1	0.4	1.2	1.8	3.5	6.1	10.3	2.4	1.2	1.5	1.1	2.1	0.5	1.2	3.5	10.8	9.5	30.41***	346.66***	238.55***	(50)			
	교1	59.1	49.6	28.6	6.8	15.0	9.9	5.1	6.1	10.1	5.1	4.4	8.5	2.1	1.1	4.4	11.2	2.4	1.7	2.3	1.5	2.5	3.0	0.4	0.4	11.1	5.7	6.4	13.0				
	교2	48.9	31.6	17.5	17.8	27.1	12.8	3.5	1.1	4.5	6.5	8.1	3.2	2.5	2.4	8.5	17.9	3.4	1.8	1.5	0.5	2.8	3.5	1.1	1.5	0.4	5.7	11.1	3.4	4.8	9.7		
	교3	28.7	19.6	19.2	35.5	31.9	23.5	4.5	3.4	7.2	1.2	4.5	5.2	0.5	1.5	19.1	31.1	18.3	3.1	1.5	0.1	2.3	1.5	3.5	0.4	1.1	2.2	4.0	10.8				
성별	남	44.3	34.9	26.0	22.5	25.1	13.6	5.4	5.2	8.2	2.8	5.4	1.5	1.8	0.5	9.2	13.9	3.5	1.4	1.4	1.8	3.4	1.2	2.4	1.1	3.4	7.7	15.0	66.21***	14.08	61.31***	(10)	
	여	59.6	35.0	28.0	17.6	27.8	12.8	3.5	3.5	7.1	5.4	1.1	1.2	1.2	2.4	5.1	14.1	9.5	1.5	2.4	0.5	2.1	1.5	0.4	1.1	1.1	10.1	6.0	7.2	13.2			
학력 상차별	상· 중상	40.6	30.6	18.6	19.2	26.6	15.5	6.4	9.2	4.8	5.4	7.1	1.5	1.8	1.1	8.2	13.1	4.9	2.5	1.1	3.1	0.4	1.1	1.5	1.2	9.5	8.5	10.0	15.8				
	중 하차별	52.6	33.7	25.0	21.4	28.0	13.1	3.1	3.5	0.4	2.5	5.4	8.2	0.5	1.8	2.4	5.4	14.1	2.1	0.5	1.4	1.5	1.4	0.4	0.4	5.2	4.2	7.4	16.0	59.81***	57.23***	56.51***	(20)
전 계	중하 층	48.1	43.7	35.7	18.9	23.3	12.1	4.4	4.4	8.1	4.1	4.2	6.1	1.4	0.8	1.4	8.1	13.1	2.1	1.5	1.1	1.1	3.1	0.4	0.4	6.4	1.2	3.1	3.7	10.6			
		47.0	34.5	27.2	19.7	26.1	12.9	4.6	4.2	7.4	3.5	5.4	7.4	1.4	1.1	7.1	13.1	12.4	2.4	1.4	1.1	1.5	2.4	0.4	1.5	0.4	5.1	0.5	7.3	13.8	98.9	98.5	97.8

(단위 : %)

***p<0.01

< 표 72 >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급별	중	21.6	24.8	15.5	37.9	34.2	29.8	32.3	30.8	40.0	8.2	10.2	14.6	15.56**	19.51***	6.17
	고	25.2	29.0	18.3	42.8	38.3	32.3	25.4	26.2	35.4	6.5	6.5	14.0	(3)	(3)	(3)
학년별	중1	14.5	24.7	11.5	31.6	34.1	39.1	45.4	31.5	36.6	8.6	31.5	12.8	47.42***	38.11***	33.44**
	중2	19.2	20.9	15.3	41.9	38.6	28.0	30.4	29.6	39.3	8.5	29.6	17.4			
	중3	25.8	29.7	18.1	36.9	28.8	25.8	29.5	31.5	42.7	7.8	31.5	13.4			
	고1	22.7	28.5	16.5	25.8	34.5	32.0	31.0	29.8	39.8	7.0	29.8	11.6			
	고2	23.8	28.1	18.3	45.6	39.4	34.3	24.4	26.7	32.9	6.3	26.7	14.6			
	고3	29.2	30.8	21.3	43.2	41.4	29.3	21.4	21.2	32.0	6.2	6.6	17.3			
성별	남	28.3	30.9	19.5	42.2	37.2	33.5	24.9	25.9	35.3	4.6	6.0	11.8	52.65***	34.17***	22.37***
	여	18.5	22.7	14.6	38.4	35.5	28.8	33.1	31.1	39.8	10.1	10.7	16.8	(3)	(3)	(3)
학교성격별	상중상	25.3	25.0	16.9	42.7	35.6	36.2	25.7	31.0	32.9	6.3	8.4	14.0	12.16	8.85	17.07**
	중	21.2	25.7	17.1	39.7	37.0	32.0	31.8	28.9	39.1	7.3	8.5	11.9			
	불하하	25.3	30.4	17.3	38.5	37.1	27.8	27.3	24.2	37.0	9.0	8.3	17.8	(6)	(6)	(6)
전체		23.2	26.5	16.9	40.1	35.8	31.0	28.8	28.2	37.5	7.4	8.3	14.3	99.6	98.9	99.7

p<.01, *p<.001

(단위 : %)

< 표 73 >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니까?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상급생			학교 선생님			신문, 잡지, 코믹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기타			$\chi^2(df)$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교류별	중	7.3	11.1	5.4	1.5	0.7	1.7	51.8	13.8	43.8	1.0	1.3	3.5	5.2	28.5	11.7	2.9	19.4	19.0	13.9	14.3	5.3	13.9	7.4	3.4	3.7	3.5	5.5	53.58***	163.07***	52.49***	(6)
	고	4.5	4.8	2.2	1.1	0.8	1.2	53.1	21.4	46.1	0.4	1.3	10.3	11.3	7.0	2.7	31.1	27.5	18.8	16.7	27.5	18.8	8.9	6.2	3.9	4.7	6.2					
학년별	중1	14.1	14.0	6.2	0.7	0.5	1.3	41.6	13.2	28.8	1.3	2.2	4.9	23.5	26.9	25.2	4.0	19.2	17.3	2.7	12.6	6.2	8.1	6.6	3.5	4.0	4.7	6.6				
	중2	10.3	8.6	6.6	3.1	0.7	2.3	49.4	13.3	42.6	0.6	1.2	3.0	15.0	35.6	9.2	4.2	15.8	19.0	2.5	15.1	7.9	10.6	7.2	3.9	4.4	2.5	5.6				
	중3	2.6	10.8	4.1	0.4	0.9	1.5	57.0	15.1	53.5	1.3	0.3	3.1	7.5	21.6	5.9	6.4	24.1	20.1	3.3	15.1	4.1	18.4	8.6	2.8	3.1	3.4	4.9	363.41***	241.27***	165.76***	(40)
	고1	6.0	5.8	2.9	1.0	1.2	1.3	57.0	19.1	48.8	0.7	1.2	2.4	9.1	15.0	7.2	10.1	30.9	26.0	3.4	14.5	5.3	10.1	6.4	1.6	2.7	6.1	4.5				
	고2	4.4	3.6	1.4	0.3	1.0	1.0	52.6	23.1	44.7	0.3	0.6	0.5	3.8	10.8	5.5	10.2	26.9	30.8	2.6	19.0	6.7	20.9	12.0	3.1	4.9	3.6	6.3				
	고3	3.1	5.2	1.9	2.2	0.0	1.4	50.0	21.9	44.6	0.3	0.0	0.9	3.1	7.6	9.9	10.6	37.5	23.9	2.2	16.0	5.2	24.5	7.3	3.3	4.0	4.5	8.9				
성별	남	2.7	3.4	2.7	0.8	0.4	1.4	52.6	19.3	45.0	1.0	1.0	3.2	6.6	20.1	9.3	8.5	26.9	21.4	2.1	14.8	5.6	21.2	9.4	4.3	4.5	4.6	7.1	85.33***	69.14***	31.67***	(6)
	여	9.1	12.4	4.6	1.9	0.9	1.5	52.0	15.8	45.2	0.4	0.7	1.4	11.2	20.3	9.3	7.0	23.3	25.3	3.5	16.1	6.2	11.7	6.9	1.6	3.2	3.6	4.6				
학교 성격별	상	5.2	10.0	1.7	1.7	0.8	0.6	55.2	19.3	42.6	0.2	1.1	1.5	8.5	19.7	11.4	7.9	21.9	29.2	2.6	17.4	5.2	13.9	6.6	1.5	4.8	3.1	6.4				
	중상	6.6	7.9	4.2	0.9	0.9	1.5	54.2	16.8	45.6	1.1	0.6	1.7	10.0	20.4	9.8	7.0	25.8	22.6	2.5	15.0	6.4	15.3	8.4	2.5	2.5	4.2	5.6	34.95***	20.58	33.94**	(16)
	중하	5.4	6.1	3.7	1.5	0.4	1.7	46.3	17.8	46.2	1.0	0.6	3.7	7.1	22.0	7.1	8.6	24.8	22.4	3.3	13.7	5.1	21.7	9.3	4.4	5.0	5.3	5.7				
전체	5.8	7.6	3.6	1.3	0.7	1.4	51.6	16.7	42.3	0.7	0.8	2.2	8.8	19.1	8.9	7.6	23.9	22.5	2.7	14.7	5.7	16.1	7.7	2.8	3.8	3.9	5.6	95.1	96.2			

(단위 : %)

*p<.05, **p<.01, ***p<.001

부록 2. 설문지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및 사회 전반에 관해 느끼고 있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또 그것이 누구의 응답인지도 일체 밝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물음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997. 5.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연구진 : 정희옥, 전경숙, 권오실

연락처 : TEL (02) 578-7926 / FAX (02) 578-9356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V표하시기 바랍니다.

- 1) 학 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2) 성 별 (①남 ②여)
 3) 학 교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4) 학교의 성적(①상·중상 ②중 ③중하·하)

1.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항목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대단히 만족 ②만족하는 편 ③ 별로 만족안함 ④ 전혀 만족 안함

- | | | | | |
|-----------------------|-------|-------|-------|-------|
| 1) 가정생활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 학교생활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 친구관계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4) 우리사회 전반
(정치·경제)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5) 나 자신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2.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공부, 성적 | ②진학 | ③결혼 또는 이성 |
| ④친구 | ⑤가족관계 | ⑥취직(장래직업) |
| ⑦가정의 경제사정 | ⑧건강 | ⑨폭력 |
| ⑩자신의 외모나 성격 | ⑪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다 | |

3.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 | | | |
|------------------------------|-------|-------|
| 1) 부모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한다 | _____ | _____ |
| 2)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 _____ | _____ |
| 3)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 _____ | _____ |
| 4) 가족들과 대화할 많이 한다 | _____ | _____ |
| 5)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 _____ | _____ |
| 6)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것이다 | _____ | _____ |
| 7) 가솔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 _____ | _____ |

4. 여러분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음의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선택하십시오.

- ① 타고난 재능 ② 재능보다는 꾸준한 노력 ③ 높은 학력
 ④ 건강 ⑤ 좋은 가문(가정배경) ⑥ 인품
 ⑦ 재산 ⑧ 운 ⑨ 유능한 사람과의 인맥

5.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다수선택 가능)

- ① 그 사람 자신이 일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
 ② 그 사람의 부모가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③ 사회나 주변사람의 책임
 ④ 그 사람의 타고난 팔자
 ⑤ 국가의 정치가 빈부의 차를 형성했기 때문
 ⑥ 기타 _____

6. 여러분이 장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중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수입이 안정되어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
 ②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③ 중요한 책임이 맡겨지는 직업
 ④ 느긋하고 마음 편하게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7. 앞으로 여러분의 국가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②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③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④ 예술, 문화적으로 성숙된 나라
 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
 ⑥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나라

8.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 우 ②그렇다 ③거 의 ④전 히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않 다

- | | | | | |
|------------------------------------|-------|-------|-------|-------|
| 1)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수가 많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없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4)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5)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6)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7) 나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색이 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8)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9) 장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0) 좋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1)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2)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3) 미래에 나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4)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5)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6) 학교성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7) 별 소용없는 학교공부가 많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9. 당신은 어느 정도의 학력을 희망합니까?

- | | | |
|----------|----------|---------|
| ①중학교 졸업 | ②고등학교 졸업 | ③대학교 졸업 |
| ④대학원석사학위 | ⑤박사학위 | |

10.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①전혀
없음 | ②거의
없음 | ③가끔
있음 | ④자주
있음 |
|-------------------------------|-----------|-----------|-----------|-----------|
| 1)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 구타 등 폭력을 휘두르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 위협하여 물건 빼앗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4) 폭력을 휘둘러 금품 빼앗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5) 한 사람을 따돌리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6) 집단으로 패싸움하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7) 학교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기물파괴하기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1. 여러분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①그렇다 | ②아니다 |
|--|-------|-------|
| 1) 폭력으로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 | _____ | _____ |
| 2)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폭력은 사용하지 않고) | _____ | _____ |
| 3)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 _____ | _____ |
| 4) 신체에 손을 대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_____ | _____ |
| 5)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_____ | _____ |

1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①그렇다 | ②아니다 |
|-----------------|-------|-------|
| 1) 가출하기 | _____ | _____ |
| 2) 담배 피우기 | _____ | _____ |
| 3) 술 마시기 | _____ | _____ |
| 4) 도박하기 | _____ | _____ |
| 5) 공공물건 부수기 | _____ | _____ |
| 6) 물건 훔치기 | _____ | _____ |
| 7)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 | _____ | _____ |

13. 여러분 자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①절대하면 안된다 ②그 사람 자유다

- 1) 가솔하기
- 2) 담배 피우기
- 3) 술 마시기
- 4) 도박하기
- 5) 공공물건 부수기
- 6) 물건 훔치기
- 7) 음란비디오나 잡지 보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4.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한 괴롭힘이나 패싸움 등이 일어나기 쉬운 때는 언제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학교수업 중 ②방학기간 ③급식시간
 ④방과후 ⑤학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
 ⑥변화가, 오락실 ⑦편의점 주변 ⑧공사장, 공원 ⑨기타

15. 여러분과 여러분 동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①매 우 ②그렇다 ③거 의 ④전 혀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 1)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
- 2)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 3) 내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은 별로 없다
- 4)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 5)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 6) 나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
- 7)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 8)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6. 평소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니까?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부모님 ②형제자매 ③친구들 ④상급생
 ⑤학교선생님 ⑥신문, 잡지, 코믹물 ⑦라디오, 텔레비전
 ⑧영화, 비디오 ⑨기타(_____)

1997年(平成9年)

日中韓3ヶ國中學生-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日本青少年研究所では、このたび中學生 高校生の 「生活と意識」について調査いたします。日本青少年研究所はこれまで、アメリカ教育省、日本の文部省、総務廳青少年對策本部などの調査をたくさん行ってきました。

この調査では、あなたのお名前を書く必要はありません。テストでもありません。お答えがすべてコンピュータへ入力されて處理されます。個人の秘密が完全に守られます。どうぞよろしくご協力ください。

この結果はきっと皆さんのしあわせのために役に立つと思います。

1997年 6月

- 記入のしかた -

1. お名前は書かなくて結構です。
2. 特にことわりがないがぎり、お答えは番號を○で囲んでください。

財團法人 日本青少年研究所
160 東京都新宿區霞岳町15番地
日本青年館ビル
電話 (03) 3475-2535

中學生・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 1) 學生 (① 1年生 ② 2年生 ③ 3年生)
 2) 性別 (① 男 ② 女)
 3) 學校 (① 中學校 ② 高等學校)
 4) 成績(あなた自分の評價) (①上・中の上 ② 中 ③ 中の下・下)

1. あなたは今, あなたやあなたの周りの生活にどの程度満足していますか. それぞれの項目について當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①とても 楽しい	②まあ 楽しい	③あまり 楽しくない	④全然 楽しくない
1) 家庭生活	_____	_____	_____	_____
2) 學校生活	_____	_____	_____	_____
3) 友達關係	_____	_____	_____	_____
4) 社會(政治, 經濟)	_____	_____	_____	_____
5) 今の自分自身	_____	_____	_____	_____

2. もし, 今悩みがあるとしたら, どんなことですか.

一番大きな悩み事を1つだけ選んで○をつけてください.

- ① 勉強や 成績 ② 進學 ③ 異性(結婚を含む) ④ 友達關係
 ⑤ 家族關係 ⑥就職について(將來の仕事) ⑦ 家の經濟事情など
 ⑧ 健康 ⑨ いじめ問題 ⑩自分の容姿や性格 ⑪ 特に悩み事はない

3. あなたは兩親(親)との關係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自分の意見を 「はい」 か 「いいえ」 の欄どちらかに○をつけて下さい.

	① はい	② いいえ
1) 兩親(親)の意見には絶対に従う	_____	_____
2) 兩親(親)を尊敬している	_____	_____
3) 兩親(親)によく反抗する	_____	_____
4) 家族(親など)とよく會話をする	_____	_____
5) 兩親(親)はよく干涉する方だ	_____	_____
6) 將來年取った兩親(親)の面倒をみたい	_____	_____
7) 家出をしたいと思うときがある	_____	_____

4. あなたが将来大人になって社会に出て成功するためには、次のどれが大切だと思いますか. 2つ選んでください.

- ① 生まれもった才能があること ② 才能より努力すること
- ③ 高い学力をつけること ④ 健康であること
- ⑤ 家柄(家族背景)がよいこと ⑥ 人に好かれるなど人柄がよいこと
- ⑦ 財産(金)があること ⑧ 運に恵まれること
- ⑨ 有力な人とコネを作ること

5. 世の中には恵まれず貧しい人がいます. その原因はどこにあると思いますか. あてはまるもののいくつで選んで○をしてください.

- ① その人自身が働けなかったり努力しなかったりするため
- ② その人の親や家族が恵まれない環境のため
- ③ 社会や周りの人たちの責任
- ④ その人のもって生まれた運命
- ⑤ その国の政治が貧富の差を生んでいる.
- ⑥ その他()

6. あなたが将来自分で仕事を選ぶとき, 次のどれが一番大切だと考えますか. 1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

- ① 安定した収入で, 生活が保証されること
- ② 自分の才能が生かせられ, 興味がもてること
- ③ 社会のためになり, やりがいがあること
- ④ のんびりと氣楽に普通の生活ができること

7. あなたが今住んでいる国が将来どのようになって欲しいと思いますか. 1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

- ① 戦争のない, 平和で安定した国
- ② 国民が豊かな生活ができる国
- ③ 犯罪や汚職のない国
- ④ 藝術や文化を大切にする国
- ⑤ 自然環境を大切にする国
- ⑥ 国際社会から信頼される国

8. 次には色々な意見が書かれています. あなたはどのように考えますか.

	全く そう 思う	まあ そう 思う	あまり そう思 わない	全く そう思 わない
1) 自分で稼いだお金は自由に使ってよい	①	②	③	④
2) 法律や規則を守ってばかりいると時 には損をする	①	②	③	④
3) たいしていのことは権力やお金で解決 できる	①	②	③	④
4) 今の社会は貧富の差のある人が多い	①	②	③	④
5) 自分が将来何をしたいのかまだわか らない	①	②	③	④
6) 将来のことより今を楽しむべきだ	①	②	③	④
7) 自分は他人にない特色がある	①	②	③	④
8) 学校だけでは學べない大事なことがある	①	②	③	④
9) 将来よい就業をすることが一番大事だ	①	②	③	④
10) 将来よい結婚相手をみつけることが 一番大事だ	①	②	③	④
11) いい学校に行けば, 将来が待っている	①	②	③	④
12) 弱い人や困っている人を見たら助け てあげる	①	②	③	④
13) 将来は自分の社会をつくりたい	①	②	③	④
14) 高學力の人的人格も立派で道徳的に優 れている人が多い	①	②	③	④
15) 大學を出なければ出世できない	①	②	③	④
16) 学校の成績はその人の能力を表している	①	②	③	④
17) やがて役に立たない勉強がたくさんある	①	②	③	④

9. あなたは次のどの最終學力まで勉強したいですか.

- ① 中學卒業 ② 高校卒業 ③ 大學卒業
④ 大學院修士學位取得 ⑤ 博士學位取得

10. あなたの學校で次のようなことがは起こりますか

それぞれ該當す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然 ない	ほとん ど ない	時々ある	ひんばん にある
1) 口(惡口や仲間はずれ)で人を いじめる	①	②	③	④
2) なぐる蹴るなどの暴力をふるう	①	②	③	④
3) 口でおどして金品を取る	①	②	③	④
4) 暴力をふるって金品を取る	①	②	③	④
5) 一人を集團で仲間はずれ にする	①	②	③	④
6) 仲間と仲間がけんかをする	①	②	③	④
7) 學校のガラスを割ったり物を壊 したりする	①	②	③	④

11.あなたはこの 一年の間に, 次のような經驗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それぞれ當てはまるところに○をして下さい.

	ある	ない
1) 暴力でお金をおどしとられたことがある.	①	②
2) お金をおどしとられたことがある(暴力はない)	①	②
3) なぐる, けるなどの暴力をふるわれたことがある	①	②
4) 体にさわったり, からかったりする性的いやがらせ を受けたことがある	①	②
5) 親から體罰をうけたことがある	①	②

12. あなたは次のような行動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か.

それぞれについて該當するところに○をして下さい.

	する	しない
1) 家出をする	①	②
2) たばこを吸う	①	②
3) 酒を飲む	①	②
4) かけごとをする	①	②
5) 公共の物を壊す	①	②
6) 万引きをする	①	②
7) アダルトビデオや雑誌を見る	①	②

13. では、あなた自身そのような行動をどう思いますか.

	絶対いけない	その人の自由 で良い
1) 家出をする	①	②
2) たばこを吸う	①	②
3) 酒を飲む	①	②
4) かけごとをする	①	②
5) 公共の物を壊す	①	②
6) 万引きをする	①	②
7) アダルトビデオや雑誌を見る	①	②

14. 一般に暴力によるいじめやけんかが起きやすいのはどんなときだと思いますか. あてはまると思うもの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下さい.

- ① 学校の授業中 ② 休み時間 ③ 給食の時間 ④ 放課後
 ⑤ 塾や学校の行き帰り ⑥ 繁華街, ゲームセンター
 ⑦ コンビニの周辺 ⑧ 空き地, 公園 ⑨ その他

15. あなた自身やクラスの人について質問します.

	全くそ う思う	まあそ う思う	あまり そう思 わない	全くそ う思わ ない
1) 自分のまわりには氣にくわない人が多い	①	②	③	④
2) 自分には本當の友達がいらない	①	②	③	④
3) 自分のことを氣にしてくれる人はいない	①	②	③	④
4) 自分は他の人より劣っていると思う	①	②	③	④
5) だれも自分をわかってくれない	①	②	③	④
6) 自分の性格や行動を変えたい	①	②	③	④
7) 人のまねをしたい人間になりたい	①	②	③	④
8) 自分で自分を尊敬できる人間になりたい	①	②	③	④

16. あなたは性に関する知識をどこから得ますか.

主なもの1つだけ選んで○をつけてください.

- ① 両親 ② 兄弟 ③ 友達 ④ 上級生 ⑤ 学校の先生
 ⑥ 新聞, 雑誌, コミック ⑦ ラジオ, テレビ ⑧ 映画, ビデオ ⑨ その他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编号 : _____

中·高学生生活意识调查

中·高学生朋友：

您好！

欢迎您参加全国“中学生生活意识”问卷调查，本调查是为了解中学生有关家庭、学校以及社会方面的意识而实施的，问卷采用不记名方式，其结果用计算机统计处理，您的个人秘密完全受到保护，请您真实回答。

衷心希望得到您的积极配合，谢谢！

“中学生生活意识调查”课题组

一九九七年五月

调 查 问 卷

你的基本情况

A. 你的年级：

- | | | |
|-------|-------|-------|
| 1. 初一 | 2. 初二 | 3. 初三 |
| 4. 高一 | 5. 高二 | 6. 高三 |

B. 你的性别：1. 男 2. 女

C. 你的年龄：_____岁

D. 你的学习成绩在班上属于：

- | | | |
|---------|------|---------|
| 1. 上、中上 | 2. 中 | 3. 中下、下 |
|---------|------|---------|

一、你对下列各项的满意程度如何？请在接近你想法的

☐内打“√”。

非常满意 基本满意 不太满意 不满意

- | | | | | | | | |
|--------------|--------------------------|-------|--------------------------|-------|--------------------------|-------|--------------------------|
| 1. 家庭生活····· | ☐ | ····· | ☐ | ····· | ☐ | ····· | ☐ |
| 2. 学校生活····· | ☐ | ····· | ☐ | ····· | ☐ | ····· | ☐ |
| 3. 朋友关系····· | ☐ | ····· | ☐ | ····· | ☐ | ····· | ☐ |
| 4. 当今社会····· | ☐ | ····· | ☐ | ····· | ☐ | ····· | ☐ |
| 5. 自己本人····· | ☐ | ····· | ☐ | ····· | ☐ | ····· | ☐ |

二、目前，你感到最烦恼的事是什么？请从下述各项中选一项。

- | | | |
|--------------|------------|--------------|
| 1. 学习、考试成绩 | 2. 升学 | 3. 异性关系 |
| 4. 朋友关系 | 5. 家庭关系 | 6. 就业(将来的工作) |
| 7. 家庭经济状况 | 8. 健康 | 9. 受欺负 |
| 10. 自己的容貌或性格 | 11. 没有什么烦恼 | |

三、你和父母的关系如何?请在“是”或“否”上打“√”。

- | | | |
|---------------------|--------|---|
| 1. 绝对听从父母的意见····· | 是····· | 否 |
| 2. 尊敬父母····· | 是····· | 否 |
| 3. 经常和父母作对····· | 是····· | 否 |
| 4. 同父母经常聊天····· | 是····· | 否 |
| 5. 父母常常干涉我····· | 是····· | 否 |
| 6. 我想将来照顾年老的父母····· | 是····· | 否 |
| 7. 曾想离家出走····· | 是····· | 否 |

四、将来你长大成人走向社会,为了取得成功,你认为下述各项哪个是重要? 请选两项。

- | | |
|-----------|-----------|
| 1. 有天生的才能 | 2. 不懈地努力 |
| 3. 取得高学历 | 4. 身体健康 |
| 5. 家庭背景好 | 6. 人品好 |
| 7. 有钱(财产) | 8. 机遇、运气好 |
| 9. 有关系、门路 | |

五、社会上还有不少生活贫穷的人,你认为他(她)们贫穷的原因是什么? 可选多项。

1. 是因为他(她)们不劳动、不努力
2. 是因为他(她)们的父母或家庭所处的环境不好
3. 是社会和周围人们的关系
4. 是他(她)天生的命运
5. 是由于国家政策产生了贫富差距
6. 其它(请说明: _____)

六、将来在选择工作时，你会注重下列哪一点？请选一项。

1. 收入安定，生活可以保障
2. 能够发挥自己的才能，有兴趣
3. 对社会有益，有作为
4. 可以悠闲、轻松地过普通的生活

七、你希望我国将来成为一个什么样的国家？请选一项。

1. 没有战争，和平安定的国家
2. 国家能够过上富裕生活的国家
3. 没有犯罪和贪污腐败的国家
4. 重视艺术和文化的国家
5. 珍惜自然环境的国家
6. 受国际社会信赖的国家

八、下列各项，你的看法如何？请在接近你的想法的□内打“√”。

- | | 完全
如此 | 基本
如此 | 不
太对 | 完全
不对 |
|----------------------------|--------------------------|--------------------------|--------------------------|--------------------------|
| 1. 自己挣的钱可以随便花····· | ☐ | ☐ | ☐ | ☐ |
| 2. 遵纪守法，有时反而吃亏····· | ☐ | ☐ | ☐ | ☐ |
| 3. 大部分事情是可以用权力或金钱解决的····· | ☐ | ☐ | ☐ | ☐ |
| 4. 现在的社会贫富差距很大····· | ☐ | ☐ | ☐ | ☐ |
| 5. 不知道自己将来想干什么····· | ☐ | ☐ | ☐ | ☐ |
| 6. 人生应及时行乐····· | ☐ | ☐ | ☐ | ☐ |
| 7. 自己拥有的别人所没有的特长····· | ☐ | ☐ | ☐ | ☐ |
| 8. 有些重要事仅仅在学校是学不到的····· | ☐ | ☐ | ☐ | ☐ |
| 9. 将来有个好工作是最重要的····· | ☐ | ☐ | ☐ | ☐ |
| 10. 将来找个好终身伴侣是最重要的····· | ☐ | ☐ | ☐ | ☐ |
| 11. 如果进入好学校上学就会有美好的未来····· | ☐ | ☐ | ☐ | ☐ |
| 12. 遇见有困难的人就去帮助他(她)····· | ☐ | ☐ | ☐ | ☐ |
| 13. 将来想成立自己的公司····· | ☐ | ☐ | ☐ | ☐ |

十二、你有过下列行为吗?

- | | | |
|------------------|----------------------------------|-----------------------------|
| 1. 离家出走..... | ☐ 有 | ☐ 没有 |
| 2. 吸烟 | ☐ 有 | ☐ 没有 |
| 3. 喝酒 | ☐ 有 | ☐ 没有 |
| 4. 赌博 | ☐ 有 | ☐ 没有 |
| 5. 毁坏公物..... | ☐ 有 | ☐ 没有 |
| 6. 小偷 | ☐ 有 | ☐ 没有 |
| 7. 看黄色录象和书刊..... | ☐ 有 | ☐ 没有 |

十三、那么, 你对上述行为如何看待?

- | | | |
|------------------|--------------------------------------|-------------------------------|
| 1. 离家出走.....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 2. 吸烟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 3. 喝酒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 4. 赌博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 5. 毁坏公物.....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 6. 小偷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 7. 看黄色录象和书刊..... | ☐ 绝对不可以 | ☐ 本人自由 |

十四、你认为青少年案件主要在什么时间什么地方发生?

- | | |
|--------------|-------------|
| 1. 上课时间 | 2. 休息时间 |
| 3. 在校食堂吃饭时间 | 4. 下课以后 |
| 5. 上学放学的路上 | 6. 繁华街道、游戏厅 |
| 7. 昼夜营业的商店附近 | 8. 公园、荒地 |
| 9. 其他 | |

十五、下述各项是否或接近你的情况?

- | | | | | | |
|----------------------------|----------------------------|-------|-----------------------------|-------|------------------------------|
| 1. 周围自己看不惯的人很多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2. 我没有真正的朋友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3. 没有人关心我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4. 我事事不如别人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5. 谁都不理解我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6. 想改变自己的性格或行为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7. 想成为一个不模仿他人, 有个性的人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 8. 想成为一个自己能够茅重自己的人 | ☐ 是 | | ☐ 不是 | | ☐ 说不清 |

十六、有关性方面的知识,你主要从哪里获得? 请选一项。

- | | | |
|----------|----------|--------------|
| 1. 父母 | 2. 兄弟姐妹 | 3. 朋友 |
| 4. 高年级学生 | 5. 学校的老师 | 6. 报刊、杂志、漫画 |
| 7. 广播、电视 | 8. 电影、录像 | 9. 其他(_____) |

— 完 —

谢谢合作!

